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기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5월 9일(음력 3월 23일) 수요일 (주간) 제 627 호



서울 시청 앞에 다보탑

'나눔과 화합의 등' 밝혀

올 부처님오신날을 전후로 서울시청 앞 광장을 비추게 될 봉축상징물이 공개됐다.

'나눔과 화합의 등'이라고 명명된 이 등은 가장 한국적인 탑이라 불리는 국보 제21호인 불국사 다보탑(多寶塔)을 형상화 했으며, 그 위에 전통 단청문양을 입혀 높이 21m로 제작됐다.

'나눔과 화합의 등'은 과거불이자 법신불인 다보부처님을 상징한다. 또 양극화 문제라는 우리사회와 인류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과 국민통합 나아가 인류의 공생공영을 발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한편 시청앞 점등식은 5월 9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다. **남동우 기자**

동국대 불교대학

트랙제 '논란'

학교측 4개학과 한데 묶고 정원 감축…전액 장학금에 기숙사 제공

교수·학생 "종립대서 불교대 정원 줄이다니…비인기 과목 고사도 우려"

동국대(총장 오영교)가 재학률 저조 등을 이유로 불교대학 내 4개 학과인 불교학, 인도철학, 선학, 사회복지학 전공을 한데 묶는 트랙제를 실시하고 정원까지 줄이겠다고 해 불교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불교대학(학장 법산) 교수들은 5월 4일 총장 면담을 통해 트랙제 반대 및 정원 축소 폐지를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교 총장은 "불교대학의 트랙제 실시와 정원을 현행 80명에서 70명으로 줄이는 대신에 학부생들에게 전액 장학금과 기숙사 입실을 고려하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불교대학장 법산 스님은 "단과대학의 구조조정 및 개혁을 하려면 위원회를 만들어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며 "산림자원과와 식물생명공학과 등은 재학률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인원 감축없이 특성화시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선학과 교수는 "트랙제 실시도 문제지만 현재 80명으로 돼 있는 정원을 70명으로 줄인다는 것 자체도 큰 문제"라며 "종립대학인 동국대에서 불교대학 정원을 줄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불교대학생들의 재적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측이 정말 불교대학을 위한다면 형식상의 구조조정보다는 전과금지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측이 실시하려는 트랙제란 현재 불교학, 인도철학, 선학, 사회복지학 등 4개의 전공을 한데 묶는 것을 말한다. 만일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부생들은 전공에 국한되지 않고 원하는 수업만을 골라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비인기 과목은 자동 폐강되며, 교수 또한 자동 퇴출될 수 있다. 또한 4학년 2학기 때 학생이 이수한 과목을 평가해 특정전공으로 인정, 학위를 수여하게 된다. 트랙제를 실시하면 학생들은 복지사 자격증이 나오는 사회복지학 전공 같은데 몰릴 가능성이 많아 가뜩이나 인기가 떨어지는 불교학 등 인문학들은 고사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불교대학 교수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있다.

이번 구조 조정안은 동국대측이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것의 일환으로, 동국대는 3년간 87억여원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신 518명의 학생정원을 줄이고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특성화 분야를 개발 육성해야 한다.

한편 학교측은 불교대학 교수들이 4일 총장 면담을 통해 건의한 내용을 검토 한 뒤 내주 중으로 절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김지하 '생명 강연' 5면

한암 대종사 수행가풍 배우자

제3회 한암대종사 수행학림, 11일부터 월정사서

월정사 · 本社 공동주최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삼춘에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노라"며 입적할 때까지 27년 동안 오대산문을 나서지 않았던 한암 대종사(사진).

조계종 초대 종정인 한암 대종사의 선사상과 수행가풍을 재조명하고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수행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제3회 한암 대종사 수행학림이 열린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와 현대불교신문사(대표이사 혜월)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월정사에서 열린다. 특히 13일 오전 10시 한암 대종사 탄신 제131주기 추모다례재에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는 한암사상연구학술세미나가 진행된다.

세미나에서는 신규탁 교수(연세대 철학과)가 '선종사 지평에서 본 방한암 선사'를,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가 '한암의 일발선 : 장종(학)과 교어(앵)의 마찰과 윤활'을, 김종진 교수(동국대 국문과)가 '한암 선사 참선곡의 문학적 특성과 문화사적 의의'를, 윤창화 민족사 대표가 '한암의 서간문 고찰'을 각각 발표한다. 여기에 김호성(동국대 인도철학과) · 박재현(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 배규범(경희대 국문과) 교수와 김영욱 가산불교연구원 상임연구원이 논평자로 나선다. **남동우 기자**

인물經 세상鏡

하진수씨 부부의 행복한 '절 수행'

부창부수(夫唱婦隨). 손발이 맞는 부부는 언제나 행복하다. 경남 의령에 사는 하진수(50) 조정숙(48) 커플도 손발이 잘 맞기로 소문난 부부다. 그들의 행복을 가꿔주는 뿌리는 '절 수행'이다.

▼남편 하진수씨는 10년째 매일 아침 108배를 하고 있다. 부인 조정숙씨는 8년째 매일 1000배를 하고 있다. 사업 때문에 부산에서 의령으로 온 남편이 인근 유학사에서 '절 수행'으로 신심과 건강을 다지자 2년 뒤에 온 아내도 '절 수행' 삼매에 빠진 것이다. 막내를 임신했을 때 8개월까지 절을 했을 정도였다.

▼남편은 지난달 경리직 여사원을 채용했다. 아내가 하루 3000배씩 100일간 정진을 하겠다고 발원했기 때문이다. 그간 회사 경리 일을 하던 아내가 '절 수행' 100일기도에 들어간 뒤 남편이 바빠진 건 당연지사. 아침마다 유학사에 가서 하던 108배를 집에서 하게 됐고 아침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는 등 집안일까지 도맡았다. 큰 맘 먹고 시작한 아내의 100일 기도, 남편의 '외조'가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의 물결로 전해지고 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자녀들도 "엄마 아빠 뵈러 저희가 의령으로 갈게요"라며 효성을 보인다.

▼온 집안의 행복이 샘솟는 자리, 바로 '절 수행'을 둘러싸고 모아지는 따스한 마음이다.

▼남편 하진수씨는 유학사 주지 원담 스님에게 '거사 108예참 안거'를 건의한 장본인이다. 108명의 거사가 5월 20일부터 하안거 해제 날까지 매일 가정에서 108 예참 기도를 하는 신행결사다. 하씨는 요즘 행복하다. '거사 108예참 안거' 입제를 앞두고 전국에서 동참 바람이 불고 있고 아내의 3000배 정진도 하루하루 짙어지는 녹음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108예참기도 문의, 유학사 055-574-2882, cafe.daum.net/youhhaksa)

임연태 기자

〈PR〉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중국장가계와 남보타사 순례 떠나요

현대불교신문사는 중국 전문 여행사인 격린여행사와 정식으로 업무제휴를 맺고 성지순례 사업을 실시합니다. 수려한 봉우리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중국 여행의 최고 백미로 꼽히는 호남성 장가계(사진)와 당나라시대에 건립된 천년고찰인 복건성 하문 남보타사를 참배합니다.

장가계에서는 천자산 자연보호구를 비롯해 무릉원으로 불리는 백장협, 봉우리가 붓을 꽂아 놓은 듯한 어필봉, 원가계 풍경구, 중국최대의 동굴인 황용동굴 등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문에서는 남보타사 이외에도 역시 천년고찰인 천주의 개원사와 범천사 등 3사 순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하문 최대의 온천장인 '일월곡' 관광도 할 예정입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격린여행사
●**일시:** 6월 1일(금)~6월 6일(수)<5박6일>
●**일정:** 장가계, 원가계, 하문 남보타사, 개원사, 범천사
●**가격:** 84만9천원(비자 수수료 포함)
●**문의:** 격린여행사(02)778-9338/담당 임수연, 안경아

선 무 도
선체조/선요가/선호흡/선기공/선무술
선무도 전국지원
·경주 총본원 골굴사 및 협회 054)744-1689, 054)742-1605 www.sunmudo.com
·서울 : 종로 02)763-2980
서초 02)571-6521 방배 02)599-5554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02)2260-3727
·인천 032)541-6301 일산 031)924-5655
·안산 031)475-2601 청주 043)285-1732
·대구 053)525-0718 포항 054)275-6069
·울산 052)276-6271 양산 055)382-5074
·부산 :
보림 051)524-1600 장림 051)464-1380
금정 051)515-8323 서면 051)818-0166
국외지원
·U.S.A L.A 213-487-5377
·Canada Toronto 941-656-9642
·Austria Salzburg 06-215-5394
·France Toulouse 05-61-08-1010
(사)세계선무도협회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I Love Buddha / 결과를 바라지 않는 수행

용정운(www.zentoon.com)



금강약돌 온열복대
열침의 효능—Health Belt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氣발생기 : A8306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 : 대-07236-5004A호
▶전자파 장해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삼성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배와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암은 열에 약하며"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강력한 원적외선 「열침」의 효과

불가사리 안녕하세요. 건강지키미 금강닥터사입니다. 다년간 건강제품에 열정을 바쳐온 본사에서는 북한에서 소량만이 생산되는 북한 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한 기능성 건강치료기 온열복대를 개발하였습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볼이 70-80℃ 이상의 고열을 발산시켜 착용시 복부(오장육부) 깊숙히 강력한 복사에너지와 원적외선을 전달하여 뜸과 같은 열침을 맞는 효과가 있으며, 체내의 노폐물 배출과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주어 만성위염, 소화불량, 생리통, 변비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좋게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오늘날 각종 질병치료에 온열요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암 등의 치료에도 온열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이에 상응되는 의료기라 할 수 있습니다.

금강약돌 온열복대의 효능

생리통, 복통, 요통, 냉증, 변비, 소화불량, 관절염, 전립선, 피부염, 복부지방분해, 혈압조절, 피로회복, 체질 및 혈액순환개선, 산후조리, 스트레스성 증상, 숙취 등에 효과적이며, 특히 암예방과 전이예방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킵시다!●●●

오늘날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현대의학으로는 치유할 수없는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고있습니다. 현재 스님 불자님들 께서도 온열복대 체험 후 많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온열복대와 유사품과의 비교 ■■■

비교내용	금강약돌 온열복대	유사품(세라믹, 맥반석 등)
전기열선온도	95-100℃	70℃미만
접촉외부온도	1시간이내70-80℃, 1시간후 80℃유지	50℃미만
원적외선	발열(약 40℃)에서 93%, 50℃에서 95%가 방사된다.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 원소가 60여종 포함되어 있다.	발열(약 40℃)에서 방사량이 93%가 안되며, 90%이하일 경우는 신체의 효를 오히려 빼기게 된다.
음이온	1㎤당 3000~1500개의 음이온이 나온다.	일반 1㎤당 500개만의 음이온을 낳는다.

문의전화 : 금강닥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지역 대리점 및 딜러 모집♣

한국 비구니 활동 한눈에 본다

한국비구니연구소, '…명감' '수행담록' '…자료집' 등 발간…11일 기념회

중앙승가대 한국비구니연구소(소장 본각)가 5월 11일 오후 1시 승가대 강의동 1층계단 강의실에서 <한국비구니 명감> <한국비구니 수행담록> <한국 고 · 중세 불교여성 · 비구니자료집(정사류)> <신문기사로 본 한국비구니 자료집>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한국비구니 명감> 1권, <한국비구니 수행담록> 3권, <한국 고 · 중세 불교여성 · 비구니자료집(정사류)> 1권, <신문기사로 본 한국비구니 자료집> 제7, 8권(2001~2006년) 등은 규모나 전통의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비구니승가의 활동을 알릴 자료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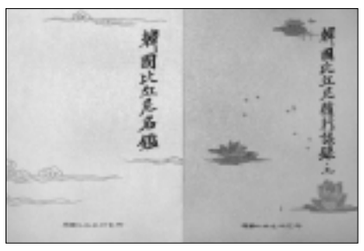
한국비구니연구소는 교단 내외적으로 청정성과 수행성을 인정받으며 구법과 포교에 종단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온 한국비구니승가의 활동자료를 정리해 총서로 발간하게 됐다. 특히 <한국비구니 수행담록>의 자료정리에는 7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됐다.

<한국비구니 명감>은 근 · 현대에 활약한 비구니 570명에 대한 연대기적 자료정리이고, <한국비구니 수행담록>(전3권)은 327명 비구니스님의 일생 행적을 좀 더 자세히 기록 정리한 것이다.

<한국 고 · 중세 불교여성 · 비구니 자료집> 1권 정사류 편은 우리의 고대 역사서인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에서 비구니 관련 자료를 가려 뽑은 것이다.

<신문기사로 본 한국비구니 자료집> 제7, 8권은 2001년부터 2006까지 교계신문에 보도된 비구니스님 관련 자료를 다시 정리했다.

한국비구니연구소 소장 본각스님은 "흩어져 없어지기 쉬운 자료들을 모아서 한국비구니의 발자취를 역사서로 정리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한 것"이라며 "자료정리에 7년여의 세월이 흘러갔다.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고 부족한 대로 책을 발간할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비구니연구소가 발간한 <한국비구니 명감>과 <한국비구니 수행담론>.

한편 한국비구니연구소는 2003년 <신문기사로 본 한국 근현대 비구니자료집> 전 6권과 비구니관련 연구논문 및 교양논문을 모아 <비구니와 여성불교> 전 6권을 발간한 바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TIP 한국비구니연구소는 한국비구니승가의 발자취를 기록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1999년 중앙승가대 안암학사 대원암에 거주하던 97학번 비구니 학인스님 중심으로 설립됐다.

염불 제대로 하려면…

조계종 불학연구소 '염불 수행입문' 발간



한국불교 역사상 선(禪)과 함께 가장 많이 실천해온 수행법 중 하나가 염불이다. 염불은 사찰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행하는 의례이자 한국 불자들의 대표적 신앙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불교 중심의 한국불교 풍토에서 염불은 하근기 중생들의 타력 신앙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가 수행 초심자를 대상으로 한 <염불 수행 입문>(사진)을 발간했다. <간화선 입문>과 <절 수행 입문>에 이은 '불교 수행 입문' 시리즈 세 번째 책이다. 이 책은 예배, 참회, 발원으로 이어지는 염불 수행 의식과 실제로 염불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행하게 될 절차를 중심으로 염불할 때의 주의사항, 염불 수행자의 마음가짐 등 염불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침을 담았다.

또한 여러 종류의 염불 방법과 염불의 역사, 경전 전거 등을 정리해 기준과 방법이 혼재돼 있는 염불 수행법을 종단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입문서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관음사 주지 진명 스님 선출 '무효'"

조계종 중선위 결정…제주불자연합 "희생 강요"

진명 스님을 제주 관음사 교구 주지후보로 선출한 산중총회에 대해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는 5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76차 회의를 열고 "제23교구 관음사에서 4월 20일 산중총회를 시행한 것은 불법이므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관음사 교구는 중앙선관위 선거 중지 및 재선거 결정에도 불구하고 4월 20일 산중총회를 강행해 진명 스님을 관음사 주지 후보자로 선출했었다.

중앙선관위는 또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인 시몽 스님과 협조해서 주지직무대행 기간 내 산중총회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공문을 관음사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교구 선거관리위원 전원에게 발송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관음사 교구는 4월 27일 광제사 대웅전에서 교구종회를 열고 빠른 시일 내에 산중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주지 임명이 보류된 법화사, 월라사 등 2개 사찰과 반려된 6개 사찰 주지를 품신하기로 결정했다.

관음사 문제와 관련 동산문도회는 5월 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금의 사태는 오랫동안 관음사를 기반으로 제주불교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던 회주를 비롯한 소수 소임자 스님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종헌종법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종단의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불교 교권수호와 청정승가 외호를 위한 제주불자연합은 4월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산중총회에서 추천한 진명 스님을 관음사 주지로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관음사의 교권을 유린하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한국불교 중흥시킨 선사들 '성자'로 추대하자"

대륜불교문화연구원 종단협에 제의

'한국불교 역대 대선사를 엄선해 성자(성인, 득신통대보살, 아라한)로 추대하자.'

(사)대륜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무공, 태고종 중앙포교원장)은 4월 27일 서울 무량사에서 임원총회를 개최하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이와 같이 건의했다.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은 제안서에서 "한국불교 1700년사를 살펴볼 때 실로 대오견성하신 대승의 득신통대보살과 대선사가 많이 배출됐다"며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성자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불교를 중흥 발전시킨 역대 대선사 10~16분을 선정해 성자(聖者)로 추대하고 예배, 공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안서에서 또 "현존 한국불교사에는 원효, 의상, 도의, 원측, 자장, 의천, 지눌, 태고, 무학, 휴정, 유정 등 기라성 같은 득신통대보살과 대선사가 존재하고 있다"며 "심지어 중국불교에서 한국스님인 지장 법사를 육신보살로, 무상 대선사를 500나한 중 한 분으로 추대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성자추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륜불교문화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불교 승가에서는 조석예불시,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대 아라한들에게 예배공양하고 있다"며 "인도와 중국 불교에서는 이처럼 많은 성인을 배출했는데 한국 불교 1700년사에서 한 분의 성인도, 대승의 득신통대보살도, 아라한도 배출하지 못한 것은 민족적 주체성과 자존심을 포기한 사대주의 망상에서 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대륜불교문화원 이사장 무공 스님은 "일단 한국불교의 중심적 종단인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 종단들이 나서 자체적인 추대절차를 거친 뒤 불교학자들에게 의뢰해 한국불교사상 크게 깨달아 깨친 성사로서 한국불교를 중흥 발전시켜 주신 10~16분의 대선사를 엄선해 성자로 추대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사찰 사용 국유지 얼마나?

조계종 재무부 조사 실시

조계종 재무부는 사찰이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현황과 사찰 토지를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사찰은 소재지, 지목, 면적, 대부료, 대부기간, 토지의 관할부처 등을 기입해 5월 31일까지 재무부(02-2011-1750)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재무부는 사찰 재산 임대 현황과 사찰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현황 및 납부 현황을 5월 31일까지 조사한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4월 1일부터 '현대불교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의 행사 개별 기록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와 소장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영상, 사찰행사 기록용 및 소장용, 개인 다큐물 및 동영상 자서전 제작, 단체 활동 홍보 영상 등.

단장 겸 감독: 김봉환 (前 KBS/동아TV 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02-2004-8279

총무원장 장학생 선발

조계종 포교원이 인재육성 일환으로 2007년도 총무원장 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한다.

장학금은 동국대 재학생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1인당 200만원씩 지급된다. 6월까지 포교원(02-2011-1891)으로 접수하면 된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새싹불자를 키웁시다' 캠페인, 종립학교 학급에 '현대불교 보내기'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홍파 스님	무공 스님	성운 스님	대현 스님	철안 스님	원담 스님	법만 스님	옹산 스님	진효 스님	성원 스님	홍승희
(관음종 총무원장)	(태고종 중앙포교원장)	(서울 삼천사 주지)	(서울 보광사 선원장)	(남양주 봉선사 주지)	(서울 조계사 주지)	(고창 선운사 주지)	(예산 수덕사 주지)	(강화 정수사 주지)	(강화 선원사 주지)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50만원	20만원	매월 10만원	30만원	매월 20만원	매월 20만원	매월 10만원	10만원	매월 10만원	10만원	30만원

무량회 30만원
익명의 불자 100만원
이경섭 2000원

알림

본지에 연재하기로 했던 '팔만대장경강설대법회'가 합천 해인사의 내부사정으로 취소됐음을 알립니다.

한암대종사 탄신 제132주기 추모 행사 봉행

귀의삼보 하옵고,
조계종 초대 종정 한암대종사의 탄신 제132주기를 맞이하여, 삼학균수 및 승가오칙(선, 염불, 간경, 의식, 수호가람)의 수행법을 널리 펴신 한암대종사의 정신과 사상을 계승하고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수행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한암대종사 수행학림과 추모다례재, 판소리 '한암가' 공연, 한암선사상 학술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선근인연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음

■ **한암대종사 수행학림**
- 일 시 : 5. 11.(금) - 13.(일)
- 장 소 : 월정사, 상원사, 중대사자암, 적멸보궁
- 수행일정 : 좌선, 나를 닦는 108배, 삼보일배, 참법 및 포살, 포행, 강의 등

■ **한암대종사 탄신 제132주기 추모 행사**
- 일 시 : 5. 13.(일) 09:00 - 17:00
- 장 소 : 월정사 적광전 및 대법륜전
- 행사내용
  - 한암대종사 탄신 제131주기 추모다례재 : 10:00 - 11:30
  - 판소리 '한암가' 공연 : 12:30 - 13:30
  - 제2차 '한암사상연구' 학술세미나 : 13:30 - 17:00

1. 禪宗史 지평에서 본 方漢岩禪師
   - 발표자 : 신규탁 교수(연세대 철학과 교수)
   - 논평자 : 김호성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2. 한암의 一鉢禪 : 藏踪(鶴)과 巧語(鸚)의 마찰과 윤활
   - 발표자 :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 논평자 : 박재현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3. 漢岩禪師 參禪曲의 문학적 특성과 문화사적 意義
   - 발표자 : 김종진 교수(동국대 국문과)
   - 논평자 : 배규범 교수(경희대 국문과)
4. 漢岩의 書簡文 考察
   - 발표자 : 윤창화(민족사 대표)
   - 논평자 : 김영욱(가산불교연구원 상임 연구원)

제3회 한암 대종사 수행학림 일정표

날 짜	시 간	내 용	장 소	
5월 11일 (금요일)	13:00	월정사 도착	월정사	
	13:30~14:00	입재식		
	14:00~15:00	지장암 순례		
	15:00~16:00	상원사로 이동	상원사	
	16:30~17:20	나를 닦는 108배		
	17:20~18:00	저녁공양		
	18:30~20:00	저녁예불		
	20:00~22:00	좌선법 강의/좌선		천웅스님
	22:00	취침		
5월 12일 (토요일)	03:30~05:00	새벽예불		
	06:00~06:30	경행(한암스님 부도탑)		해량스님
	06:30~07:00	아침 공양		
	07:00~09:30	서대산행		
	10:00~11:00	중대사자암으로 이동	중대 사자암	
	11:30~12:30	점심공양		
	13:00~14:00	주지스님 특강		퇴우정념스님
	14:00~16:00	삼보일배 / 정근정진		인광스님
	17:00~18:00	저녁 공양		
	18:10~20:00	저녁예불		
	20:00~21:00	참법 및 포살		인광스님
	21:00~22:00	좌선		천웅스님
	22:00	취침		
5월 13일 (일요일)	03:30~05:30	새벽예불		
	06:00~07:00	아침 공양		
	07:00~08:30	월정사로 이동	월정사	
	08:30~09:20	전나무 숲길 포행		
	09:30~11:00	한암대종사 탄신재 및 헌다례		
	11:30~12:30	점심공양		
	13:00~13:30	한암가 공연		
	13:30~17:00	한암대종사 선사상 국제학술세미나		
	17:00~17:30	회향식		

불기 2551('07)년 5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성지 월정사 회주 연암 현해 주지 퇴우 정념 합장

한암문도회 제36차 정기총회

귀의삼보 하옵고
문수성지 오대산 한암문도회 제36차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문도스님께서는 무루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2007년 5월 13일(음력 3월 27일) 12:00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성지 월정사 동별당
■ 안 건 : 1) 한암 · 탄허대종사 선양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한암 · 탄허대종사 선양사업 추진의 건
3) 기타 안건
■ 연락처 : 033)332-6661~5

※ 한암문도회 운영위원회는 5월 13일 오전 9시부터 개최하오니 운영위원 스님들께서는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1('07)년 5월 1일

한암문도회 대표 연암 현해 운영위원장 홍원 월면 합장

석가탑 유물 이관 '사실상 불가'

불교중앙박물관 전시 후 국박에서 보존처리키로

관리주체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 온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 내 발견유물(국보 제126)'이 부처님 오신 날 특별전 기간에만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 대여 · 전시된다. 전시 후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다시 이관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 문화재위원회(위원장 안휘준)는 5월 2일 국보지정분과 · 동산문화재분과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유물의 소유주가 불국사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전시를 위해 일부 유물을 이관하는 데는 동의하되 전시 후 문화재를 다시 이관해 국립중앙박물관이 보존처리한다"고 결의했다. 보존처리와 종합학술조사 보고서 발간 이후 문화재위원회는 해당 유물의 관리주체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보존처리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문화재위원회의 결의에 대해서는 수용하지만 즉각적인 이관 불가 등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평을 5월 3일 발표했다. 하지만 조계종은 "해당 유물의 소유자가 불국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을 환영하며, 향후 소유권자로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불교중앙박물관장 범하 스님은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유물에 대해 소유자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지만 지금 당장 조계종으로 돌아와야 한다고는 고집하지 않는다"고 말해 '무조건적인 반환'과 '반환 거부 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던 종단의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내비쳤다.

조계종은 "개관특별전에 가능한 모든 유물을 전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 아래 5월 14~17일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시 유물 · 일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석가탑 발견유물은 5월 18일부터 부처님오신날인 24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 후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한 뒤 보존처리 된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주도하에 종합학술조사보고서가 간행되며, 이때는 문화재위원(김리나 박상국 이오희 신승운)과 관련전문가(안병찬 · 박지선 교수)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참여한다.

조계종은 3월 개관한 불교중앙박물관의 개관특별전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에 석가탑 출토유물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국립중앙박물관이 갑작스레 '반환 불가'를 통보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소유권'이 우선이냐 '법적 권한'이 우선이냐를 두고 논란을 빚다 결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관리주체를 결정하게 됐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건축불사 관리법 제정 필요"

교단자정센터토론회서 김형남 변호사 주장

"건축불사의 부조리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불사 추진을 선별할 수 있는 건축불사관리법 제정이 마련돼야 한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가 5월 2일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관에서 연 '가칭 건축불사관리법 제정 검토 토론회'에서 불사 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며 아울러 불사에 대한 스님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자로 나선 김형남 변호사는 "국고보조금이 사찰의 경상비나 스님들의 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건축불사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불사심의위원회'와 '불사집행위원회'를 구성해 일정 규모 이상 불사에 대한 사전심의와 불사 진행 후의 사후관리까지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용화사 주지 덕문 스님(중앙종회의원)은 "교부금 또는 문화재보수비 등 국고보조금을 타는 것이 주지 능력으로 인식되는 승가의 인식전환이 법 제정보다도 우선돼야 한다. 관련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종단에 법무팀을 구성한 것처럼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재가자의 참여구조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리라 본다"고 주장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도 "법률제정 과정에서 대중의 호응이 있어야 입법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제정된 법이어야 실제 운용에서도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종학 조계종 총무원 문화팀장은 "사찰의 국고보조금 관리능력을 심의기준으로 삼을 경우 현재 사찰 행정업무 능력을 감안하면 시급한 불사는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뻔하므로 사회법과의 관계도 고려해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주일 기자

"중국산 양초 조심"

인체 · 단청에 악영향

불기 2551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양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질 낮은 중국산 양초가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어 불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한국양초공업연합회에 따르면 6개 양초회사가 설립한 B양초 회사는 2006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3억원 상당의 중국산 양초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했다. 이 업체는 수입박스와 원산지를 제거하고 각자 소유한 양초제조 공장 명의로 판매하다 4월 27일 서울세관에 적발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현재 구속수사 중이다.

중국산 양초에는 표백제가 과다 투입돼 양초에서 발생하는 그을음이 인체에 유해할 뿐 아니라 단청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진 한국양초공업연합회 감사는 "값싼 중국산 양초 때문에 국내 양초 제조업 수십 개 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향후 인증마크 도입 등을 통해 중국산과 구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한복입고 팽이치고…
"원더풀 코리아!"

스위스 법계사 한국문화축제에 현지인 '감동'

지난 4월 스위스 로잔근처 라사라성과 까르주센터에서 두 차례 열린 한국문화축제에 까만 눈을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다. 그들은 한국인 입양아들이었다. 한국말도 할 줄 모르지만 우연히 한국문화행사가 있다는 기사를 보고 온 것이었다.

행사를 보러 와서 가장 오랜 시간 머문 사람들도 입양아들이었다. 어떤 입양아는 행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머물면서 한국 전통문화를 몸에 익히려고 노력했다. 행사를 주관한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은 "앞으로 한국인 입양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스위스 유일의 한국절 법계사가 개최한 한국문화축제에는 매주 토요일 2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한복을 입어보고 한국 전통놀이인 투호, 팽이치기, 공기놀이 등을 체험했다. 신은숙 인강서예문인화 연구소 원장이 시연하는 서예문인화와 금산 양계승 선생이 직접 만드는 도자기를 보고 한국의 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남동우 기자



스위스에서 열린 한국문화축제에서 태권도를 선보이고 있다.

교장 · 장학사 교육경력자 '불심 투합'

6월 1일 '푸루나' 창립

교장과 장학사 등 교육 경영직에 근무하고 있는 불자들의 신행모임 '푸루나'가 6월 1일 오후 6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한다.

교육경영직불자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진정순, 前 당곡초등학교장)는 4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전 · 현직 불자 교장 및 교감, 장학관 및 장학사 등 51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푸루나는 앞으로 종단의 청소년 포교 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청소년 포교조직 및 교사조직 결성, 불교도서 및 자료집 개발 보급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대구 성원어린이집 개원

대구지역 불교계에 처음으로 직장보육시설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개원됐다. 4월 28일 대구 달성군 논공공단 내에 열린 '성원어린이집' 개원식에는 양산 통도사 주지직무대행 산옹 스님을 비롯해 지역 스님 20여명이 참석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순천 송광사 본말사 스님들이 5월 1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효봉 대종사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금강산 신계사서 효봉 스님 기려

송광사 본말사 신도 250명 추모제 봉행

조계종 통합종단 초대종정을 지낸 효봉 대종사 추모제가 남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5월 1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봉행됐다. 신계사는 효봉 대종사 출가지이며 수행처다.

순천 송광사 본말사 스님 및 신도 250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추모제는 효봉 대종사 영정을 모시고 행장 소개, 신계사 도감 제정 스님 인사말, 독경 및 염불, 헌화 등으로 진행됐다.

효봉 대종사 수행처이며 오도지인 법기암터를 참배한 송광사 스님 및 신도들은 이곳에서 출가한 해혜 스님(경주 흥륜사 회주)의 설명을 들은 뒤 잠시 참선을 하기도 했다.

영조 스님은 "효봉 대종사님께서 수행정진하시고 깨달음을 얻은 법기암터가 복원될 수 있도록 효봉문도회 후학들과 불자들이 원력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송광사는 법기암터와 효봉대종사 정진터라는 표지석을 세우기 위해 현대아산 및 조선불교도연맹과 협의 중이다.

남동우 기자

봉은사, 사랑 · 나눔으로 봉축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주제로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린다.

봉은사는 5월 10일부터 영등포교도소와 강남경찰서를 비롯해 군부대 10여 군데의 포교현장을 위문한다. 18일에는 강북장애인복지관 장애우와 지역 독거어르신을 초청해 전통등 전시회를 관람한 후 아쿠아리움 · 민속박물관을 견학하는 '사랑과 나눔의 한마당'을 개최한다. 5월 11~23일에는 서울의료원 입원병동을 방문해 환우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22일에는 강남구재활용선별장과 승가원 장애아동시설을 방문한다. 17일 봉은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동대부여중 학생 50여 명을 초청해 장학금도 수여한다.

한편 5월 21일 개막하는 세계물류유통컨벤션에 참가하는 기업 경영자(CEO) 100여 명이 봉은사 템플라이프에 참석할 예정이다. (02)511-6070

여수령 기자

부산 소림사 신도 총무원 방문

"정일 스님 창건주 권한 승계"

부산 소림사 신도 200여명이 혜전 스님을 주지로 임명해 달라며 5월 1일 조계종 총무원을 항의 방문했다.

신도회 대표들은 조계종 총무부장 현문 스님과의 면담에서 △소림사의 창건주 권한승계자는 회주 정일 스님임을 확인하는 문서를 발급할 것 △정일 스님을 주지로 품신 시 즉시 임명 등을 총무원장 스님에게 건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종인 스님은 5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운 스님 직계상좌인 내가 창건주 권한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년 11월 종인 스님은 창건주 권한 승계를 받았지만 2005년 8월 법규위원회에서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남동우 기자



나눔과 축제의 도량 조계사

5월, 작렬하는 한낮의 더위도 비껴가는 조계사 대웅전에 앉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고,
깜깜한 밤 세상을 수놓는 형형색색의 연등을 보며 소원도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3천배용맹정진
5월 12일(토)
저녁 7시부터 ~
새벽 4시(새벽예불)회향
조계사 대웅전

장애인 수계대법회
5월 19일(토)
오후 12시 30분
조계사 대웅전

연등축제
5월 20일(일)
불교문화마당
오전 10시 ~ 오후 5시
조계사 앞길
연등행렬
오후 7시 ~ 밤 10시
동대문야구장 ~ 조계사

불기2551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4일(목)
오전 10시
조계사 특설무대

조계사에서는 부처님오신날 주간을 맞아 '이웃을 위한 등'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수익금 전액은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집니다.

동참비 : 1만원 (문의 : 732-2187 신도회 사무처)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Tel. 02.732.2183~4 Fax. 02.720.1391 http://www.jogyesa.org

“영기문 표현 禪 가르침과 맞닿았다”



강우방 교수, 부산 안국선원 학술대회서 주장

이 발표됐다. 강우방 교수(이화여대 · 사진)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공동대표 강동균 · 김용환)가 4월 28일 부산 안국선원(선원장 수불)에서 개최한 제3회 학술대회에서 ‘선(禪)이 한국 미술에 끼친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그간 자신이 제시해 온 ‘영기화생(靈氣化生)’ 이론을 통해 선종의 유입 이후 나타나는 조형미술의 변화를 살펴봤다. 강 교수가 주장하는 영기화생이란 우주의 신령한 기운인 ‘기(氣)’를 ‘영(靈)’으로 보고, 조형미술 전반에서 이 ‘영’을 형상화하려는 시도와 일련의 미술양식을 일컫는 말이다. 고구려 고분벽화를 비롯해 불상과 부도, 불화에 등장하는 구름, 덩굴, 당초, 불꽃, 용문양은 이러한 ‘영기’를 구상화해 표현한 것이라고 강 교수는 주장한다.

禪宗 보급은 한국문화사 큰 사건
구름 당초 등 문양 영기의 구상화
괘불의 역동적 영기 선종의 산물

강 교수는 8세기 중엽 조성된 ‘여래형 비로자나불’을 살펴봤다. 비로자나불의 경우 선종사찰이 창건되기 시작하는 9세기 무렵부터 조성되었는데, 구산선문의 주불이 된 비로자나불의 출현과 함께 대좌 형식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여래나 보살의 도상을 보여주는 수준에서 벗어나 대좌에 영기에서 화생하는 용이나 사자를 표현함으로써 비로자나불의 ‘영기화생’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어 강 교수는 신라와 고려, 조선시대의 선사탑, 즉 부도에 나타나는 문양과 마곡사 괘불 등의 조선시대 괘불에 나타나는 현란한 영기화생에 주목했다. 강 교수는 “고승의 부도가 화려하게 전개되고 비석 받침의 거북이 얼굴이 용으로 바뀌는 것, 건축의 공포에 용의 조각으로 장엄한 것 등이 영기화생의 형상화이며 이는 곧 선종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시대 괘불에 이르러 더욱 심화된다. 강 교수는 “영기문이 폭발적으로 꽃피운 조선시대 괘불의 역동적인 영기 표현은 곧 선종의 산물이다”고 강조했다.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건축이나 그림, 공예에 영기문을 표현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근원적이기 때문”이라는 강 교수는 “이것은 본성을 회복하는 선의 가르침과도 맞닿아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 불교와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강석근 교수(동국대)가 ‘한국 문학과 선시(禪詩)’란 발제를 통해 선시가 고려가요와 고려한시에 미친 영향을 살펴봤고, 김봉근 교수(동의대)는 ‘차(茶)와 선종의 만남’ 발표에서 백장청규(百丈淸規)와 끽다거(喫茶去) 화두로 차와 선종의 관계를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자유발표에서는 구자상 교수(동아대)가 ‘불전에 나타난 성차별적 교설의 분석’을, 이태호 연구원(한국과정사상연구소)이 ‘불교와 화이트헤드의 존재론’을, 김현남 교수(원광대)가 ‘복장 의식에 나타난 만다라적인 특징에 관한연구’를 각각 발표했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하성미 기자

“선종(禪宗)의 보급은 한국 문화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며, 불교사상의 변화는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8세기 무렵, 우리나라에 선종이 전래된 후 불교미술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는 논문

“할아버지 보다 나이 많아요”

개원 80주년 기념행사 개최한 ‘마산 대자유치원’

현재까지 7천여 명 졸업



“우리 유치원은 할아버지 할머니 보다 나이가 많아요.”

통도사 마산중앙포교당 정법사 부설 대자유치원(원장 천명숙)은 지난 4월 28일 개원 80주년을 맞아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원아 220명과 60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가한 이번 기념행사에서 대자유치원은 준비된 영상자료를 통해 8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개원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교육방향 등을 짚어봤다. 그 후 준비된 다도시연, 합창 및 재원생 무용 등으로 활기찬 무대를 선사했다.

현재까지 총 7226명이 졸업한 대자유치원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민족교육 도량으로서 1927년 4월 5일에 마산사립배달 유치원으로 개원했다. 1940년 대자유치원으로 개명한 후 지속적인 학급 증설과 발전으로 1984년 12월 21일 문교부 우수 유치원 표창을 받았다. 1995년 7월 12일 신축교사를 준공한 뒤 현재 220명의 원아가 취원하고 있다.

천명숙 원장은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으로 유치원 교육이 방치된 상태였기에 오히려 민족교육의 계승이 가능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교육하며 민족성 원형 보존에 노력한 개원당시의 초발심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불교가 보는 ‘트랜스젠더’

불교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바라볼까?

한국불교연구원은 ‘불교와 젠더(gender)’란 주제로 5월 11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2007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트랜스젠더’에 관한 토론도 이뤄질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황순일 교수(동국대)가 ‘남아시아 불교와 젠더’를, 이용현 교수(원광대)가 ‘티베트 불교와 젠더’를, 신규탁 교수(연세대)가 ‘동아시아 불교와 젠더’를 각각 살펴본다. ‘불교는 트랜스젠더를 어떻게 보는가’는 안옥선 교수(순천대)가, ‘가부장제도의 불교의 젠더’는 고영섭 교수(동국대)가 발표한다. 이 밖에도 마성 스님(경주 동국대 강사)은 ‘불교의 여성성불론’을 짚어보고 이태승 교수(위덕대)는 ‘보살 정체성 안에서의 젠더’를 주제로 발표한다. 여수령 기자

분황사 석탑 돌사자 수리과정 공개

3D 스캔 도상 후 조각 도드락다듬 복원

경주 분황사석탑(사적 제30호) 석사자상의 수리 복원과정이 공개됐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는 <경연고고(慶硏考古)> 제12호에 돌사자상의 수리와 복원 과정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분황사석탑 돌사자상은 지난 2005년 봄 원형복원이 제안된 후 2006년 12월부터 복원 작업이 이뤄졌다. 결실된 돌사자상의 다리 부분은 외관이 가장 비슷한 동남편 사자의 다리를 모델로 실측도와 3D 스캔 도상을 작성한 후 동일 석재로 조각하고 에폭시수지를 이용해 접착한 뒤 도드락다듬을 해 복원했다. 도드락다듬은 격자무늬가 있는 도드락망치를 이용해 석재표면을 다듬는 방법을 말한다.



분황사석탑 돌사자는 원래 기단 위에 6구가 있었으나 이 중 규모가 작은 2구는 일제강점기에 경주박물관으로 이전됐고, 현재 4구가 기단부 모서리에 배치되어 있다. 사자상은 높이 117.5㎝이며 재질은 화강암이다.

여수령 기자

순천 파라미타청소년협회 19일 전남지역 최초 발족

전남지역에 파라미타 청소년협회가 처음으로 발족한다.

(사)순천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5월 19일 오전 11시 동천고수부지에서 발족식을 갖는다. 순천파라미타협회는 초대 지회장을 맡는 김재기(두진건설 대표) 불자의 노력으로 창립하게 됐다. 김씨는 도서출판 칠엽굴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으로 순천지역 어린이 청소년 포교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포교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또 이날 발족식과 함께 순천지역 초중고생 1500여명이 참가하는 동천예술제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참가청소년들은 동천주변 환경정화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사진으로 보는 북한 국보 홈페이지 통해 서비스도

북한의 국보로 지정된 불교문화재를 사진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가 최근 발간한 <사진으로 보는 북한 국보유적>에는 북한의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 193건이 담겨 있다.

이 중에는 ‘정릉사 팔각칠층석탑(184호)’과 ‘삼성사(189호)’ 등 불교문화재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번 도록은 200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종합학술조사연구의 일환으로 발간된 것으로, 관련 유적과 유물별로 사진과 그에 대한 해설이 담겨 있다.

발간 도록 원문은 조만간 연구소 홈페이지(www.nrich.go.kr)에 서비스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어린이 문화예술탐방 실시

평창 월정사 문수청소년회(총재 정념)는 5월 6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어린이 문화예술탐방을 실시한다.

어린이들의 문화적 감성과 품성을 함양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문화예술탐방에서는 서울 뮤지컬단의 ‘달려라 하니’를 관람한다. 초 · 중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참가비는 1만5000원. (033)335-1318

남동우 기자

선리연구원 2차 월례세미나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5월 12일 오후 3시 서울 안국동 연구원 강당에서 2차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김현남 교수는 ‘범패의 전승과 지역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 범패전승의 개관과 경상도 · 전라도 · 경기지방의 범패를 중심으로 문화적인 배경과 특징을 짚어본다. 김종진 교수는 ‘근대불교시가(詩歌)의 전환기적 양상과 의미’ 주제발표를 한다. 여수령 기자

성 명 서

각 교구본사 주지는 산중총회에서 선출하여 총무원에 품신하면 총무원장은 종헌 제91조 의하여 승적, 승랍, 징계 등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종단의 기본법인 종헌규정이 이렇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은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차기 총무원장 선거 등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제주불교의 자치권을 침탈하여 장악함으로써 현 종단 집권층의 장기집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총무원은 법이야 어찌되었든 자기들의 결정만 하면 된다는 식의 독단적 결정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이는 불교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단초가 된다.
특히 총무원은 제주불교의 발전을 저해하고 파행을 초래하기 위한 술수로 타시도 소재 제21교구 백양사의 재적승인 시몽스님을 그 하수인으로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이다.

총무원은 제23교구본사인 관음사 성역화 사업 등 운영에 대하여 한푼의 예산지원도 없으면서 자신들의 권력 장악에만 혈안 되어 관음사를 빼앗으려 하는 것은 제주불자는 물론 전 도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제주불교 교권수호와 청정승가외호를 위하여 총무원의 불법행위를 엄중하게 사부대중에게 고발하며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제23교구본사 관음사를 사수할 것을 결의하고 제주도민과 함께 정진할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다 음

1. 총무원은 종헌종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임명한 시몽스님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을 즉각 철회하라.
2. 총무원은 종헌종법에 의거 관음사 산중총회에서 의결 추대된 진명스님을 지체없이 임명하라.
3. 부처님오신날에 범종파적으로 거행하는 봉축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관음사 산중총회를 인정하여 제주불교의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라
4. 지난 4월 25일 승려의 신분을 망각하고 난잡한 술판행각을 벌이고 불자들에게 행패를 부린 총무원 총무국장(혜경), 호법부 조사국장(서호), 시몽(전 법화사 주지), 도종(전 월라사 주지) 등 20여명의 총무원 스님들과 시몽스님 일행을 즉각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
5. 우리 불자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관음사 신도들은 조상 대대로 지켜온 관음사를 온몸으로 사수할 것임은 물론 전국불자연대를 결성하여 5월중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조계종 비리 및 문제승려 등의 퇴출, 정화 운동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 종헌 제 91조 】
① 본사주지는 당해 관내종무를 통리하며 교구를 대표한다.
② 본사주지는 교구(본사)의 산중총회에서 추천하며 총무원장은 종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산중총회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2007년 5월 2일

제주불교 교권수호와 청정승가 외호를 위한 제주불자연합

공동대책위원장
- 김신형 (관음사신도회 회장)
- 강원희 (관음사거사림 회장)
- 하맹사 (제주불교신도회 대표)
- 문인종 (제주불교문화대학총동문회 회장)
- 김천수 (제주불교문화대학총동문회 고문)
- 오응천 (제주불교문화대학총동문회 초대회장)
- 고영진(제주불교문화대학총동문회 2대회장)
- 홍철종 (제주불교문화대학총동문회 3대회장)
- 양영석 (제주불교문화대학총동문회 4대회장)
- 양방규 (제주불교문화대학총동문회 5대회장)
- 양정임 (관음사반야회 회장)
- 홍영선 (제주불교사회봉사회 회장)
- 양미경 (제주불교관음클럽 회장)
- 한연수 (제주불교마하야나합창단 단장)
- 조명선 (관음사해월회 회장)
- 권오남 (관음사청년회 회장)

“극단적 대립·갈등 중도로 풀어야”



시인 김지하 화계사 특별 강연

시인 김지하씨가 4월 29일 서울 화계사(주지 수경)에서 특별강연을 했다. ‘타태아 기영가천도를 위한 49재’ 기간 내 열린 강연에서 김지하씨는 불교와의 인연을 소개하며 불교의 시대적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타태아기영가천도를 위한 49재는 생명의 중요성과 더불어 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청소년들과 성인불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참선하면서 극에서 극으로 이동하는 체험 경험
중도 가르침은 차원을 바꾸는 것 곧 개혁 의미
거대한 보편진리와 생명사상이 결합된 것이 ‘불교’

전 원래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러나 7년간 독방에서 여러 가지 위험한 고비를 넘기면서 불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불교가 제 안에 깊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에서 나올 때 한 외신기자가 ‘현재 당신 사상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내 눈의 망막은 불교고 눈동자는 동학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불교에 대한 체험 3가지를 얘기하는 걸로 오늘 강연을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불교를 처음 접한 건 목포에 계셨던 외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세군데 절을 일으키신 대화주였습니다.

목포 유달산 달성사라는 절에서 커다란 종을 조성하는데 그 종에 제 이름을 넣었다고 합니다. 당시 외할머니께서 ‘우리 울램이에게 복보다 큰 지혜를 달라’고 부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 어릴 때 별명이 ‘울램이’인데, 제가 하도 울어서 붙은 것입니다. 제가 자꾸 우는 것을 보고 외할머니는 ‘이놈은 크게 출세를 하는 것보다 공부를 할 녀석 같다’고 하셨답니다. 눈물이 공부와 무슨 관계인가. 불교적인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식으로 해석한다면 고통을 모르고서는 불교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외할머니는 부처님 무릎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도 불교하면 제 머리에는 눈물과 공부와의 관계입니다. 물론 외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공부가 요즘 학생들 공부하듯이 외우는 공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생공부나 지혜 같은 것들을 전제한 것이겠지요. 불교에 대한 첫 기억은 눈물과 공부였습니다.

불교에 대한 두 번째 기억은 독방에서 7년을 지낼 때입니다.

계절이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서대문 감옥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유리창이 없었습니다. 쇠창살 사이로 민들레 씨와 가죽나무 씨가 날아 들어와 흙먼지와 함께 쌓입니다. 비가 온 뒤 싹을 틔우는데 그 모습을 보고 까닭 없이 눈물이 터졌습니다. 몇 시간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허공에서 ‘생명’ ‘생명’ ‘생명’이라는 울림이 메아리쳤습니다.

민들레나 가죽나무 따위의 조그만 생명도 벽에 달라붙어 생명을 틔우는데 인간이라는 고등생명체가 생명의 비밀만 깨달을 수 있다면, 감옥 안에서 내 아내와 친구, 아이들과 같이 있을 수 있을 것 아닌가. 생명에는 안팎이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개똥철학이지요. 그러나 그 개똥철학이 저에게는 목숨을 거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살았던 감방 몇 개 건너에 기골이 장대한 분이 있었습니다. 청담 스님 시자를 했던 분인데 환속한 뒤 수표사건으로 들어온 분입니다. 그 분과 통방을 하면서 참선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물었더니 몇 가지 가르쳐줬습니다.

가부좌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백일 동안 참선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시를 쓰려면 인간의 내면을 알아야 됩니다. 내면의 아픔이나 후회, 괴로움이 동반되지 않으면 문학으로서의 시는 없습니다. 저도 꽤 안다고 생각했는데 천만이었습니다. 외부의 괴로움만 생각했지 내면에 대해선 깊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선을 하면서 극에서 극으로 이동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한 사흘은 시커먼 뻘 속에 있고, 한 나흘은 갈대밭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그리움에 휩싸여 있다가 엄청난 증오심이나 혐오감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청담 스님 시자를 했던 분에게 “절대 휩쓸리지 말라. 상이 나타났을 때 또 절대 외면하지 말라. 중립을 해야 한다. 그게 요체다”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참선을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 박정희 前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밑바닥에서 고무풍선 세 개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고무풍선은 제 마음의 말이겠죠. 첫 번째 풍선은 ‘인생무상’ 두 번째 풍선은 ‘안녕히 가십시오’ 세 번째 풍선은 ‘나도 곧 뒤따라 갑니다’였습니다.

차지철 前 대통령 경호실장이 총살대상 1000명의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저였는데, 그만큼 저를 미워했다는 증거죠. 하지만 저도 반은 미움으로 투쟁했습니다. 학생시절 한일굴욕회담 반대 운동을 할 때 부모님이 중앙정보부에 잡혀가서 전기고문을 10여 차례 당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고혈압에 반병신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직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새벽에 산에 올라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정희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제거하겠다.’ 그런데 ‘안녕히 가십시오’ ‘나도 곧 뒤따라갑니다’란 얘기가 나온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서 제 참선은 깨졌지만 박정희 前 대통령과의 악연은 끝났습니다. 참선 때문에 원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감옥에서 나와서 생명운동을 했습니다. 후배들이 배신자 변절자라고 해도 끄떡없었던 것은 그 체험 때문입니다.

불교가 왜 망막이요 동학은 왜 눈동자냐.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10년 동안 지리산에서 적어도 10만5000여명의 혁명군이 지리산에 주둔했습니다. 그때 무얼 먹고 살았을까요. 절입니다. 절이 혁명군을 먹여줬다고 판단합니다. 소문도 그렇습니다. 제 망막이 불교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동학이 무엇입니까. 개화 이전에 자주적으로 스스로 근대화하려는 움직임 중의 하나입니다. 그 배경에 불교가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민중들의 반역적인 활동과 불교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돈의 개혁 실패 이후 금강산과 지리산에 본거지를 틀고 활동했던 ‘당취’라는 비밀결사운동이 그 예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반역 사건 중 1565건에 스님이 관련돼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백성들이 배고프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불교가 관심을 보인 횟수인 것입니다.

동학은 생명의 종교입니다. 불교도 불살생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나 생태계 오염 등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답할 종교는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는 10년 전부터 온난화 때문에 대재앙이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콧방귀를 뀌다가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이상하게 변해가는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으로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9세기 동학계통의 사상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주적 보편진리로서의 불교입니다.

저는 최근 중도(中道)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남과 북, 진보와 보수, 좌와 우, 영남과 호남,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기업가와 노동조합,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이 극단적인 적대관계로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란 무엇입니까? 양극단도 아니고 가운데도 아닌 것입니다. 차원을 바꾸는 것, 즉 개혁입니다. 절집에 보면 삼성각이나 칠성각이 있는데 이것은 민족신앙입니다. 거대한 보편진리와 민족적인 생명사상이 결합된 것이 절집의 전통입니다. 제 결론은 이것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 · 사진=남동우 기자



질의응답

△한국의 민주주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능한가. 성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요 분배만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민중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다수와 소수, 유상층과 노동자층이 결합할 수 있는 길이 중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의 역할이 굉장히 커져야 합니다.

△사회운동 측면에서 불교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지금 법률은 르네상스 이후 인간과 인간사이의 계약이 토대로 됐습니다. 즉 인간중심입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인간과 자연사이의 생명의 계약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단 계약이라는 서양언어 대신 소통, 자비, 사랑으로 인간과 자연사이의 관계를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교가 이 모든 사회운동의 탄탄한 기반이 돼 줘야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피해가 우려됐는데 바람직한 민족주의란?

–민족을 폐기한다고 세계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족적이면서 탈민족적이어야 하고 지역적이면서 세계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즉 색이 공이어야 하고 공이 색이어야 한다는 거죠. 양쪽 다 끌어안아야지 민족주의만으로도 세계주의만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연출_안병길 / 기획_송묵 / 감독_가산

"선인들의 뜻을 기려 내고장 맑고, 향기롭게"

제3회 경기북부사암음악예술제

초 대 합 니 다

30여년 전부터 찬불가를 통해 불음홍포를 해오던 경기북부지역의 불교연합합창단들이 2005년 제1회를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2006년 2회는 '고양어울림극장'에서 '경기북부불교음악제'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2007년 '제3회 경기북부사암음악예술제'를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 주최로 남양주·구리시 불교사암연합회의 주관과 경기문화재단과 남양주시 등의 후원으로 경기북부 모든 불자와 도민이 동참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개최합니다.

본 음악예술제는 경기북부지역의 8개 연합합창단과 예술인들이 참가하여 불교전통문화와 현대음악예술이 어우러지는 이번 음악예술제에 초대하오니 참석하시여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1(2007)년 5월 11일

제3회 경기북부사암음악예술제 봉행위원장 철 안 / 집행위원장 금 담 합장

일시 _ 불기2551(2007)년 5월11일(금)
봉축법요식 pm6:00
음악예술제 pm7:30

장소 _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주최 _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

주관 _ 남양주·구리시불교사암연합회

제1부 봉축법요식 pm 6:00 ~ 7:00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야외공연장

제2부 음악예술제 pm 7:30 ~ 9:30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

제3부 행운권추첨 · 뒷풀이 pm 9:30 ~ 10:00

문 의 031-558-0108



남양주 백봉산 묘적사 팔각칠층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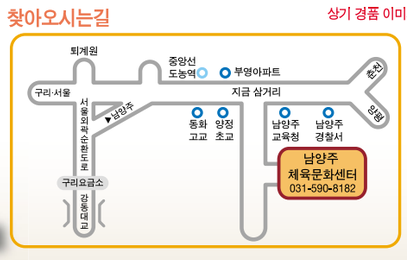
동참하시는 분들께 푸짐한 행운도 함께 나눠드립니다.

지펠 냉장고 홈바형684l 고급형 1대
김치냉장고 206l 고급형 1대 · 29인치 평면TV 1대
드럼세탁기10kg 1대 · 그릴 가스레인지 5대
한경희 스팀청소기 10대 · 전자레인지 5대
농협상품권 십만원권 6명 · 오만원권 10명
파티쿠커 30대



상기 경품 이미지는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길



지하철 _ 중앙선 도농역 2번 출구로 나와 건너편에서 체육문화센터 순환버스를 이용.
버 스 _ 7호선 상봉역 2번 출구로 나와 버스 30, 165, 166, 1330, 3330 등을 타고 남양주경찰서에서 하차하신후 바로 아래에 있는 농협앞에서 체육문화센터 순환버스가 매시간마다 25분, 45분 2회 출발.

· 40명이상 참석하고자 하시는 단체는 미리 연락 주시면 차량지원을 해드립니다.

협 찬 _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 / 동두천시 불교사암연합회 / 양주시 불교사암연합회 / 의정부시 불교사암연합회 / 파주시 불교사암연합회 / 포천시 불교사암연합회 / 가평군 불교사암연합회 / 양평군 불교사암연합회

후 원 _ 경기문화재단 남양주시 (사)천수천안 자원봉사단 현대불교신문 법보신문 불교TV BBS 불교방송 佛敎新聞 (사)삼보불교음악협회

행사문의 _ 남양주·구리시 불교사암연합회 전화 031-558-0108

광고책임/탑골미술대전자인연구소 T.02-381-9001

일주문



영광도서 초청특강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은 5월 19일 부산 영광도서에서 '선시(禪詩)와의 만남, 그 깨달음의 미학'을 주제로 부처님오신날 초청 강연을 한다.(051)816-9500



어린이 연꽃노래잔치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송묵 스님은 5월 13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9회 전국 어린이 연꽃노래잔치를 연다.(02)738-7860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부산 고심정사 주지 원택 스님은 5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전통다원 다해정에서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을 개최한다.(051)464-8450



사찰 관광상품화 워크숍

원주 구룡사 주지 원행 스님은 5월 12일 심검당에서 '사찰문화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주제로 제1차 워크숍을 개최한다.



경남도민안녕 기원 법회

경남불교협의회장 현응 스님(해인사 주지)은 경남공무원불자연합회와 함께 5월 12일 경남도청 도민홀에서 '도민안녕 기원 법회'를 봉행한다.



미륵종 경북종무원장에 임명

영천 광룡사 주지 혜광 스님은 4월 25일 미륵종 경북종무원장에 임명됐다. 스님은 "지역불교 발전과 종단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삼존불 점안, 백일 법문 봉행

대구 시방사 주지 석호 스님은 5월 15일부터 매일 저녁 8시 '백일 법문'을 봉행한다. 13일에는 삼존불 점안 법회도 봉행한다.(053)654-0408



김범수 교수 초청 월례특강

불교상담개발원장 정덕 스님은 5월 9일 조계사 교육관에서 김범수 교수를 초청해 '불교의 해탈과 기독교의 구원 그리고 상담' 월례특강을 개최한다.(02)737-7378

"복지 · 환경 등 교구발전에 최선"

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취임



5월 2일 봉행된 선운사 주지 진산식.

고창 선운사 제15대 주지 법만 스님의 진산식이 5월 2일 봉행됐다. 진산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종회의장 자승 스님, 백양사 유나 지선 스님,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 전라북도 김완주 도지사, 고창군 이강주 군수, 김춘진 국회의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지관 스님은 "이(理)와 사(事)를 구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법만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사부대중의 화합과 수행, 노후 복지와 환경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수련 법회 개최와 불교교양대학 설립 등 실천 가능한 일부터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만 스님은 1980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출가해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선운사 재무국장과 포교국장 등을 역임했다. 1995년 선운사 산내 암자인 참당암에 선원을 개설하고 선원장을 맡아오다 이번에 주지로 취임했다. 고창=고영배 기자

불교 · 심리치료 통합 모색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공동대표 전현수 원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리치료에 접목하기 위한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가 4월 28일 창립했다.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창립총회와 창립학술대회를 개최한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창립총회 준비위원회는, 이날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윤호균(가톨릭대 심리학과) 김재성(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조성호(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전현수(전현수신경정신과 · 사진) 서동혁(미래신경정신과) 박성현(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를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학회 창립을 이끌어 온 전현수 원장은 "불교의 현대적 해석과 적용에 관심을 가져 온 학계 전문가들이 오랜 모색 끝에 학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말한다.

전 원장은 "불교에 기반을 둔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 · 기법과 신행과 수행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자료도 꾸준히 발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전 원장은 "불교와 심리치료라는 두 분야가 만나 현대인들의 괴로움을 해결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할 뿐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회에는 불교학과 정신과 및 일반 의사, 심리학 전문가 8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석했으며, 현재 100여 명의 회원이 있다. 여수령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전국 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도륜 스님



박종순씨



이순자씨



김태형씨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는 제6회 전국 사회복지 자원봉사대회에서 불교계 복지시설과 종사자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5월 3일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자원봉사대회에서는 박종순(52, 강릉자비원) 이순자(62,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씨가 우수자원봉사자로, 김태형(32, 두송종합사회복지관 과장)씨가 자원봉사 인증요원으로,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륜)이 자원봉사 우수인증센터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외에도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과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은 우수인증센터로 인정돼 대회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봉사활동에 기여한 봉사자 및 관계자 43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이, 20명에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이 수여됐다. 여수령 기자

울산 청룡암 경로잔치 성황



울산 청룡암(주지 종현)이 올해 아홉 번째로 마련한 지역주민을 위한 경로잔치가 4월 28일 성대히 열렸다. 지역 오르신 400여 명과 함께 한 이날 잔치는 민요무용 가야금 공연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발봉사도 실시됐다. 서병수 울산지사장

"충성 · 효도 모두 다 불심"…관음종 논산훈련소서 수계식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4월 28일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에서 훈련병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관음종 수계법회에는 훈련병 3000여명이 동참했다.

종정 남천 스님은 계사로 나서 "일체가 모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이 불심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 형제간의 우애, 친구간의 의리 모두 불심이다"라고 설했다.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의 남아는 군무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곳 논산에서 수계를 받은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다"며 "마음은 붉은 것도, 노란 것도,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큰 것도 작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결연한 마음으로 군 생활에 임해주길 당부했다.

관음종은 군수계식을 매년 종단 행사로 정례화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녹번노인복지센터 기공식



사회복지법인 인덕원(대표이사 성운)은 4월 30일 녹번노인복지센터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에는 시공사 율림건축 윤기중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건립될 복지센터는 180평 규모로 요양원시설과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등으로 꾸며지며 10월 말 준공 예정이다.

불우이웃돕기 영산수륙대재



포항 지역 8개 종단 소속 사찰들의 모임인 (사)달마연합회(회장 청담)는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국운융창 영산수륙대재를 4월 21일 호미곶 해맞이 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봉행했다. 청담 스님은 "수륙간에 머물다 간 모든 고혼과 충의장졸 영가와 선망조상 영가의 왕생극락을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록유사 경로잔치 개최성료



강릉 록유사(주지 성인)는 4월 24일 강릉실내빙상경기장에서 강릉시노인회 소속 회원 1500여 명을 초청해 노인효도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록유사 신도회(회장 조봉환)가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성인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보덕학회 군법당에 노래방 기기 6대 보시



찬불가를 연주할 수 있는 노래방 기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법당에 보시됐다.

본사는 5월 4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의 추천등을 받아 찬불가 노래방기기 6대를 군법당과 군포교 사찰에 보시했다. 이번에 전달된 찬불가 노래방기기 6대는 (재) 보덕학회(이사장 류홍우 · 사진)에서 전액 지원했다.

보덕학회 류홍우 이사장은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군법사님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 · 석탑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조형물조각 · 옥불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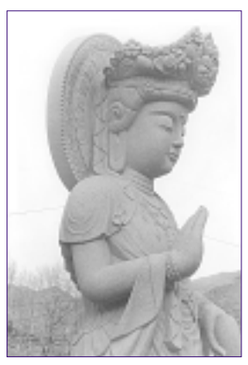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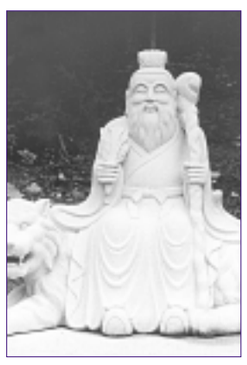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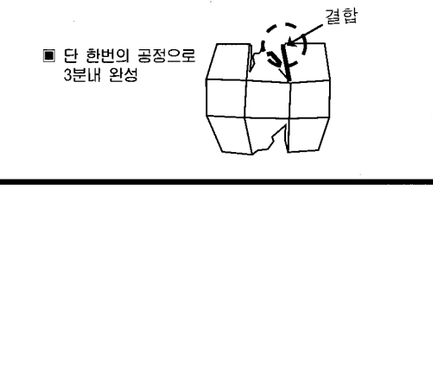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7474-5349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 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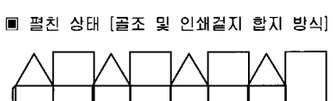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043)877-6464 팩스:(043)877-8239 핸드폰 : 016-552-9360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주)국민피앤텍

■농 협 415051-51-000057 예금주:(주)국민피앤텍

BBS 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꽃길 따라 걷기명상’ 현장

지난 4월 29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는 조계종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가 주최한 ‘전국수행투어-꽃길 따라 걷기명상’이 개최됐다. ‘상생·화합·평화’를 주제로 치러진 이번 행사에는 화창한 봄 날씨를 만끽하며 걷기명상을 체험하고자 하는 불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아빠(정우식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와 함께 참가한 정화영(6)양의 이야기로 재구성해봤다.



지구와 친구됐어요

‘상생 · 화합 · 평화’ 주제에 500여 불자 임진각서 걷기명상

안녕하세요? 저는 정화영이에요.

어제 엄마가 소풍간다고 말해줘서 너무 설렜어요. 늦잠 자야하는 일요일이지만 일찍 눈을 떴지 뭐에요. 깨끗이 씻고 예쁜 옷 입고, 가방에 간식이랑 비눗방울 놀이기구도 넣어서 집을 나섰어요. 조계사에서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넓은 잔디밭이 펼쳐진 공원이었어요. 참가신청서를 적고, 하얀 티셔츠도 받아서 입고, 행운권도 응모함에 넣었어요. ‘부처님, 제가 선물 받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다 모이자 108배를 한데요. 어린이 법회 때 3배는 많이 해 봤지만 108배는 아직 못해봤는데, 잘 할 수 있을까요? 엄마 옆에서 한 번, 두 번 절을 따라 했어요. 다리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절을 열다섯 번이나 했답니다. 저의 최고 기록이에요. 제 옆에서 절을 한 최정식(76) 할아버지는 “108배를 하고 나니 허리 아픈 것이 다 나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절을 하면 아픈 몸도 낫는 걸까요?

절을 마치고 나니 점심공양 시간이래요. 밥이랑 무 장아찌가 든 도시락이 오늘 점심식사에요. 혹시 ‘빈 그릇 운동’이라고 아세요? 밥이나 반찬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음식을 버리지 않아서 지구도 안 아프고 배고픈 사람들한테 음식도 나눠줄 수 있데요. 그래서 저도 밥이랑 반찬을 싹싹 다 먹었답니다.

깨끗해진 도시락을 분리수거 하고 나니 묘운 스님이 재미있는 게임을 가르쳐줬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했던 ‘도리도리’랑 ‘잼잼’도 하고, 옆에 있는 엄마랑 꼭 안아보기도 했어요. 참! 제가 기다리던 행운권 추첨도 했어요. 아깝게 저는 하나도 못 받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상품을 많이 받으셔서 기분은 좋았답니다.



마가 스님의 지도로 맨발로 걷기명상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사진 맨 위) 처음 만난 도반을 안아주며 서로 자비의 마음을 나누는 레크리에이션 모습.(위) ‘꽃길 따라 걷기 명상’은 상생과 화합, 평화를 기원하는 108배로 시작했다.(왼쪽) 부모님과 함께 걷기명상에 참가한 정화영양.(아래)

드디어 마가 스님이 걷기명상을 시작했어요. 빨강 파랑 노랑 색깔 깃발로 조를 나눠서 줄을 섰는데 전 아빠 뒤에 꼭 붙어있었어요. 그런데 걷기명상을 하려면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어야 한데요. 혹시 돌멩이가 발바닥을 찌르면 어쩌죠? 개미를 밟아버리면 어쩌죠? 맨발로 잔디를 밟아보니 간지럽기도 하고 조금 따갑긴 해도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스님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걸었어요. 뛰어다닐 땐 몰랐는데 바람이 머리카락을 간질이는 게 느껴져요. 쨍쨍 내려쬐는 햇살도 얼굴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마가 스님이 “걸을 때 발걸음에 정성을 다하라”고 하셨는데, 아빤 정말 그렇게 걷는 것 같아요. 발도 천천히 내밀고 잔디도 조심스럽게 밟아요. 저도 아빠를 따라 해봤는데, 좀 어려워요. 한 참을 걸어 온 것 같은데 돌아보니 한달음에 뛰어갈 정도 밖에 안 왔어요.

한 시간 보다 조금 모자라게 걷기명상을 하고 다시 신발을 신었어요. 최신식(80) 할아버지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맨발로 걸어 봤다”고 하세요. 맨발로 걸으면 자연이랑 더 친해지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오늘 자연이랑 지구랑 좀 더 친해진 것 같아요. 다음엔 여러분들도 같이 걷기명상해요. 꼭이요!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지역 신도회 역량 강화 계기…접근성 등 문제점 지적

조계종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가 주최한 ‘전국수행투어 꽃길 따라 걷기명상’은 4월 22일 마곡사, 28일 부산 해운대 동백섬공원, 29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5월 5일 평창 월정사에서 각각 개최됐다. 행사는 각 지역 신도회와 사찰이 주관해 치렀다는 점에서 지역 신도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지적됐다. 임진각 행사 참가자는 500여 명 정도. 같은 날 열린 서울시 축제 하이서울페스티벌의 ‘한강 사랑 시민 걷기 대회’에 1만여 명의 시민이 참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이 서울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에서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부산 동백섬공원에서 열린 걷기명상의 경우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일반 관광객들도 행사에 참가했던 점에 미뤄보면, 앞으로 한강시민공원이나 도심 공원에서 개최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장소의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주요 사찰이나 단체에서 신청한 사람들 외에 일반 참가자나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적었던 점도 아쉽다. 이상근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은 “내년에도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수행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걷기명상은 5월 19일, 순환도로건설과 송전철탑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야산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68> 가죽 주머니에 똥이 담기고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그럴싸한 옷차림에 감추어진 몸뚱이를 보아라." 하시면서, 우리 몸은 "피고름덩어리, 뼛조각으로 얽어놓은 질병의 자루, 부질없는 쾌락을 좇는 번뇌 주머니, 허약하기 짝이 없는 것, 오래 가지도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중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출가한 수행자들조차 부질없이 흘어질 이 몸뚱이에 대한 집착을 떨치지 못하여 짓는 업들이 끝이 없다. <선가귀감> 68장에서 말한다.

咄哉 此身 九孔常流 百千癰疽 一片薄皮. 又云 革囊盛糞 膿血之聚 臭穢可鄙 無貪惜之 何況百年將養 一息背恩.

아! 이 몸이란 언제나 아홉 구멍에서 더러운 것이 흘러나오고 온갖 피고름덩어리들을 한 조각 얄팍한 살가죽으로 싸 놓은 것이구나. 또 가죽 주머니에 똥을 채워 놓은 피고름 덩어리라 냄새나고 더러워서 탐하거나 아까워할 게 없다고 하는데, 하물며 백 년을 길러준들 숨이 끊어지면 그 은혜를 등지고 말 것이니 여기에 무엇을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아홉 구멍은 눈구멍 두 개, 콧구멍 두 개, 귓구멍 두 개, 입 하나, 똥과 오줌을 누는 구멍 두 개를 모두 합하여 말한 것이다. 서산 스님은 이 단락을 풀이하여 말한다.

上來諸業 皆由此身 發聲叱咄 深有警也. 此身 諸愛根本 了之虛妄則 諸愛自除 如其耽着則 起無量過患故 於此特明 以開修道之眼也.

이 장 앞에서 말해 온 모든 업들이 다 이 몸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니, 꾸짖어 탄식하는 듯한 "아!" 하는 소리는 이것에 대하여 깊은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뜻이 있다. 이 몸이 모든 애욕의 근본이니 그 허망함을 알면 온갖 애욕이 저절로 사라지고, 이 몸을 너무 좋아하여 집착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허물이 일어나므로, 여기에 그 사실을 특별히 밝혀 도를 닦는 사람들의 안목을 열어 주려는 것이다.

우리는 어머니의 태속에 있을 때에는 깨끗하지 못한 부모의 정혈(精血)이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아홉 구멍으로 늘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것들이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이 몸 자체가 피고름과 똥오줌 등의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싸가지고 다니는 가죽주머니나 마찬가지이다. 숨 한번 못 쉬면 피는 곧 엉기어 피고름으로 변하고, 우리 몸은 매우 독한 냄새를 풍기는 송장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우리의 몸뚱이는 더럽기 짝이 없는 '똥 더미'
깨끗하지 못한 몸으로 경 읽는다면 죄 짓는 것

흙, 물, 불, 바람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이 몸뚱이에는 주인이 없으므로 하나같이 네 명의 원수가 모여 있다고 말한다. 흙, 물, 불, 바람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이 몸뚱어리는 숨이 끊어지면 저마다 흩어져 한평생 길러준 은혜를 저버리는 것들이므로 하나같이 네 마리 뱀을 기른다고 말한다. 내가 그 허망함을 모르므로 다른 사람의 일로 성을 내기도 하고 잘난 체를 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 허망함을 깨닫지 못하므로 나 때문에 화를 내기도 내고 거만을 떨기도 한다. 이는 마치 두 귀신이 송장 하나를 가운데 놓고 싸우는 것과 같다. 쓸모없는 하나의 송장이나 마찬가지인 그 바탕을 우리는 물거품처럼 곧 사라질 '거품 덩어리[泡聚]', 깨어나면 모든 것이 사라질 '한바탕 꿈과 같은 것들[夢聚]', 늙고 병들면서 늘 고통을 동반하고 살아야만 하는 '괴로움 덩어리[苦聚]', 뱃속에 똥을 가득 담고 살아가는 '똥 더미[糞聚]'라고도 하니, 그 몸은 곧 썩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너무나도 더럽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얼굴에 있는 일곱 구멍에서는 눈물, 콧물, 귀지, 침과 같은 너저분한 것들이 늘 넘쳐흐르고, 허리 아래 두 구멍에서는 언제나 똥오줌이 흘러나오므로, 모름지기 수행자란 언제나 밤낮으로 그 몸을 깨끗이 하고 대중 속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 몸가짐이 거칠어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의 곁에는 선신(善神)들이 있지 못하고 반드시 떠나가기 때문이다.

<과거현재인과경(過去現在因果經)>에서 이르기를 "더러운 손으로 경전을 만지거나 부처님 앞에서 침을 뱉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음 생에 뒷간 구더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고, <문수사리문경(文殊舍利問經)>에서 이르기를 "똥오줌을 눌 때 돌이나 나무처럼 조심스럽게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내지 말고 벽에 낙서도 말며 함부로 가래를 뱉지도 말면서 뒷간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며, 또 "뒷간에 다녀오면서 깨끗이 몸을 씻지 않는 사람은 좌선하는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며 법당에 올라가서도 안 되느니라"고 하였다.

율장(律藏)에서 이르기를 "처음 뒷간에 들어갈 때 먼저 손가락을 문에 가볍게 세 번을 튕겨서 뒷간에 있는 귀신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그리고 볼 일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신통력이 있는 주문을 차례차례 일곱 번씩 외워야 한다.

처음 외우는 것은 뒷간에 들어갈 때의 주문이니 입측주(入厠呪)로서 '옴 하로다야 사바하'라고 한다. 다음에 외우는 것은 뒷물 할 때의 주문인 세정주(洗淨呪)로서 '옴 하나마리데 사바하'라고 하니, 이 주문을 외우면서 오른손으로 물병을 잡고 왼손으로 뒷물을 할 때 깨끗한 물을 조금씩 천천히 따르면서 착실하게 깨끗이 뒷물을 해야 한다. 다음에 외우는 것은 뒷물하면서 더러워진 손을 씻어내는 주문이니 세수주(洗手呪)로서 '옴 주가라야 사바하'라고 한다. 다음에 외우는 것은 몸에서 더러움을 잘 제거했다는 주문이니 거예주(去穢呪)로서 '옴 시리예바혜 사바하'라고 한다. 다음에 외우는 것은 몸을 깨끗이 하는 주문이니 정신주(淨身呪)로서 '옴 바아라 놔가다 사바하'라고 한다.

이 다섯 가지 신통력이 있는 주문은 큰 위엄을 갖게 하는 덕성(德性)이 있어서 온갖 나쁜 귀신들이 들으면 반드시 공경하는 마음을 낸다. 여법하게 이 주문을 외워 지니지 않는다면 일곱 개나 되는 갠지스강물을 다 사용하여 아무리 오래 씻을지라도 몸이 깨끗해 질 수 없다"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뒷물하는 물은 맑은 물을 써야하고 손을 씻을 때에는 반드시 비누를 사용해야 한다. 또 상황에 따라 톱밥이나 잿물도 비누 대용으로 쓸 수 있다. 만약 비누로 손을 씻지 않으면 더러운 물기가 손등에 제거되지 않았으므로 이런 손으로 예불하고 경전을 읽는다면 반드시 죄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변상도(變相圖)

불교 경전을 살펴보다 보면 '변상도'라는 말이 나온다. 변상도가 무엇일까.

변상도(變相圖)는 넓게는 벽화나 벽에 거는 탱화(幀畵) 등을 포함한 불교회화 전반뿐 아니라 설화적 내용이 주류를 이루는 고대 인도의 부조(浮彫)까지 의미한다. 좁게는 경전의 첫머리 혹은 권(卷) 머리를 도해(圖解)하는 사경화(寫經畵)와 판경화(版經畵)를 통상 변상도라고 지칭한다. 변상(變相)은 진리의 내용(眞相)을 변화시켜 나타낸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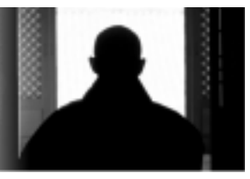
변상도의 기원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담은 불전도, 전생을 묘사한 본생도에서 비롯됐다. 고대 인도의 여러 불탑 등에 새겨진 부조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처음에는 석가모니와 관계된 설화내용을 바탕으로 부조 또는 그림으로 표현한 데서 변상도가 시작됐으나, 이후 다양한 경전이 성립되면서 그 내용과 심오한 교리를 함축해 한 폭의 그림으로 설명한 변상도가 유행하게 됐다.

<법화경> 계통의 변상도로 '묘법연화경변상도(妙法蓮華經變相圖)'가 있고, <화엄경> 계통에는 '대방광불화엄경변상도(大方廣佛華嚴經變相圖)'가, <정토3부경> 계통에는 '관무량수경변상도(觀無量壽經變相圖)'가 있다. 이외에도 '범망보살계경변상도(梵網菩薩戒經變相圖)' '금강경변상도(金剛經變相圖)' '현우경변상도(賢愚經變相圖)' 등이 있다.

한국 현존 최초의 변상도는 신라 때 만들어진 '대방광불화엄경변상도'(8세기 중엽)이다. 강지연 기자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10>



상담 회기

상담을 시작하면 초기에 구조화를 한다.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상담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려 준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밝히고, 상담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을지 그리고 어떠한 정도로 달성할 것인지를 협의한다. 그에 따라 상담 회기를 잡고,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함께 논의한다.

상담은 보통 50분에서 1시간을 한 회기로 잡는다. 그리고 상담 회기를 얼마만큼 길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접근 이론과 기법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한 회기 50분 정도, 접근 기법 등 따라 천차만별
부처님은 인간의 근본을 바꾸는 해탈로 이끌어

프로이트가 창시한 정신분석의 경우, 초기에는 거의 매일 한 번씩 십년, 이십년씩 진행된 사례가 많았다. 이후로도 정신분석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두세 차례 이상, 5-6년 이상 계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신분석은 단지 어떤 문제 증상의 치료나 개선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격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치료에 많은 기간이 걸리다 보니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분석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문제거니와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걸린다고 해서 치료가 완전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다.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정신 분석을 받은 때문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세월이 약이 되어 저절로 치유된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자 정신치료에도 단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많이 생겨났다. 기간이 오래 걸려야만 치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50회에서 100회 정도의 단기 치료로도 효과를 본 연구 사례를 많이 제시했다.

심리 상담으로 넘어오면 정신역동치료에서 단기로 보는 50여 회의 치료도 장기치료로 본다. 인지치료가 널리 보급되면서는 그보다 짧은 20회에서 30회의 상담으로도 높은 효과가 나타남을 증명했고, 현실치료에서는 10여 회만으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해결중심 치료에서는 아예 매 회기 상담을 마지막 상담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한다.

초기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의 교화 사례를 살펴보면, 한 내담자를 상대로 여러 회기를 진행한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상담회기는 1회로 마무리되었다. 그때그때 사례에 따라 상담이 마무리되거나 단기로 진행되는 것은 재가자 또는 외도를 교화할 때이고, 신도가 되거나 제자가 되어 교단에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진다. 즉 부처님이 교단을 이끌며 제자들의 수행을 돕는 지속적인 장기 상담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상담에서는 단기적으로 문제 증상을 해결하고 정신분석에서는 수십년의 분석을 통해 성격 구조의 변화를 도모하지만, 부처님은 위없는 가르침을 통해 인간의 근본을 바꾸는 해탈로 이끌었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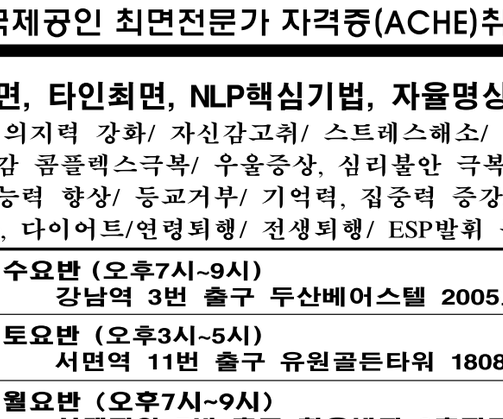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최면
삶을 바꾸는 경이로운 최면의세계!!
나를 지배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마음
최면은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수단이다.



미국 최면전문대학 교수 임재형 박사
- 커버넌트대학 상담학 박사
- 국제 임상최면 치료사(ICHT)
-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
- 한국최면지도사 협회 회장
-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 일본 최면의학 심리학회 회원
- KBS, MBC, SBS iTV, TJB등 방송에 다수출연
  인천교대, 청주대, 충남대학교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연수원, 기업체, 군부대 등에서 최면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총론 등

인간의 잠재의식 직접 조절
강력한 개선효과!!
자기 개선은 물론
타인도 도울 수 있다.

일반인, 주부, 직장인, 최면에 관심있는 모든분
대체의학, 의료분야 종사자 등

"21세기 정신문화 사업으로 각광"
전국 심리상담센터 개설!!

"미국최면전문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국제공인 최면전문가 자격증(ACHE)취득!!

▶교육내용 : 자기최면, 타인최면, NLP핵심기법, 자율명상훈련
대인공포/ 불면해소/ 의지력 강화/ 자신감고취/ 스트레스해소/
불쾌감정 소거/ 열등감 콤플렉스극복/ 우울증상, 심리불안 극복/
시험공포 해소/ 학습능력 향상/ 등교거부/ 기억력, 집중력 증강/
성격개선/ 금연, 금주, 다이어트/연령퇴행/ 전생퇴행/ ESP발휘 등

서울교육센터	5월 16일개강	수요반 (오후7시~9시) 강남역 3번 출구 두산베어스텔 2005호
부산교육센터	5월 19일개강	토요반 (오후3시~5시) 서면역 11번 출구 유원골든타워 1808호
대전교육센터	5월 21일개강	월요반 (오후7시~9시) 서대전역 7번 출구 청운빌딩 2층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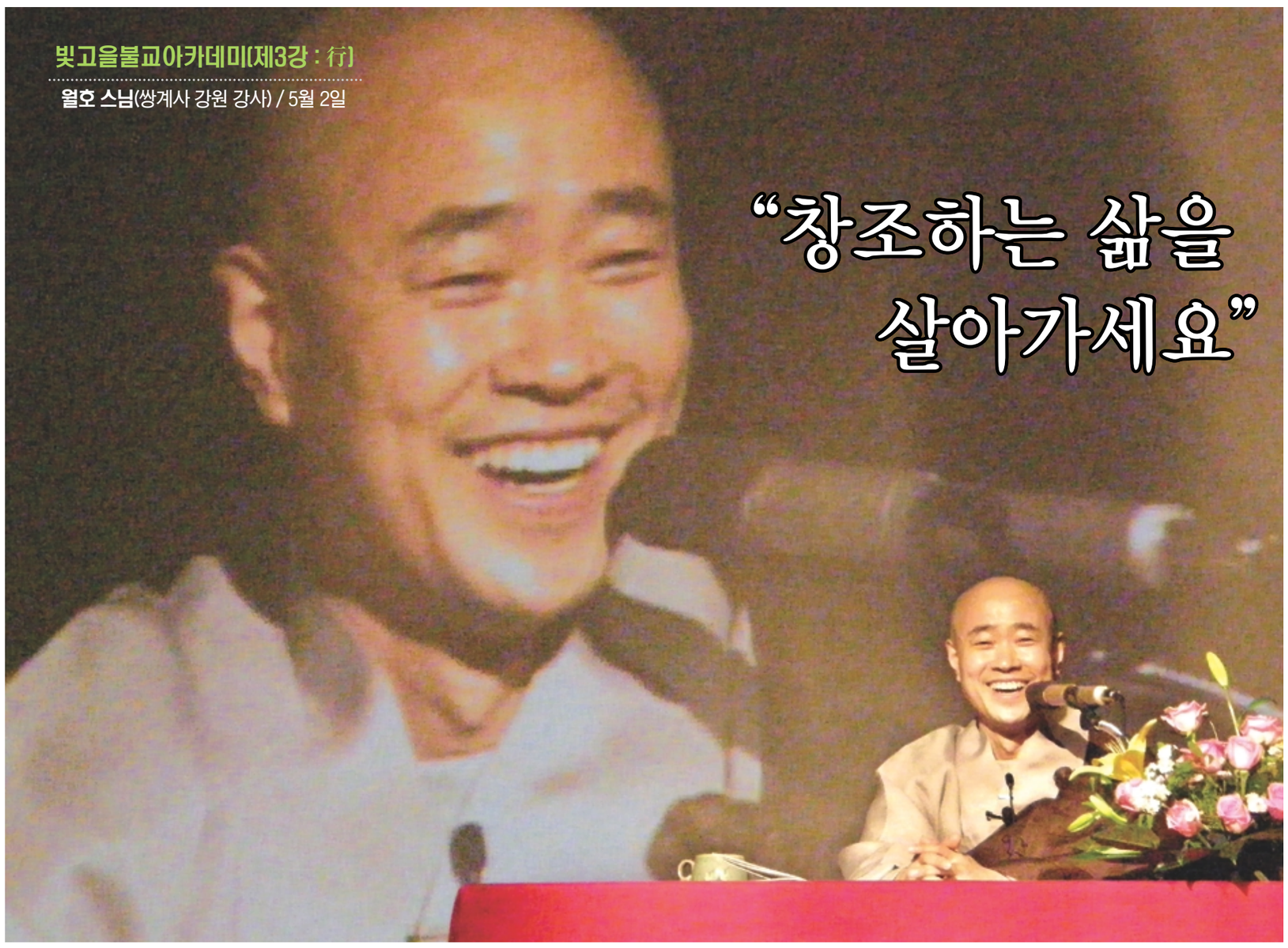
▶기 간 : 3개월 과정 (매주 1회 총 12회)
▶참가비 : 95만원 (성적 우수자 최면대학 장학생으로 추천)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자격증 취득(민간자격)
▶최면전문대학 졸업 후 국제공인최면치료의사 자격증 취득
▶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 可

미국 최면전문대학 사이버 한국교육센터 상담전화 1544~2741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바람)

빛고을불교아카데미(제3강 : 行)

월호 스님(쌍계사 강원 강사) / 5월 2일

"창조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멀리 와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복한 삶으로 가는 네 가지 디딤돌–신해행증(信解行證) 중에서 행(行)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맡았습니다. 마침 쌍계사 승가대학에서 사교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과목이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입니다. <대승기신론>은 신해행증의 구조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대승기신론>의 핵심을 말씀해 드리면, 일심(一心) 이문(二門) 삼대(三大) 사신(四信) 오행(五行) 육자(六字)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대승기신론>의 핵심사상입니다.

처음 일심은 한마음, 다음 이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음에 문이 두 개 있다는 뜻인데 즉 하나는 심진여문(心眞如文)이고 하나는 심생멸문(心生滅門)입니다. 그다음에 삼대라고 하는 것은 체대(體大) 상대(相大) 용대(用大)입니다. 체상용(體相用) 해서 이문(二門)에서 삼대(三大)가 벌어집니다.

삼대라는 것을 어렵게 이야기 하면 체상용인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몸, 마음, 본마음 이것을 삼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마음자리 즉 성품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체대(體大)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한 생각 일으킨 자리가 상대(相大)입니다. 그 다음에 몸으로 나툰 자리가 용대(用大)입니다.

부처님 몸이 세 개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법신불(法身佛), 둘째가 보신불(報身佛), 셋째가 화신불(化身佛)입니다. 우리몸도 세 개가 있습니다. 법신불 자리가 바로 체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마음' '참 나' 자리입니다. 그래서 법신불 자리는 모양으로 볼 수 없고 소리로 들을 수 없다고 하는데 바로 <금강경>에서 '약이색견아(若以色見我) 이음성구아(以音聲求我) 시인행사도(是人行邪道) 불능견여래(不能見如來), 만약 몸뚱이로 나를 보고자 하거나 음성으로 구하고자 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으로 여래를 볼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보신불 자리는 한 생각 일으킨 자리라고 합니다. 무슨 생각을 일으켰어요. 중생제도의 한 생각을 일으킨 자리가 바로 보신불 자리입니다. 아미타부처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분들이 한 생각을 일으키신 분이죠. 또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생각을 일으킨 자리, 그 자리를 상대(相大)라고 합니다. 화신불 자리는 몸뚱이로 나투신 자리죠. 바로 석가모니부처님을 말합니다. 조선시대 오대산에서 세조를 낫게 한 문수보살님도 몸으로 나투신 분이기 때문에 화신불입니다. 대(大)는 '크다' 라는 의미보다는 요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디서 나오느냐. 한마음에서 나옵니다. 중생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여문은 법신불 자리고, 생멸문에서 보신불, 화신불이 나옵니다. 에너지로 비유하면 본마음은 순수에너지, 마음은 파동에너지, 몸은 뭉친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기신론의 사상인데 신해행증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첫 번째 믿음은 사신(四信)과 연결이 됩니다. 네 가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인데 첫째 불(佛), 둘째 법(法), 셋째 승(僧) 삼보에 대한 믿음과 넷째 진여(眞如)에 대한 믿음입니다. 본마음 참나 자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불교에서는 귀의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귀의한다' 라는 말은 돌아가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돌아가 의지를 하느냐. 다름 아닌 진여자리로 돌아가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삼귀의에 나오는 귀의불, 귀의법, 귀의승을 하는데 진여자리로 돌아가 삼보에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불성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귀의한다는 뜻이며, 이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를 의지처와 귀의처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보시는 주는 연습을 하는 것

이제 오행(五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의 본론입니다. 네 가지 믿음을 가지고 나서 다섯 가지 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오행이라 하냐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관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대승보살이 행해야 할 육바라밀 행을 뜻합니다. 대승불교의 육바라밀을 <대승기신론>에서는 오행으로 정리를 했는데 <대승기신론>이 성립되었을 당시 육바라밀이라는 개념이 아직 성립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행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내용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행의 첫 번째가 보시입니다. 여러분은 부처님을 왜 좋아합니까? 복을 주니까 좋아하죠.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에 가면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빼앗아 가면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보시는 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보시행이 육바라밀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하는데 그 중 첫 번째가 '일체중생을 제도하리라 마음 먹어라' 마음가짐을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머무는바 없이 베풀어라' 라고 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베풀어라' 이 말이 보시를 행하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만 행하면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정말로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일체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마음을 먹고 머무는 바 없이 베풀면 그것이 바로 보살행이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금강경>의 핵심도 이것입니다.



빛고을불교아카데미 자원봉사자들.

'하겠습니다' 라고 발원형 기도 하세요

저는 금강경독송회라는 모임에서 매일 금강경 7독씩을 합니다. <금강경>을 독송할 때 '일체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세웠습니다. 서원을 세우지 않으면 구걸하게 됩니다. '부자 되게 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 주세요', '대학에 합격하게 해 주세요', '사업번창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제가 뭐라 이름을 붙였냐하면 '구걸형 기도'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른 종교는 구걸형 기도 밖에 없어요. 종이나 노예는 구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를 바로 배운 사람들은 발원형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구걸하는 마음은 비굴한 마음이고, 주는 마음은 떳떳한 마음입니다. 구걸하는 마음은 눈치를 봅니다. 여기 계신 불자님들은 절에 가셔서 기도할 때 비굴하게 무엇을 해 달라고 하지 말고 부처님에게 탐진치 삼독을 드리십시오.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맡기십시오. 이렇게 하면 주는 마음이 됩니다. 발원형 기도는 끝이 '하겠습니다' 라고 끝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행복하게 먹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마음을 넉넉하게 먹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됩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주체가 되면 다 됩니다. 내 인생을 부처님 마음대로 행복하게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지계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인데 불필요한 살생을 피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음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계를 지키는 삶입니다.

사냥꾼에게 노루가 쫓기고 있는데 사냥꾼이 노루가 간 곳을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는 거짓말을 해야겠죠. 살생중죄를 피하기 위해서 망어중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차법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중도사상입니다.

세 번째가 인욕인데 그대로 풀면 욕됨을 참는다는 뜻입니다. 욕됨을 참는 것은 아상을 없애는 가장 좋은 공부입니다. 아상이 얼마나 닦였나 시험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누명을 씌우는 거에요. 그러면 아상이 없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덤덤하게 넘어가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리라'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음공부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억울한 소리를 하는지에 대한 반응을 보면 됩니다. 사람마다 도장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진흙도장, 둘째 물도장, 셋째 허공도장을 가지고 있어요. 진흙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국이 깊이 새겨지죠. 다음 물에다 도장을 찍으면 찍는 순간 출렁하고 다시 원상태로 되죠. 허공에다 도장을 찍으면 찍히지 않습니다. 마음이 허공같은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표가 안 납니다. 물과 같은 사람은 잠시 주춤하지만 금방 다시 그대로 돌아갑니다. 진흙도장은 세월이 가도 남아 있죠. 마음이 허공같은 사람은 표가 안나죠. 무슨 도장인지 각자 생각해 보세요.

정진, 매일 꾸준히 해야 최고 힘 얻어

다음이 정진인데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루에 삼십분 씩 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 내내 놀다가 하루 날 잡아서 철야정진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한데 물방울이 돌을 뚫죠. 계속 같은 자리에 수없이 떨어지니까 바위를 뚫습니다. 수행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요령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지관입니다. 기신론에서는 지관이라고 하는데 육바라밀에서는 선정이라고 하고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지혜가 생겨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행(五行) 즉, 보시에서 시작해서 지혜로 마무리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하반야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육조단경>에 보면 '마하반야바라밀을 염하라' 라고 나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챙기는 것이 염하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마하반야바라밀하고 다른 생각하면 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념신행(口念身行, 입으로 염하고 몸은 행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염하는 소리를 듣는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내가 하는 소리를 내가 듣는다. 이러면 삼매가 빨리 옵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아 내가 잡념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다시 듣는데 열중합니다. 관세음보살, 마하반야바라밀을 하든 자기가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잡념이 사라집니다. 듣는데 열중하면 삼매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능엄경>에 나오는 이근원통(耳根圓通)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은 행불송(行佛頌)을 합송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창조합니다. 지금 이 모습도 나의 작품일 뿐 부처의 행 그것은 머무르지 않는 삶이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더불어서 행동하는 삶입니다.'

정리=조영훈(빛고을불교아카데미 운영위원)

희담석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상품설명
가격 : 38,5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낱개) 1만원
※희담석 염주는 다량구매시 특별할인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 지압 신발 패드
희담석지압 신발 패드는 희담석의 뛰어난 에너지가 걸으실때 언제 어디서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입니다.
특히 외근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걸어야하는 직장인들,선방스님, 발이 아파 많이 못 걷는 분, 자주 등반하시는 불자님, 군인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4,000원 → 20,000원
(출시기념 할인판매)

사용법 및 주의사항
1. 신발크기에 맞게 가위로 잘라 사용하십시오.
2. 세탁은 부드러운 솔로 닦은다음 건조시켜서 사용 하십시오.
3. 절대로 수세미로 글거나 문지르지 마십시오.
4. 신발안의 못, 자갈등의 이물질로 인해 패드에 손상이 있을 시 제품의 교환이 불가능 하오니 주의하십시오.

신제품 금강 오색 오방氣 염주
5색기는 동, 서, 남, 북, 중앙의 5방을 표시하기도 하고 청, 황, 적, 백, 흑의 5색인종이 하나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원래 이 기는 1882년 영국군인 올콧트대위가 창안한 것인데 1950년 W.F.B(세계불교도 우의회)에서 만국공동의 불교기로 채택하면서 청색은 귀의, 황색은 지혜, 적색은 자비, 백색은 청정, 등색은 정열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자고 결의하였다.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금강 오색 오방氣 차걸이용 염주는 불자님의 무사고 안전운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점안 기도하여 출시되었다.



가격 : 8,000원
(차걸이로 사용하세요!!)
안전제일 무사고운전
* * * *
출시기념 : 3개 이상 구매시 1개 더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추천하는 불교문화상품으로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세요~~
■ 주문전화 02)2004-8215 [국민은행] 023-25-0007-617 (주)에이치비엠씨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용성 스님(1)

고봉 스님, 그대로가 화장세계입니다
용성 스님, 순전히 밥도둑이 아닌가!

용성(龍城, 1864~1940) 스님이 하루는 제자 고봉에게 물었다.

"고봉아, 화과원(華果院: 용성 스님이 함양 백운산에 세운 농장)의 도리원(桃梨園: 복숭아밭) 소식을 한 마디 일러라."

"화과원에 도리가 만발하니, 그대로가 화장세계(華藏世界)입니다."

용성 스님이 그 말을 듣고, "네, 이 놈. 뭐가 어쩌고, 어째! 이놈이 공부 깨나 해 안목이 열렸는가 했더니만, 순전히 밥이나 축내는 밥도둑 놈이 아닌가" 하고 몽둥이로 마구 때렸다.



고봉이 생각하기를, '내가 혹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를 했나?' 하고 스스로에 대해 의심을 했다. 그리고는 곧 스승께 여쭈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화과원에 도리가 만발하니, 그대로 화장세계로구나."

화과원의 도리원 소식, 즉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 스승과 제자가 한 말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같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 차이점이 있을까. 불법에 대한 안목(眼目)을 갖춰야만 똑같은 말에서도 천지현격(天地懸隔)의 차이점을 훤하게 볼 수 있다.

이 문답에서 제자는 이미 나름의 안목을 갖춘 공부단계였지만, 스승이 던진 낚시밥을 냉큼 물고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바둥대는 가련한 물고기 신세가 되고 말았다. 제자는 바로 대답을 했지만, 스승의 시험에 걸려 자신의 견처(見處)에 대해 순간적으로 확신을 잃은 것이다. 이는 고봉 스님의 당시 경계가 체험적 증오(證悟)가 아니라, 이치로만 안 해오(解悟)에 머물고 있었음을 뜻한다. 물론 용성 스님의 대자대비(大慈大悲)한 몽둥이질로 고봉 스님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깨달은 경지가 역대 조사의 견처와 같은지를 점검하는 말에 '신득급(信得及)'이란 말이 있다. 대혜 선사 어록에 나오는 이 말은 증오와 해오를 가름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신(信)'이란 확신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며, '득(得)'은 그 경지까지 다 체험했느냐는 것이다.

이치로 아는 것은 '해오'
'체험적 증오' 얻을 것 강조

이러한 신득급을 확인하는 문답은 '병정동자래구화(丙丁童子來求火)'라는 유명한 공안에서도 보인다.

하루는 법안문익(885~958) 선사가 그의 문하에서 감원(監院) 소임을 보면서도 한 번도 법문을 청하지 않는 보은현칙에게 물었다.

"나에게 묻지 않는 이유라도 있느냐?"

"전 이미 청림 화상 문하에서 한 소식을 얻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말해보아라."

"제가 '무엇이 부처입니까?'라고 물었더니, 청림 화상이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러 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 잘못 알았을까 두렵구나. 설명해 보거라."

"병정(丙丁)은 (음양5행에서) 불(火)에 해당하니 '불이 불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부처가 부처를 구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너는 잘못 알았다."

현칙이 수긍하지 않고 일어나 나갔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개운치가 않아서, 다시 돌아와 법안 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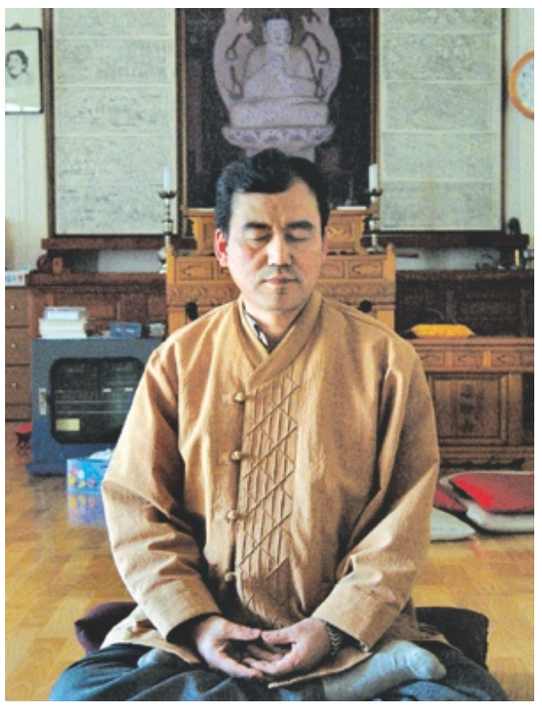
"병정 동자가 불을 구하는구나."

이 말에 현칙은 크게 깨달았다.

김성우 객원기자

"간화선·위빠사나, 정·혜 닦는 점에서 같은 것"

居士禪의 리더들 ③ 불원 김열권 거사



불원 김열권 거사는 원효 스님의 대승관법을 복원하겠다는 발원으로 여러 수행법을 섭렵하고 있다.

경봉·성철·향곡·송담 스님께 지도 받아
간화선·여래선 장점 회통한 '대승관법' 수행
팔공산서 정진하며 원효의 수행법 복원 발원

푸르른 녹음이 짙어가던 4월 26일, 대구 동화사 말사의 한 암자. 봄날의 햇빛이 따사롭던 이 날, 대나무 숲에 둘러싸인 산사는 병풍처럼 펼쳐진 팔공산을 배경으로 소담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난해 상주 갑장산 토굴에서 만난 이후 4개월 만에 재회한 불원 김열권(52) 거사는 선방에서 홀로 좌선삼매에 들어 있었다.

선방에 붙어있는 지대방에서 음미하는 한 잔의 보이차는 그야말로 선다일미(禪茶一味)의 세계로 이끈다. 차를 마시며 나누는 법담은 언제나 작은 기쁨으로 충만한 느낌이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요가연수원, 정신세계원 등에서 활발하게 관법을 지도하던 그가 정진에만 매진하고 있는 까닭은 의외로 간단했다.

"이제는 수행 지도자들이 많아졌잖아요. 저도 제 수행을 갈무리하고 싶고요."

불원 거사는 1979년 선(禪)에 입문해 경봉, 성철, 향곡, 송담 스님 등 당대 선사들의 지도를 받으며 시중과 산사 토굴에서 10여 년 간 참선한 선객이었다. 간화선을 통해 힘을 얻은 그는 미진한 수행을 보충하기 위해 1990년 미얀마 마하시 위빠사나 선원으로 출가,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미얀마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의 선원에서 관법 수행을 했고, 1992년 일본 시모노세키 모지 선원에서 정진했으며, 갑장사 조실 세웅 스님의 지도하에 대승관법을 닦기도 했다. 수행경력만 해도 27년이나 된다.

불원 거사가 젊은 시절, 간화선 수행을 하게 된 동기는 소박했다. 사업에 성공해 유마 거사처럼 남을 돕겠다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성철 큰스님을 찾아뵙고 재벌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스님은 '삼베 서근(麻三斤)'이라는 화두를 주면서, "매일 108배 참회와 보시행을 하면 소원이 성취 된다"고 했다.

이후, 인천 용화사 송담 스님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화두 참구의 요령을 체득한 그는 기아산업 무역부에 근무하던 시절, 하루 평균 18시간 화두를 붙들고 있을 만큼 애를 썼다. 화두가 잡히자 꿈에서도 화두를 놓치지 않을 만큼 용맹정진했다. 직장생활을 하며 5년, 직장을 버리고 산 속에서 5년, 꼬박 10년간 계속해서 화두를 들었다.

간화선으로 힘을 얻은 후, 불원 거사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미얀마나 태국의 관법(위빠사나)을 두루 공부했다. 구도여행은 원효 스님의 대승관법을 복원하겠다는 발원 때문이었다.

"저는 한국 수행법의 원형을 원효사상에서 찾습니다. 남방 관법이 아비달마의 아공·법유(我空法有)와 업감연기에 근거해 일신의 열반에 머무는데 반해, 원효 스님의 대승관법은 일심의 진여에 의지해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금강심지(金剛心地)에 머물면서 동체대비의 보살행을 지향합니다. 한국적인 관법을 복원해 간화선 수행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위빠사나와 간화선의 연결고리인 동시에 양자의 회통을 가능하게 하는 대승관법에 더욱 궁금증이 인다.

"원효 스님은 7세기 대승불교권에서 가장 완벽하게 붓다의 관법을 정립한 분입니다. 중국, 일본은 대승 경전에만 의존하므로 <아함경>의 핵심 수행법인 12연기의 정밀성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원효 스님은 당시에 이미 <금강삼매경론>의 무상관(無常觀: 12연기관)과 무생관(無生觀: 오온·유식관)으로 12연기와 5온 관찰법을 전승했습니다. 스님은 용수와 천태지자 스님의 삼관(三觀: 假觀, 空觀, 中觀) 수행도 포함하면서 대승관법의 체계를 세웠지요."

북방의 간화선과 남방 위빠사나를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지만, 불원 거사는 정(定, 止, 사마타)과 혜(慧, 觀,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본다.

"남방에서는 무아(無我) 위주의 현상관(隨觀) 중심이고 북방에서는 공을 중심으로 하는 불성의 본성관(直觀) 위주입니다. 남방에서는 오온 구성 요소의 변화 속에서 무상, 고, 무아의 현상을 관찰했고, 북방에서는 오온과 열반을 하나로 보아 본성을 직관(회광반조)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현상과 본체는 불꽃과 빛처럼 둘이면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 중 하나만 철저히 꿰뚫어 보면, 본래 있는 참 나인 열반은 발견되는 것입니다."

불원 거사는 화두로 깨쳤다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반야관이 완성된다고 본다. 깨달은 아라한이나 붓다는 한 결 같이 자비와 반야관을 실천했으며, 달마 대사로부터 육조 스님 이전의 초기 선종인 여래선(如來淸淨禪)은 대승관법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후기 선종사에서 간화선이 형성되면서 나타난 일부 수행자들의 선병(禪病)은 대승관법을 통해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영명연수 선사는 <종경록>에서 깨치고 나서도 마음의 생·주·이·멸을 알아야 한다며, 4념처 관법을 강조했습니다. 선종, 특히 후대의 간화선에서는 너무 공관(空觀)에 치우치면서 유식(唯識)을 경시했기에, 유식관법에서 수행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대승의 유식관법이 거의 단절되었으므로 남방의 12연기관을 보완하든가, 천태지자 대사의 지관법이나 초기 선종 선사들의 수행법, 원효 <대승기신론소>의 자성 진여관, <금강삼매경론>의 무생관 등에서 수행체계를 복구해야 합니다. 특히 자비관과 원효의 6바라밀 수행은 깨달음만 강조하는 한국 선수행의 보완점이라 생각합니다."

불원 거사는 통불교의 전통이 강한 한국에서는 간화선과 위빠사나가 함께 발전하리라고 본다. 그래서 대승경전에 입각한 화두선과 관법이 조화롭게 체계화 되는데 일조할 계획이다. 그의 조용한 노력이 간화선 수행체계의 확립과 대중화를 고민하고 있는 조계종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란 기대감에, 하산 길의 발걸음이 더욱 경쾌했다.

대구=김성우 객원기자

수행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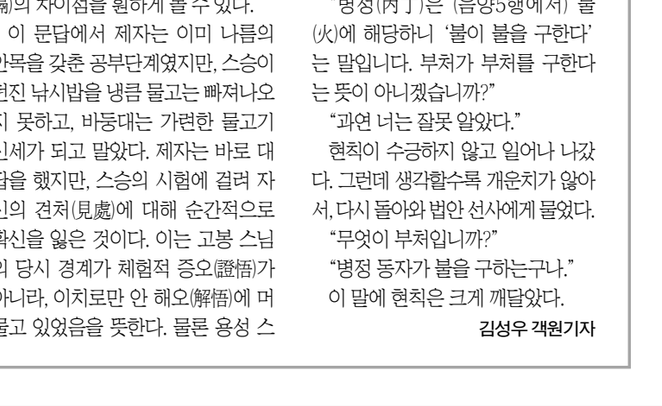
철야정진 및 트레킹 행선
부안 내소사는 12~13일 트레킹 템플스테이를 갖는다. 내소산 행선(行禪), 예불, 좌선, 발우공양, 차담 등으로 진행. 한편 12일(매주 둘째 토) 9시부터 철야용맹정진도 진행. (063)583-3035

금강경 및 참선법회
김천 인적사는 13일(매월 둘째 일) 오전 10시 30분에 금강경 법회를, 매월 넷째 토 오후 8시에 철야참선법회를 연다. (054)431-1192

영평사 행복수련
공주 영평사 행복수련원은 매주 토요일부터 7일간(주말수련도 가능) 현관스님의 지도로 심신의 안정과 평안을 되찾는 수련회를 연다. (041)858-2231

평생부자 지갑
옴마니반메훔福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남성용 金나노 중지갑
여성용 銀나노 장지갑

원하는 재물과 땅속의 보물까지 얻는 평생 부자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향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돌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 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훔 복지갑은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돈 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하는 팔길상보병과만사형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金·銀나노 처리 까지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조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훔지갑을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염주
인도산 자수정 108 염주
평생 행운과 소원을 성취시키는 불멸의 염주

승리와 행운의 염주



특별증정품 손목단주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품격!!

영원히 살아숨쉬는 불멸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쉰다는 인도산 천연자수정 108염주가 시판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자수정은 몸에지니고 있으면 화를 쫓고 행운과 소망하는것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어 모자를 쓴 고대 인도 상인과 아라비아 상인들 이마에는 자수정을 꼭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자주 본다. 인도산 자수정의 특징은 어떠한 세공을 해도 오염되지 않는 정화수를 주기적으로 주면 자란다는 보석으로 인도인들은 영원불멸의 보석이라고하여 부처님 보석이라고도 한다. 인도산 천연자수정 108주염주는 인도에서 염주알을 가공해 국내에서 조립한것으로 색상도 일정해 품위가 있다. 불멸의 보석으로 일컷는 자수정 염주는 지니고 있는것 만으로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오묘한 뜻이 있어 출시되자 선물로도 인기며 평생사용할 예불법구로 불자는 물론 스님들까지도 신청하고 있다. 신광사에서는 불사기금 조성으로 구입고객님의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소원성취와 사업번창을 위한 365일 특별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

닥쳐올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삼재소멸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2007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찾아온 재운이 넘치는 황금돼지해지만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삼년간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시작할수도 있는 어려운 해로 2007년에는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법하지 말고 일을 벌리면 어려움을 당할수 있으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큰활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금도금하여 가방또는 지갑속에 넣고다니면 안전하다. 자동차 금강저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마음에 안정을 주는 삼고금강저를 운전석위에 염주를 빼고 걸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 불공을 마친 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자동차용금강저 38,000원

전화: (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용 금강저
사고 예방과 화를 쫓는 영험!!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⑭ 부처님 사랑 참사랑

나 중심의 사랑

L씨는 절에 열심히 다니며 스스로 신실한 불자라고 생각했다. 몇 년 전 청년회에서 알게 된 법우와 결혼할 때 이제 둘이 함께 더 열심히 절에 다니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진 후, 곧 엄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자 마음이 달라졌다. '이제 나만의 가족을 가지게 되었구나' 하면서 왠지 절에서는 마음이 멀어졌다. 예전과는 비할 수 없이 걸음이 뜸해졌다.

날이 갈수록 신랑에 대해서도 나의 남편으로만 보려는 마음이 들었다. 신랑은 꾸준히 청년 모임을 나가고 있었다. "당신은 절에만 열심인 것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데…." 처음에는 달래던 신랑도 나중에는 화를 내게 되었다. "당신은 정말 변했어. 예전의 당신이 아니야. 절에는 나보다 더 열심히 다녔는데 왜 요즘은 안 가는 거지? 그리고 나까지 가지 말라는 말이야?" 신랑은 태어날 아기에게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서 같이 하자고 하였다. 그 말에는 마지못해 동의하였으나 L씨의 관심은 기도나 수행보다 집안 살림과 꾸미기에 있었다. 아들이 태어난 뒤로는 정도가 더 심해졌다.

이제 두 사람은 매일 한번 이상 말다툼 없이 넘어가는 날이 드물게 되었다. L씨의 요구는 언제나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함께 보내자는 것이고, 신랑은 절에도 같이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자는 것이었다.

남편의 기도

어느 날 신랑이 당분간 일요일에도 회사에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새로운 해외 업무 계획이 나와 그 준비로 일요일에 시간을 내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중요한 일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었다.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신랑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신랑은 일요일에도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야 돌아왔다. 그렇게 두 달이 넘은 어느 날 모처럼 절에 갔다. 잘 아는 스님을 뵈었다. "신랑이 대단해. 일요일에도 나와 종일 기도하고 봉사하지 않나." L씨는 귀를 의심했다. "일요일에요?" 아니, 회사에 간다더니,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단 말인가. 충격을 받아 잠시 정신이 없었다.

"사실 신랑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보살 걱정이 좀 많은 게 아니요. 결혼 전에 기도하고 봉사하는 훌륭한 불자였던 보살이 변했다고. 자기 잘못이 아니냐는 거야. 이대로는 견디기 어렵다고 하면서 백일기도를 부탁했어요. 일요일에는 보살 대신 108배와 기도를 하고 봉사도 해 보겠다고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살은 어떻게 할 거지? 계속 부처님을 외면하기로 했나?"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부처님을 외면하다니…. 내가 언제 이렇게 되었지.

법당에 가서 절을 올리니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신랑이 나 대신 이렇게 절하고 봉사하며 어떤 심정일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나는 왜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까. 오죽하면 거짓말까지 했을까. 그 날 밤 신랑에게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며 울었다. 그는 고마워했다. "당신을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하면서 목이 메었다. "부처님이 우리 백일기도를 들어주셨구나"하며 기뻐했다.

L씨는 참회하며 점차 예전의 신행생활로 돌아가게 되었다. 둘 사이도 좋아지게 되었고 다투는 일이 줄었다. 아이도 절에 가는 것을 좋아하며 사람들의 귀염을 받고 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니까 이렇게 가정생활이 좋을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신랑이 바로 부처님이었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에 평화로운 행복감이 느껴졌다.

'법우'였다가 '부부'가 된 뒤로 거리감

일요일 회사 간다던 남편 알고보니 절에서 봉사

함께 신행생활 열심…가정의 행복 되찾아

불심은 행복의 뿌리

가정에서 불심은 집안의 뿌리와 같다. 뿌리를 외면하고 나 위주로 집착하면 잘 살 것 같지만 결국은 다툼과 공허함만 가져오기 쉽다.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부처님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매사에 나를 앞세우는 그 아집을 발견하라. 발견해야 벗어버릴 수 있다"고 하셨다.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자비로 서로를 바라보고 마음을 다스려가는 가정에는 웃음과 사랑이 충만하게 피어날 것이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신행게시판

화계사 특별초청법회

타태아기영가천도를 위한 49재 기도를 올리고 있는 서울 화계사가 5월 12일 오전 11시 여성학자 오숙희씨를 초청해 '아름다운 성, 사랑, 생명'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타태영가천도는 낙태가 필요 없는 마음자리와 세상을 가꾸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는 반생명 문화의 수렁에서 벗어나고자 화계사가 마련했다.

한편 타태아기영가천도재의 마지막 회향일인 5월 19일 오전 10시에는 보살계 수계식이 열린다. (02)902-2663

능인선원 2007년도 참빛학교 사계동주

서울 능인선원이 5월 12~13일 제56차 사계동주 체험수련회를 개최한다. 참빛학교 지도법사 두진 스님이 지도하는 사계동주 프로그램은 삶과 죽음의 명상, 임사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사계동주는 생·로·병·사와 고·집·멸·도를 봄·여름·가을·겨울의 사계에 비유한 것으로 사계가 우리와 함께 하듯이 생로병사도 우리와 함께하는 고통의 원인이므로 궁극적으로 사성제와 팔정도의 진의를 바르게 알아 끊임없이 수행과 정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녕사에서 열리는 사계동주 프로그램은 1차 체험수련으로 자기 성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2차 수행정진의 자기완성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올해는 매월 셋째 주 주말에 체험수련이 마련돼 있다. 윤 공덕지(017-334-4978)

송광사 보살계 수계법회

순천 송광사는 5월 12~13일 보조국사 종재대법회와 보살계 수계법회가 열리는 삼월불사를 봉행한다.

제797기 불일보조국사 종재는 13일 국사전에서, 보살계 수계산림은 12일 오후 2시~13일 대웅전에서 진행된다.(061)755-0107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 안의 화를 이기고 (하)

이기용 서울시 은평구

누이에 대한 원망 속에서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앙다물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기계 부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트럭을 사서 전국을 돌며 부품을 팔았습니다.

누이가 없는 형편에 굶어가며 모아둔 돈을 빌렸습니다. 장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장사가 좀 잘 되자 동업자 친구는 쉬엄쉬엄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자친구를 태우고 놀러 다니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처음엔 말렸습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하자고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저도 같이 즐기고 있었습니다. 버는 것 이상으로 쓰는 낭비벽도 찾아왔습니다.

점점 돈이 돌지를 않았습니다. 재고는 쌓였고 물건 값 독촉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사방팔방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 있었죠.

결국 부도를 내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서울에서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고향 인근으로 내려갔습니다. 나를 도와줄 친척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림: 문병성

장사 잘 되어 신났지만 나태해져

부도 · 빚더미…아내와 기도로 극복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몸이 약했던 아내가 두 차례의 유산 끝에 가진 첫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다섯 살 터울의 작은 아이 역시 인큐베이터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세상의 온갖 고난은 저에게만 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원망은 하늘을 향해서도 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울진 불영사를 가게 됐습니다. 고즈넉한 절 마당에 들어서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 이상한 경험이었죠.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저 절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는데도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안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법당에 들어갔습니다. 부처님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원망이 느껴지지 않고 그저 평안한 느낌만이 저를 채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불영사를 찾아왔습니다. 가끔씩 찾아와 우두커니 앉아있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나봅니다. 어떤 보살님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앞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을 불러보라 했습니다. 가장 힘이 들 때 중생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자비로운 분이라고 설명해줬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관세음보살을 불러봤습니다. 입 밖으로 소리 내어 부르기엔 쑥쓰러워서 마음속으로, 입 속으로 우물우물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관세음보살에 의지하면서 생활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제 마음도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누이가 연락해와 저희 부부 결혼식을 올려줄테니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사는 동생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 누이가 그동안 돈을 모았던 겁니다. 예전에 사업한다고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원망이나 해대던 저에게 말입니다.

마음 속 깊이 뜨거운 덩어리와 함께 관세음보살이 제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아내와 부둥켜안고 그날 밤 눈물만 흘렸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친척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올린 뒤늦은 결혼식에 아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이에 대해 원망을 가졌던 저 자신을 후회했습니다. 누이들이 열심히 절에 다니며 신행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저도 부처님 전에 무릎을 꿇고 깊이깊이 참회했습니다. 부모 같은 누이들에게 품었던 한은 부처님을 뵐 때마다, 그 앞에 머리 조아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을 되뇌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일을 할 때도 쉴 때도 소리 내어 부를 수 없을 때는 마음속으로 절실하게 관세음보살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관세음보살에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했고 다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20여년 만에 다시 서울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젊었을 때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제가 어긋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서 전 새로운 인생을 얻었고 제 안의 화와 원망은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음보살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끝)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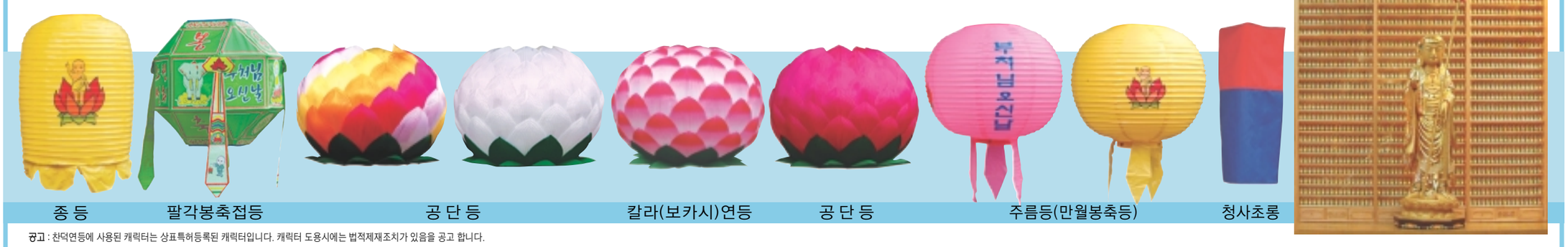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종 등 | 팔각봉축접등 | 공 단 등 | 칼라(보카시)연등 | 공 단 등 | 주름등(만월봉축등) | 청사초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즐토' 엔 경제하고 놀아요


아름다운나눔의 장터에는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열린다.

동화책 · 필통 등 손때묻은 물건들 가득
"환불 교환 가능해요" 상술도 가지각색
용돈도 벌고 절약정신 나눔정신도 배워


어른을 상대로도 흥정에 척척인 어린이 판매상들.


어린이들 스스로 사고 팔며 흥정하는 동안 자연스레 경제교육이 된다.

뚝섬 아름다운나눔의장터

"싸게 팔아요!! 오늘 안 사가시면 완전 후회해요!"

시장에서나 들어봄직한 말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앳되다. 기껏해야 초등학생 정도나 될까.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장사를? 그것도 한 두 명이 아니라 수 백 명이?

북적북적 시끌시끌한 장터가 있다. 오직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딱 4시간만 활짝 문을 연다. 상쾌한 강바람과 푸릇푸릇한 잔디가 어우러진 곳, 지하철 뚝섬유원지역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뚝섬 아름다운나눔장터'가 열리고 있다.

우선 장터를 한 바퀴 돌아보자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전체 구경꾼과 물건 파는 사람의 절반이 넘는다. 이들이 파는 물건들에는 모두 손때가 묻어있다. 동화책 · 딱지 · 필통 · 스티커 등 없는 것이 없다. 아하, 이곳은 벼룩시장이구나!

사실 교육과 재미는 반비례일 때가 많다. 그런데 아름다운나눔장터는 아이들 입에서 "재밌다" "좋다"는 반응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쓰지 않는 물건을 들고 나가 필요한 사람에게 싼 가격으로 팔고, 그 이익금 중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만 설명해도 아름다운 장터의 효과에 대해 고개를 끄덕인다. 바로 경제 교육의 장으로 연결되는 셈.

벼룩시장을 돌아다니다 살펴보면 재밌는 광경들이 꽤 많다. 온가족이 함께 총 출동해 아이들과 어른이 번갈아가면서 물건을 팔고 구경을 한다. 배가 고프면 모두 모여 컵라면을 먹으면서 재밌어한다.

또 나이에 상관없이 '손님'과 '파는 사람' 모두 서로를 존중한다. 평소 같으면 함께 어울리는 일이 드문 중학생과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사고파는 역할이 이뤄진다. 혜원이와 하은이(상명여중 2)도 승희(면동초등 4)의 물건을 사간다. 이유는 하나. 싸고 예쁘니까.

"와, 이거 예쁘다~ 필통 얼마니?" "100원이요."

정해진 가격 같은 것도 없다. 부르는 게 값이다. 그저 파는 사람은 솔솔 파는 재미에, 사는 사람은 싸게 사는 재미에 신난다. 혜원이는 정가 1만5000원짜리 토끼인형을 5000원에 사기도 한다.

많은 아이들이 나와 물건을 팔고 있지만 상술(?)은 가지각색이다. "하나만 사 주세요"라며 애처롭게 매달리는 '성냥팔이소녀'형에서부터 "환불과 교환도 된다"고 소리치는 '애프터서비스'형까지 아이들의 재간에 깜짝 놀라게 된다.

이중 (주)화이자제약 가족으로 나온 시진이와 현수(월천초등 3)는 수준급 장사 수완을 자랑한다. 누가 가격 흥정만 한다 싶으면 무조건 먼저 '에누리'에 들어가 기분 좋게 물건을 팔아버린다. 한 아주머니와 한참 실랑이 끝에 또 무엇인가를 판 모양. 이들은 "5000원짜리 전과를 700원에 팔았다"며 배시시 웃는다. 이어 기자에게까지 소설책 한권을 판다. 700원에 머리 묶는 고무줄까지 덤으로 준다. 뒷면을 보니, 9500원이라는 정가가 떡하니 쓰여 있다.

벼룩시장은 거의 이런 식이다. 아이들이 파는 물건은 거의 몇 백 원 수준이다. 그렇다고 100원 200원짜리 물건들을 우습게 볼 수 없다. 어떤 아이는 딱지, 놀이용 카드로만 5만원을 벌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 오기도 한다.

"너무너무 신나요! 다음에도 또 물건 팔래요."

병준(면목초등 4)이의 말처럼 아이들은 장터 그 자체에 재미를 느끼고 푹 빠져있다. 하지만 단순히 재미만 느꼈다고 계속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 재활용의 생활화를 통해 아이들이 절약하고 함께 사는 정신을 배울 수 있다는 것, 나눔장터의 무엇보다 큰 가치다.

유현이와 수연이(중마초등 6)도 느끼는 것이 많다.

"우리에게는 헌 물건인데 필요한 사람이 있다니 신기한 거 있죠. 놀토에 집에 그냥 있는 것 보다 친구들과 함께 나와 물건을 파는 게 훨씬 재밌어요."

글 · 사진=김강진 객원기자



※장터에 참여하려면?

■살 때는요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4시까지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 2번 3번 출구로 가면 된다.

■팔 때는요
어린이장터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 우선 인터넷으로 예약을 한 다음,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현장 사전접수를 해야 물품 판매가 가능하다.
문의: (02)732-9993
인터넷 예약 : www.flea1004.com)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서울애니메이션센터에서는
5월 13일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울애니메이션 패밀리 데이즈(Seoul Animation Family Days)'가 개최된다. 로봇태권브이, 아이언키드, 싸이킥스 등이 상영된다.(02)3455-8315

전북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서는
5월 10일~13일 동학농민혁명 봉기 제113주년을 맞이하는 "제40회 황토현 동학축제"가 열린다. 동학마당, 황토마당, 농업마당, 생명마당, 축제속의 축제 등의 프로그램과 황토 도자기 만들기 체험 마당 등이 펼쳐진다.(063)530-7152~3

경기 성남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07 푸른꿈, 희망 청소년축제'가 열린다. 지역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가족과 함께 보는 뮤지컬 '콩쥐팥쥐' 관람은 물론 목공예 소품, 풍선 장식 만들기 등도 즐길 수 있다. 5월 12일.(031)740-5260

부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5월 11일 가정의 달 기념 '해피 투게더' 이벤트로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E.Q-E.Q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031)326-4212

하동군 화개면 차시배지일원에서는
하동야생차문화축제가 열린다. 전국 다시낭송대회, 가장행렬, 주막 운영, 녹차사진전 등 볼거리와 체험전이 풍성하게 차려질 예정이다.5월 17일~20일까지.(055)880-2114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 본 원에서는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여 집중(3개월 속성) 개인지도 합니다.
◈ 불교의식을 모르는 초심자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합니다. (스님포교사. 재가불자 법사교육)
◈ 교육과정
● 일상 상용반 : 도량석 조석종성
● 예 경 편 : 상단예불, 각단예불 (미타.명부.관음전 등)
● 불 공 편 :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공(관음.지장,신중청 등)
● 재 의 식 : 천도재 49재 예수재 점안의식 시다림
<바라춤>: 요잡바라, 관욕바라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법고무
<나비춤>: 사방요신, 다게 도량게 운심게
● 시식과정 :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 법사과정 : 경전을 문법과 전문적인 한문공부로 경전을 배웁니다.
◈ 개강일자 : 2007년 6월 5일
(범패반 : 화요일 오후 3시. 상용반 : 화요일 오후 5시)
◈ 강 의 일 : 매주 화(목)요일 오후 3~5시, 5~7시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및 신청서 접수
대한불교대학 범패 연구원 수림사
서울시 종로구(종로5가 3번 출구) 연건동 190-30
☎ 02)764-6060. 011-9769-8868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배가 무지무지 고픈 사람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배가 고픈 사람은 아무래도 허겁지겁 밥을 먹게 되지요. 그런 모습을 다르게 표현하면 '게걸스럽게' 먹는다고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게걸스럽다는 표현에서는 인간으로서의 품위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허겁지겁'이나 '게걸스럽다'는 표현이 자신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반듯하고 절도 있는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허겁지겁 : 조급한 마음으로 몹시 허둥거리는 모습

게걸스럽다 : 욕심껏 마구 먹어대다.

고비 : ①편지 같은 것을 꽂아 두는 물건. 종이로 주머니나 상자처럼 만들거나 종이를 '+'자 모양으로 만들어 벽에다 붙임. ② 고이, 곱게

고샅 : 마을의 좁은 길목. '고샅고샅'(좁은 골목마다). 또는 사타구니 사이.

고수레 : ① 들에서 음식을 먹을 때나 무당이 굿을 할 때, 귀신에게 먼저 바친다고 하여 음식을 조금 떼어 던지면서 하는 소리. ② 흰 떡을 만들 때에 쌀가루에 끓는 물을 훌훌 뿌려 섞어서 물이 골고루 퍼지게 하는 일. ③ 흰 떡 따위를 반죽할 때 끓는 물이 골고루 가게 하는 일. ④ 무당이 굿할 때나 들에서 음식을 떼어 던지며 부르는 소리, 또는 그 일.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고독과 고난에 맞서는 인간 의지 표현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헤밍웨이作 '노인과 바다'

이 소설은 1952년에 발표됐으며, 노벨문학상 수상작이에요. 이 소설에는 헤밍웨이 나름대로의 실존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헤밍웨이는 노인을 통해, 어떠한 일에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고난과 맞서 싸우는 데서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 읽을 적에는 노인의 집념이나 도전 정신에 감명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무모하게 고기를 잡아 왔지만 '고기가 뼈만 남았더라'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아마도 인간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인내심도 부족하다고 혹은 힘들고 험한 일을 잘 안하려고 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소설을 읽다보면 강인한 정신력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자세는 본받을 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소설은 중편소설로 단일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적, 상징적, 도전적, 사실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소설로 배경은 멕시코 만류가 흐르는 바다이지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며 간결하고 힘차며 상징적이고, 사실적인 문체가 돋보입니다. 경험 중심적 경향을 나타냅니다. 제재는 늙은 어부의 고기잡이지만 운명의 험난함에 맞서 싸우는 인간의 강인한 의지, 삶은 덧없으며, 이 세상살이에 괴로움이 반복됨을 드러내고 있어요. 절대 고독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의지 현실의 고난에 맞서 싸우는 불요불굴의 정신이 작가가 이소설로 나타내고자 한 중심 생각입니다.

헤밍웨이 생존 중 마지막 소설
간결하고 상징적인 문체 돋보여
단일 구성의 중편…노벨상 수상

산티아고 노인은 쿠바섬의 해변 오막집에 혼자 사는 홀아비 어부. 그는 오래 전에 아내를 잃고, 이제는 고독한 생활을 보낸다. 그러나 노인을 좋아하는 마놀린이란 소년이 이웃에 살고 있어 가끔 먹을 것 같은 것도 갖다 주고, 또 이야기 상대가 되어 준다. 그러나 소년은 노인과 함께 바다에 나가는 것을 양친으로부터 금지당하고 있다.

노인은 너덕너덕 꿰맨 돛을 단 작은 배로 멕시코 만류까지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벌써 84일간이나 고기를 잡지 못한 채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 85일째의 아침 일찍, 노인은 혼자서 작은 배를 바다에 띄우고 서서히 덤불 쪽으로 저어 나간다. 점심때쯤 마침내 노인의 낚시에는 예기치 못했던 큰 돛새치 한 마리가 걸려든다. 그러나 그의 배보다 2피트나 큰 돛 새치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노인이 낚시 줄에 끌리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 고기와 싸우는 동안 해는 지고 어둠이 찾아온다. 이틀째가 되어도 돛새치는 여전히 버티며 노인을 괴롭힌다. 노인은 추위와 허기에 지쳐, 고등어의 생고기를 먹고 맹물을 마시면서 원기를 낸다.

다시 해가 지고 밤이 되어 달이 떠오른다. 노인은 피로에 지쳐 꾸벅꾸벅 잠이 드는데, 이때 그는 사자의 꿈을 꾼다. 사흘째의 해가 떠오르자 노인은 지칠 대로 지쳐 있다. 거대한 돛새치가 바다 위에 몸을 드러내자 노인은 그 옆구리 배에다 작살을 들이 박는다.

마침내 노인은 고기를 배 옆에다 갖다 붙이고서 밧줄로 끌고 가기로 한다. 전장 18피트, 무게 1천 800파운드가 되는 대어가 잡혔으므로 노인은 스스로 운이 텄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노인이 대어와 함께 육지로 돌아오는 도중 큰 상어 떼에게 습격을 받는다.

노인이 상어 떼와 싸우면서 마침내 육지에 닿았을 때, 모처럼의 대어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노인은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오막집으로 들어가 물 한 잔을 마시고, 침대 속으로 찾아 든다. 노인은 곧 깊은 잠에 빠져, 사자 꿈을 꾸게 된다.

'노인과 바다'는 헤밍웨이가 생존 중에 발표한 마지막 소설이란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야한 생각에 공부가 안 돼요

독서실에 앉아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만 나고 야한 동영상이 보고 싶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죠? (ID:비밀이에요)

시간별로 계획 세워 집중해 보세요

공부는 안 되고 야한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 공부를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지니 자신을 스스로 조절 못하는 것 같아 괴롭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어서 더욱더 그런 성관련 생각들을 하게 만들 수도 있지요. 그러니 여유를 가지는 마음자세가 중요합니다.

1. 우선은 혼자서 공부를 하기 보다는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 나가서 농구, 축구를 하건, 수영, 헬스, 등산 등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다 보면 잡념이 적어지게 되지요.
2. 일상생활을 좀 더 규칙적으로 하세요. 공부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꼼꼼히 시간별로 계획을 세워서 집중해 보세요. 또한 공부할 때는 자신 있고 재미있는 과목부터 시작하는 것이 잡생각을 막는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시간에는 운동과 취미생활을 하면서 딴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표를 세워서 하다보면 자신이 세운 계획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공부에 더욱더 자신감을 갖게 되지요. 그러나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학습 분량으로 계획을 세우면 좌절만 경험할 뿐이니 잘 조절하세요.
3. 가능한 한 인터넷 음란사이트나 포르노 비디오 등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호기심에 많이 보지만, 그 영상이 머릿속에 박혀서 나도 모르는 새에 오래오래 가거든요. 또한 그런 음란물에 접하다 보면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문화에 대한 학습보다는 자극적이고 변태적인 성문화를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한마음심리상담센터)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
남산스님의 기혈수비법
기혈수 제품
다이어트밴드 5개 15,000원
쑥뜸 온열구풍 2개 10,000원
물소뿔괄사 1개 15,000원
밸런스테이핑 10m 25,000원
원형패치 90매 10,000원
수액시트 50,000원
화제의 신간
저자: 남산스님
변형신국판
컬러/ 값 10,000원
기혈수비법이란?
기혈수비법 중에는 고혈압과 관절염을 가정에서도 쉽게 해결하는 방법과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뱃살이 빠지는 비법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집에서도 간단하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남산스님 무료 氣치료 일정
일정 : 매주 목요일
시간 :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장소 : 부산지하철1호선 장전동역 역사내 강당 (3번출구안쪽)
도 서 출 판 국부카르마 | 문 의: 080-999-1080
입금계좌: 농협 177483-51-071977(예금주:천소현)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시간 조절 가능
LED전구(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전 선 간 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탐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부처님의 가르침 생생한 육성을 읽는다

초기불전연구원 '앙굿따라니까야' 3 · 4권 출간



앙굿따라 니까야 3 · 4권
대림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 각권 3만원

<앙굿따라 니까야>는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그 주제의 법수(法數)가 분명한 말씀들을 숫자별로 모아 결집한 것이다.

이번 책도 이런 주제를 하나부터(A1) 열하나까지(A11) 모두 11개의 모음으로 분류해 결집했다. 특히 '제 3권'에는 다섯 모음이 수록돼 있는데 이는 부처님 말씀 가운데 다섯 주제를 담은 경들을 모은 것으로 모두 271개의 경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제 4권'에는 '여섯의 모음'과 '일곱의 모음'이 포함돼 있는데 각각 124개와 90개의 경들로 구성돼 있다. 두 권을 합치면 모두 11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앙굿따라 니까야>를 번역한 대림 스님은 "이번 책들은 1 · 2권이 출간한지 7개월 만에 다시 나오게 됐다"며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것은 1992년부터 3년 동안 빠알리어 사전 10여 개를 합친 분량인 20만 단어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 자료 덕분"이라고 비결을 살짝 귀띔했다. 방대한 책의 양과 어려운 경전 내용이어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미리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기우다. 대림 스님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권에 500여개에 달하는 주해를 달아놓았다. 이 주해들은 <앙굿따라 니까야 주석서>를 참조해 상좌부의 전통견해를 계승하고 있다.

<앙굿따라 니까야>는 전 6권으로 출간될 예정인데 마지막 분량인 제 5권(여덟의 모음과 아홉의 모음)과 제 6권(열의 모음과 열하나의 모음)은 올해 9월에 나올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부처의 포로가 되지 말라"

성열 스님 '자유인 임제' 펴내…불교계 현실 진단 · 극복의 길 안내



'비판과 반성의 부재.'

성열 스님(서울 강남포교원장)은 "오늘날의 불교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꼽는다면 현실을 철저히 들여다보며 비판하고 반성 하지 않는데 있다"고 말한다. 냉철한 비판과 자정의 의지를 담보하지 않음으로 승단은 점점 권위적으로 종단은 정치집단으로 변모해 가고 재가 역시 안일한 신행에 빠져 있다는 분석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초창기 부처님 교설을 근간으로 하던 불교라는 물이 형식과 제도에 붙잡혀 고여 있음으로 인해 수많은 폐단이 드러나고 그를 정화하기 위해 대승불교 운동이 주창된 것을 볼 수 있다"는 성열 스님은 "중국의 선불교 역시 부처님의 깨달음 정신을 가장 활발하고 생생하게 살려낸 방편이었다"고 설명했다. 9세기 선의 황금기, 중국 선불교의 정점에 임제(臨濟)가 있다.

성열 스님은 최근 펴낸 <자유인 임제>(현암사 1만 8000원)를 통해 임제의 활발한 '깨달음 정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외치고 있다. 아니, 유효한 정도가 아니라 절실히 필요한 정신으로써의 임제를 드러내고 있다. 키워드는 '자유정신'이다. 불자들이 입으로는 "그 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을 말하지만 너무도 많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다. 당당한 자유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기에 속제에만 머물 뿐 진제를 향해 진일보 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열 스님은 임제를 통해 진제로의 진일보를 안내한다. 이정표는 바로 "부처의 포로가 되지 말라"는 임제의 노파심절이다. 깨침을 향해 가는 길에서 부처에 집착하는 것도 병이 된다는 말이다. 오늘날로 치면 '불교'라는 집단과 권위 그리고 세속적 욕망의 덩어리에 사로잡히는 한 진리의 추구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열 스님은 "불교라는 형식이 크게 살아날수록 부처라는 진리로 통하는 본질은 죽는다"며 "조직이나 시스템이 본질을 갉아먹는 것은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이라 말했다. 부처님의 권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주체성의 확립과 자유 획득의 길을 버리고 부처님께 예속 되는 것이므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위 · 형식 위주 불교 벗고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삶
'임제의 정신' 통해 제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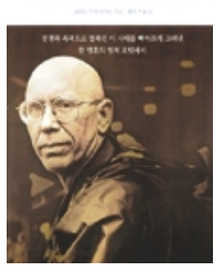
25년간 강남 지역에서 포교 일선을 달려온 성열 스님은 "이제 내가 걸어 온 길을 나스스로 점검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됐다"며 "이제 재가 불자들의 의식도 철저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님은 재가자라고 하여 깨달음에 차별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유마경>이 상징하고 있듯 재가자의 역할이 한 시대의 불교정신을 지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게 성열 스님의 입장.

<자유인 임제>는 승가와 재가, 불자와 비불자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 읽어야 할 삶의 지침을 상세한 해설과 풍부한 일화들의 인용으로 꾸며져 재미를 더한다. '임제어록'을 해설한 책이지만 '임제를 중심으로 보는 불교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열 스님은 '한 담'이라는 주해 코너를 통해 우리 시대의 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하고 승가와 재가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자고 제안한다. '무위진인-참사람'으로서의 임제 스님은 각자의 눈앞에 드러난 그대로의 세상을 볼 것과 '자신' 밖에서 구할 수 있는 진리는 없음을 분명하게 가르친 스승이기에 시대를 초월하는 사자후를 듣자는 것이다.

성열 스님은 '임제어록'을 새롭게 해석하고 원문을 반드시 밝혀 둠으로 독자들도 얼마든지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고 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스님이 된 참전용사…고통의 성장기



풀한포기 다치지 않기를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황학구 옮김
정신세계사 | 8500원

한 미국소년은 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군에 입대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 소년은 불과 18세의 나이에 베트남에서 죽고 죽이는 악몽 같은 전투를 견뎌내야 했다.

그는 전쟁을 겪고 나서야 자신의 아버지는 물론 사회 전체가 폭력과 전쟁이라는 환상에 물들어 있음을 깨달았다. 전쟁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했던 아버지는 알코올과 담배에 중독되어 쉰세 살이 돌아가셨고, 청년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그 역시 마약과 섹스와 알코올 중독자이자 노숙자로 전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청년에게도 탈출구는 있었다. 불교였다. 1994년 스님이 됐다. 이 푸른 눈의 선승은 십수년에 걸쳐 평화순례를 이끌며 삶의 해답을 얻는다. 바로 '정념(正念)'이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온전히 있는 것. 고통과 거부하지 않고 함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에게 치유이자 삶의 전환점이 됐다. **김주일 기자**

지명 스님의 사유 '수필'로 오다



진흙이 꽃을 피우네
석지명 지음
해토 | 1만원

청계사와 법주사 주지를 지낸 석지명 스님이 산문집 <진흙이 꽃을 피우네>를 펴냈다.

스님은 이 책에서 인간을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지명 스님은 "세상과 나는 본래부터 진흙이고, 더러운 것에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꽃이 나올 수 있으니 추하고 악한 것을 맞더라도 억울해 할 것이 없다"고 이 책에서 강조한다. 또한 '일체유심조', 즉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창작된 것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어디에도 성취가 없거나 모든 곳에 성취가 있는데도 마음의 번뇌를 일으켜 어떤 것에는 '성취'라 하고 다른 것에는 '실패'로 낙인찍는 다는 것이다. 수필이지만 글들이 늘어지지 않고 오랜 사유에서 나오는 간결한 글맛이 애피타이저 처럼 한층 더 독서력을 돋워준다. 중앙일보에 연재한 칼럼을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이상엽씨의 사진과 함께 꾸몄다. **김주일 기자**

中 묘법 스님의 법문 모음집



오대산 노스님의 그다음 이야기
과경 엮음
각산 정원규 옮김
불광출판부 | 1만원

"노스님께서 말씀하셨다. 회장님이 금생에 많은 돈을 벌게 된 것은 전생에 많은 공덕을 지은 결과입니다. 또 회장님의 두통은 회장님이 출가하기만 해도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다리가 아픈 까닭은 모두 회장님이 사업할 때 뇌물을 준 과보입니다."

(대부호의 두통과 전생인연 중에서)

중국 우타이산(五臺山)에 은거하며 살았던 묘법(1916~2004) 스님의 법문을 엮었다. 지난해 국내 출간된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속편으로 염불 수행한 사람들의 체험담, 인과의 도리를 이해하고 참회해 병을 고친 이야기 등이 실려 있다.

특히 양무제의 스승인 지공선사의 인과법문, 양무제의 양황보참, 티베트의 고승 쇼다지캄포 대사의 방생공덕 미묘법문 등은 곱씹어 읽을 만하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4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5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김성우	클리어마인드
6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7	운명을 바꾸는 법	정공	불광출판부
8	직관	아잔 수메도	대한불교진흥원
9	지금 후회없이 사랑하라	성전	도솔
10	여보게 설거지는 했는가	활안	휴먼앤북스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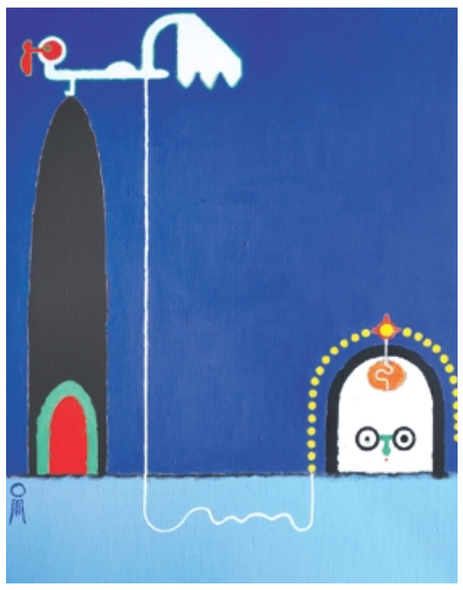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고 만 행 화
■ 소재특징 : 초극세사, 방수원단
사계절 단화
지압식 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망사 단화
지압식 팔창
• 가격 : 7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최고의 선물
초극세사
• 가격 : 50,000원
• 규격 : 215-255mm
• 색상 : 검정, 회색
발볼조절가능
건강슬리퍼
바이오실리콘
조극세사 (방수원단)
풍산동 99%
• 가격 : 50,000원
• 규격 : 230-280mm(10mm단위)
• 색상 : 진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네이버(NAVER) 주소창에 한글 '만행화'를 치세요!!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정주 상운각 063)274-6639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이 름 대 사 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신 수 비 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 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지수 대진 합장

두 형제 스님이 바라 본 '부처'



원옹 스님의 '선화'.

원옹 스님과 비공 수좌의 현대 선화展

경인미술관/5월 9일~15일

원옹 스님은 오래 전에 와당을 소재로 한 일련의 선화로 또다시 유채화로 바꾸어 전시회를 가진 일이 있다. 그게 벌써 십여 년 전의 일이다. 한동안 세상과 소식이 두절 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아크릴화로 재료를 바꾸어 그림을 재개하고 전시회를 갖게 됐다.

원옹 스님의 그림을 보면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세간의 유행과는 전혀 무관한 조형언어 및 어법을

원옹 스님-깨달음의 세계 조형언어로
비공 스님-철로 빚은 부처 조각 전시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해독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언어가 아니다. 오히려 친숙한 기하학적인 이미지를 골격으로 하고 있다. 직선 및 곡선으로 구성되는 삼각형을 비롯, 사각형, 원 등 기하학적이고 평면적인 이미지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하학적인 구조를 기조로 사람 얼굴이나 네 발 짐승과 새 또는 전구, 눈, 수도관 따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들이 나타난다.

원옹 스님의 조형적인 세계는 한마디로 선문답과 같다. '불립문자 직지인심'에 의한 선승들의 깨달음의 세계를 그림으로 번안해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40여점이 벽

속가 형제인 두 스님이 함께 5월 9일부터 15일까지 경인미술관 제 2전시실에서 전시회를 열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원옹 스님(밀양 돈오선원장)과 비공 스님(분당 대도선원장)이다. 전시 장르는 다르다. 형인 원옹 스님은 추상화를, 비공 스님은 조각이다.



비공 스님의 조각 '의식의 부처님'.

에 걸린다.

비공 스님의 철제 조각도 범상치 않다. 원래 비공 스님도 불화가다. 하지만 이번에 원옹 스님이 선화를 전시한다고 하자, 장르가 다른 조각 작품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비공 스님은 "평소 해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작심을 하고 '의식의 부처님'이란 주제로 조각을 만들어 봤다"고 말했다.

비공 스님의 작품을 얼핏 보면 전혀 불교와 상관없어 보인다. 하지만 스님은 분명 부처님을 형상화 했다고 말한다. "얼굴이 부처님과 안 닮아서 사람들이 부처님인줄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현대적인 세련된 모습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바꿔봤어요. 부처님의 얼굴 모습이 현대화됐다고 부처님의 존재까지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공 스님은 2층 전시실에서 철로 만든 부처님 20점을 선보인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데리다의 '해체론' 새 격의불교의 엔진

시와 세계시학회 '선을 언어로 읽는다' 세미나

'시와 세계시학회'가 '선을 언어로 읽는다'는 다소 위험스런(?)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4월 28일 오후 강릉 등명락가사(주지 청우)에서 열린 제2회 시와 세계시학회 학술세미나에서 이만식 교수(경원대 영문과)는 '선과 자크데리다-새로운 격의 불교의 모색'을 발표해 주목 받았다.

이 교수는 간화선에 대한 위기의식이 거론되고 잇는 현실에서 새로운 격의불교를 열어야 할 것이라 진단하며 서구의 해체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해체론'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불교의 종교적 핵심은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격의불교의 모색을 위한 검색엔진으로 데리다의 해체론을 동원하여 선학의 이론적 체계를 연구하자"고 제안했다. 논문에서 이 교수는 '상구보리와 하화중생' '연기' '자비'등의 개념을 해체론의 시각으로 조명했다. **임연태 기자**

우리나라 불교음악 이야기 ⑨

95년 '찬불가선정위원회' 출범

1990년~2000년

불교음악의 미래를 여는 찬불가 책을 편찬하기 위해 1995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서 '찬불가선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문화사회부장 시현 스님을 중심으로 문화사회국장 덕신 스님 등이 참여했다. 또한 가사부문에는 반영규 선생이, 작곡 부문에는 김동환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편곡 부문에는 김희경 씨가 찬불가 모집과 편집은 안병길씨가 맡았다.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자 전국의 지도자들과 단장들이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건물 1층에 모여 찬불가 선별과 심의에 따른 공청회를 열었으나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폐회한 뒤 준비위원회는 찬불가 선곡에 들어갔다.

1996년 100곡 선별 〈찬불가합창곡〉 발간
90년대 초 부루나 같은 전문 중창단 탄생

처음에는 100곡을 선정해 전국의 불교음악인에게 가안을 배포해 검토 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기 교수의 곡이 많이 들어갔다는 반론이 있어 작곡가 별로 7곡씩 선별한 뒤 1996년 〈찬불가합창곡〉을 만들어 예술의 전당에서 출판음악회를 가졌다. 찬불가를 전국적인 선별과정과 심의기구를 만들어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은 1970년 창립한 찬불가선정위원회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 처음으로 설치되고 다음해인 1971년에는 불교연합회에서 찬불가를 공모하면서 부터다. 같은 해 5월 2일에는 처음으로 공모작에 대한 시상식이 이루어졌다. 수상자는 '삼귀의' '반야심경'을 작사 작곡한 최영철 선생이었다. 그 후 1974년 6월에 서창업 선생이 '불교음악연구원'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 등록해 활동했다. 1976년에 111곡을 모아 찬불가 책을 편찬해 세상에 내보냈다. 그 후 1979년도에는 찬불가 경연대회를 열었다.

점차로 불교계에서 찬불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1982년에는 찬불가 심의 준비위원회 구성됐다. 심의위원은 서창업, 반영규, 법계심 등이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불교음악은 발전 한다. 그러나 찬불가의 심의는 물론 음악을 전공하고 불교음악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심의해야 했으나 서창업 선생을 제외한 분들이 그렇지 못했던 것은 아쉬움으로 꼽힌다. 이런 과정에서 2000년에는 25명의 음악인들이 모여서 2,000여곡의 찬불가를 심의해 찬불가를 편찬한다.

90년 대 초 불교방송국은 전문성악인들을 모아 합창단을 구성해 활동하다 후원자가 없자 사라지게 된다. 그 후 부루나중창단, LMB중창단, 제니스트 중창단이 차례로 탄생했다. 서울(부루나, LMB) · 부산 · 대구 지도자 중창단 등이 연합해 2000년 대 초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그 후 선생님들의 수준이 향상돼 드디어 오페라단이 구성된다. 단장에는 이정지 씨가 맡고 음악 감독에는 정부기 교수가 맡아 운영했다. 전문가합창단은 시작은 1985년에 구성된 성악동인회로 서울대학교 음대에서 공부한 수법 스님과 시명 스님, 정진 스님과 최조웅, 연정숙 선생이 함께했다. 그러나 수법스님의 입적으로 성악동인회는 자취를 감추게 된다.

안병길(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⑫

도솔산 도솔암

장인성 시인

선운사 도솔암 지장전에는
갑오년에 목이 잘린 동학귀신 말고도
칠산바다에 빠져 죽은 것들이
저승이나 한바퀴 돌아보자며
궁얼궁얼대는 소릴 솔바람이 알아듣고
그것들도 따라서 궁얼대고 있네요.



그림: 이상배 화백

도솔암(兜率庵)-고창 선운사 부속암자로 전국 제일의 지장도량이며, 전봉준 김개남 등이 갑오혁명을 맹약하고 봉기의 횃불을 지펴든 유서 깊은 곳이다.

한국불교 역대 대선사를 엄선 성자(聖者)로 추대하자

한국불교사에는 왜 성자(성인, 대승 득신통대보살, 나한(아라한)가 없는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성자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불교를 중흥발전시킨 역대 대선사중 10-16 대선사를 선정 성자(聖者)로 추대하고 예배공양하도록 합시다.

성자추대취지문

귀의삼보하옵고,
무릇 모든 생명의 존귀함은 각자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적 존재이지마는 그 무엇보다 진공묘유의 세계에서 우주의 진리와 자기 생명의 본체인 본성을 스스로 바로 깨닫고(自覺) 남도 깨닫게 하며 (覺他) 깨달아 행함이 원만(覺行圓滿)하여 타(他)의 길잡이(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계 삼대(三大) 성인을 비롯 많은 성자(聖者) 「성인」들과 철학자들이 나타나 세계인류의 정신적 길잡이가 되고 있다. 부처님이 탄신하신지 2551년, 한국에 불교가 전래된지 1700여년을 맞이하여 불교사를 살펴보았을 때 인도와 중국에서는 부처님의 十大제자외 16성(聖) 500성(聖) 독수성, 1200제대(諸大) 아라한 등 많은 성인을 배출하였으나 한국불교 1700여년 사(史)를 통해서는 한분의 성인(聖人)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불교사에서도 분명 부처님과 조사(祖師)의 지혜(知慧)와 방편(方便)을 갖추어 대오(大悟) 견성(見性) 하신 후 한국불교를 중흥발전시키고 국민의 정신적 길잡이가 된 대성사(大聖師)가 많다. 그들은 대부분 역사와 종교를 초월하여 우리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원효성사를 비롯 의상, 원측, 자장, 도의, 의천, 지눌, 태고, 나옹, 무학, 휴정(서산), 유정(사명) 등 기라성 같은 대선사들이 있다. 그들은 크게 깨달아 대승(大乘)의 신통(神通)을 얻어 (得神通) 대보살(성인)의 경지에 도달하신 분들이라 하겠다. 우리민족도 민족적 자존심과 주체성을 살려 우선 불교내에서라도 불교학자들의 엄선을 통해 이런 깨친 역대선조사들을 공식적으로 성자(성인, 대보살, 나한(아라한)로 추대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정신과 위신력을 빛내며 또 우리 자신들도 성자(성인)의 후예로서 그 같은 위대한 성자(성인)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뜻으로 성자(성인, 대보살, 나한) 추대 운동을 벌이고자 한다.

2007년 4월 27일

사단법인 대륜불교문화 (태고)연구원

한국불교 1700년사를 살펴볼 때 실로 대오견성하신 대승의 득신통대보살과 대선사가 많이 배출되었다고 하겠다.
현존 한국불교사에는 분명 불조의 지혜와 방편을 갖추어 대오 견성하시고 한국 불교를 중흥 발전시킨, 원효, 의상, 도의, 원측, 자장, 의천, 지눌, 태고, 나옹, 무학, 휴정, 유정 등 기라성 같은 득신통대보살과 대선사가 존재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불교에서는 한국승려 김지장법사를 육신보살로, 무상대선사를 500 나한 중에 한분으로 추대하고 있다.

1. 한국불교 승가에서는 조석예불(불공)시, 지심 귀명례(정례 공양), 영산당시 수불 부촉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제대 아라한 하고 이들 성자들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 공양 기도 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 불교에서는 이처럼 많은 성인을 배출하여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예배 공양, 기도하도록 만들었는데 왜 한국 불교 1,700년사에서는 한분의 성인도 대승의 득신통 대보살도 나한(아라한)도 배출하지 못하였는가? 민족적 주체성과 자존심을 포기한 사대주의 망상에서 온 결과란 말인가? 한국불교사에는 오늘의 한국불교를 있게한 한국불교의 중흥조사요 공덕주이신 대승의득신통대보살과 대선사들이 기라성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진실로 이들 성자들은 우리 한국불교 승가에서 저 인도 및 중국의 16성, 500성, 독수성, 1200제대 아라한 보다도 더 못한 존재란 말인가?

2. 한국불교의 구심단체인 한국불교 종단협의회는 한국불교 성자 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불교학자들에게 의뢰하여 한국불교사상 크게 깨달아 깨친 성사로서 한국불교를 중흥발전시켜 주신 10 ~ 16 대선사를 엄선하여 성자(성인, 득신통대보살 나한 (아라한)로 추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한국불교의 중심적 종단인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 종단들은 우선 자체적으로 한국불교성자 추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파를 초월하여 대상을 연구 선정 추대하여 주시고 종단 협의회를 구심점으로 하는 한국불교 성자 추대위원회를 구성케하여 한국불교 전체를 향해 성자를 연구 선정 추대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원은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본 연구원 회의실(무량사)에서 임원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전체의 뜻으로 위와같이 결의하고 제의하는 바입니다.

大輪佛教文化(太古)研究院 任員

대 법 주 慧草 최태영 태고종 종정
증 명 雲山 이규범 태고종 총무원장
증명:이사 一宇 김종문 태고종 원로회의장
南坡 유정동 태고종 승정원장
寶峰 이기남 태고종 원로회부의장
德化 권태순 태고종 원로회의원
雪峰 강남국 태고종 원로회의원
知足 김화기 태고종 원로회의원
고 문 홍승희 (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자문위원이사 度즉 김팔영 전국일붕문도회 회장
普經 문학현 태고종 총무원부원장 대륜화상문도회장
慧崇 김극성 만덕사 회주
德山 곽동호 태고종 북부종무원원로
연구심사위원장 徐閏吉 동국대학교 前대학원장
연구위원장 권기종 동국대학교 교수
연 구 위 원 종 호 박문기 동국대학교 교수
이봉춘 동국대학교 교수
김용표 동국대학교 교수
박경준 동국대학교 교수
장 익 위덕대학교 교수
최연자 원광보건대 교수
박정진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진 월 동국대학교 정각원장
법 현 태고종 사회부장
주명철 동국대 및 동방불교대 겸임교수
정성준 동국대학교 강사
이 사 장 無空無上 서갑생 태고종 중앙포교원장
연 구 원 장
상 임 이 사 大隱 정흥섭 태고종 중앙종회부의장
태고학회장
상 임 이 사 靑峰 강형욱 태고종 사정원부원장
선 림 원 장
상 임 이 사 慧俊 류두현 덕암화상 前문도회장
원 융 원 장
상 임 이 사 常虛 조성민 태고종 제주종무원장
기 획 이 사 慧明 김용기 태고종 동부교구부원장
총 무 이 사 慧惺 이갑봉 덕수사주지
교 무 이 사 光海 송석만 금불사주지
재 무 이 사 龍潭 한근성 법장선원주지
사 회 이 사 性虛 송윤주 황륜사부주지
조 직 이 사 法京 박상인 연흥사주지
홍 보 이 사 古眞 김정애 금용사주지
호 법 이 사 性德 김안대 수덕사주지
연 구 이 사 慧覺 이병태 태고종 경기북부종무원장
慧充 진현국 보광사주지
普賢 이경희 해동불교 총무
閔閏基 정성개발
정인 민선화 용전사주지
여초 홍여초 비구니회 前회장
慧印 任琪植 자성포교원주지
乘芭 혜원정사주지
般若月 박희서 청수주지
慧輪 최옥순 화흥사주지
감 사 覺夢 김혜승 삼론종 부종정
太一 우종곤 영인이엔씨 대표이사

한국불교 승가와 불교「학회, 언론 ,단체」불자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社團法人 大輪佛教文化(太古)研究院 이사장 無空 無上 徐甲生 직인생략

서울 강북구 수유 4동 584-14, 12호 02)904-0081/0016 / 전송 02)904-0083 011-750-0016



4대 세종 영릉(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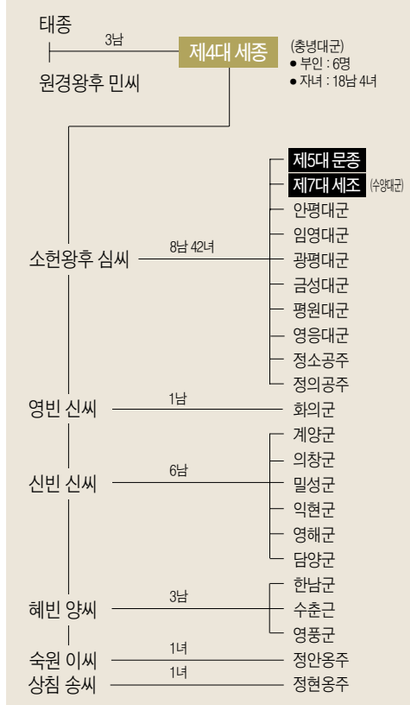
석가모니를 '석씨'로…불교 탄압 절정

척불정책에 승려들 항의…독실한 불자 명황제에 호소도
영릉은 조선 왕릉 최초 합장릉, 예종 때 여주로 옮겨
쇄락했던 신륵사 원찰 되면서 확장, 성종 이후 옛 이름 찾아


남한강에서 바라본 강월헌과 삼층석탑 너머에 영릉의 원찰 신륵사가 있다.

세종1397~1450년, 54세.
재위 31년 6월. 1418년 8월(22세)~1450년 2월(54세)

제4대 세종 가계도




영릉 전경.

"아바마마, 아바마마! 태상왕 전하!"

완전한 영웅, 무결점의 완인(完人)을 우러르고 싶은 것이 민초들의 욕망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욕망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인물은 없다. 그래서 신(神)이란 추상을 조성하기도 하고 부처(각자(覺者))란 실체 구현에 매달리기도 한다.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이다. 세 살 많은 큰형 양녕대군은 일탈의 극치를 달리다가 폐세자가 되고 한 살 많은 둘째형 효령대군은 동생 충녕이 세자에 책봉되자 제행무상을 통감하고 절로 찾아들어 불교에 귀의했다. 회암사 중수를 건의하고 원각사 조성도감 제조(총책임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1465년엔 <바라밀다심경>을 언해했다. 권력에 대한 유혹을 경계하고 효성과 우애가 지극하여 세종~성종까지 여섯 왕을 거치며 91세까지 살았다.

세종 치세 불교는 훈민정음 창제(세종 25년, 1443년, 세종 47세)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 창제 이전 세종의 모습은 이러하다. 세종은 아버지 태종이 죽고 나서 왕위를 계승한 것이 아니다. 태종은 재위기간 중 네 번에 걸쳐 선위파동을 일으켰다. 외척 세력을 제거하고 왕권을 튼튼히 하기 위한 전략이다. 예나 지금이나 선위파동, 탄핵파동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온다. 태종은 52세에 세종에게 왕권을 넘겨준다. 자신은 상왕으로 물러앉아 왕권을 보호하고 왕이 정사를 제대로 처리할 능력을 보이면 권력의 보루인 군정 안정에 주력한다는 계획이었다.

세종은 빼어난 효자, 모범생, 영재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반항아가 아니다. 반항아의 모습은 큰형님 양녕에게서 질리도록 봤다.

세종은 즉위하자마자 부왕의 배불정책을 이어 더한층 불교 억압에 몰두한다. 태종 때 혁파한 사찰과 노비 중에서 완전히 처리되지 못한 나머지를 모두 처리했다. 연례행사인 도성 내의 경행을 폐지시켰다. 성 밖 승려는 성내 출입을 금하고 동진출가를 엄금했다.

세종 6년 4월에는 예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계종, 천태종, 총남종을 합쳐서 선종으로 하고, 화엄종, 자은종, 중신종, 시흥종을 합쳐서 교종으로 만들었다. 이념과 종지에 따른 통폐합이 아니라 80년대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같은 무작위 재단이었다.

남았던 7종을 선종, 교종의 두 종파로 축소한 것이다. 전국에 36개 사찰만 남겨 선종 18사에 전답 4250결, 각 절의 스님 수 도합 1970명, 교종 18사에 전답 3700결, 스님 수 1800명으로 제한했다.

서울 안의 흥천사를 선종의 도회소(총본사)로 삼고 흥덕사를 교종의 도회소로 삼아서 나이 듬직하고 덕행 높은 승려로 하여금 양종의 제반 사무(寺務)를 관장하게 했다. 태종에 의해 전국 사찰이 242사로 축소되었는데 세종 때는 사정없이 줄여서 36사만 남는다. 선교 양종 36사, 전답 7950결, 총 승려 수 3770만 남는다.

종파, 사찰을 축소 폐합하니 거기에 속한 적지 않은 토지와 노비가 국가 재산으로 몰수되었다. 아버지의 뜻, 유학자들의 뜻에 순종한 모범생 세종의 중년 이전 모습이다. 세종조 초반에 두 차례에 걸쳐 불교 핍박에 항의하는 사건이 있었다. 승려들이 중국으로 가서 명나라 황제에게 국내의 심한 불교 박해 사정과 이에 대한 구원을 호소한 일이 있었다. 명황제 성조(成祖)는 독실한 불자였기 때문에 그 호소가 다소 효력이 있었다. 세종은 그 사건으로 배불정책을 늦추고 명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잠시 회유책을 쓰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은 불교에 대해서 참으로 인색하고 용렬하기까지 하다. 척불의 기록은 세세한 것까지 놓치지 않지만 불교의 기여는 1단짜리 기사로 취급하거나 외면한다. 국시, 왕의 의지가 절대적이던 시대의 유물이다. 불교 탄압의 절정은 성군 세종 때다. 석가모니를 석씨, 부처를 불씨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세종이 묻힌 영릉(英陵)은 방문객이 가장 많은 능이다. 주변 볼거리가 많아 여행, 소풍, 산책의 명소다. 수려한 남한강, 신륵사, 영월루, 명성황후 생가, 목아불교박물관이 머잖은 거리에 있다. 성군의 능답게 능역 조경 또한 일품이다. 왕위에 있었으나 능호를 얻지 못한 연산군묘, 광해군묘와는 확연히 다르다. 그들의 묘에는 관리소는 고사하고 게으른 공익요원 한 명 없다. 역사의 심판은 소멸 시효가 없다.

영릉이 처음부터 경기도 여주에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 1446년 왕비 소헌왕후가 승하하자 헌릉(서울 서초구 내곡동) 서쪽에 조성하여 그 우실을 왕의 수릉으로 삼았다가 1450년 세종이 승하하자 합장했다. 조선 왕릉 최초의 합장릉이다. 헌인릉이 있는 대모산은 육산이다. 물이 많아 능지로 부적합하다. 그래도 효성 지극한 세종은 아버지 태종 곁에 묻히고자 했다.

세조 때 영릉이 불길하다는 논의가 대두되었으나 서거정 등이 반대하여 옮기지 못하고 예종 1년(1469)에 현 위치로 천장했다. 20년 동안 아버지 곁에 있다가 떠난 효자의 심정이 비통했을 것이다. "아바마마, 소자는 떠나기 싫사옵니다. 망극한 불효를 어찌하오리까!" 세종의 탄식이 흘뿌려진 옛 자리에는 흔적조차 없다. 현재 국정원 영내에 영릉이 있었다. 돌조각 하나라도 흔적을 확인하고 싶어 알음알이로 국정원에 연락하니, "아무 것도 없다, 사진 찍는 것은 절대불가다" 라는 대답이다. 천장 때 그 자리에 묻었던 옛 석물들은 1973년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가 발굴해서 청량리 세종대왕기념관에 전시하고 있다.

올해는 영릉 제향일(4월 8일)에 맞춰 방문했다. 여느 제향보다 성대하다. 참반원(제향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어림잡아 1000여명이 넘는다. 역시 대단한 세종대왕이다. 탄신일에는 주무 장관이 참석하고 한때는 대통령도 참석했다.

세종은 6명의 부인에게서 18남 4녀를 생산했다. 아들 숫자로는 조선 역대 왕들 중 넘버원이다. 그러나 부모복은 있었지만 자식복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두 아들(문종, 세조)이 왕위에 올랐지만 그들의 이름에는 어둠의 그림자, 피비린내가 엉겨 있다. 안평대군(계유정난 연루 36세에 사사), 광평대군(20세 요절), 금성대군(단종 복위 모의 32세에 처형)도 마찬가지다. 복업 짓는 일에 소홀해서 그런가.

머잖은 곳에 영릉의 원찰 신륵사가 있다.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의 말사다.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한다. 사세가 쇠락하다가 1469년 영릉의 원찰이 되면서 절이 확장되고 이듬해 예종 비 정희왕후가 보은사로 개칭했다. 세종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을 담았다. 사찰이 유생들의 유흥장이 되고 승려가 천민 취급 받던 시대에 원찰로 정해진다는 것은 행운이다. 성종 이후 성리학이 득세하자 왕릉의 원찰 제도가 없어지는 풍토가 되어 신륵사는 옛 이름을 되찾았다.

글=이우상(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 =최진연(사진작가)


영릉의 무인석.

신비의 인도산 자수정
새봄 행운의 보석 단주와 목걸이 수입



혈액순환.기억력증진.어깨통증에 효과
살아숨쉬는1등급자수정.목에걸면 눈피로없어

살아있어 행운과 건강을 주는 보석이라는 인도산 자수정이 국내 처음 반입됐다. 자수정은 본초강목(本草綱目)등 동서양을 막론하고 병을 치료하는 보석으로 대체의학에 이용된다. 생명 친화적 파장은 수백만(32786KHZ)의 규칙적인 에너지를 자동으로 방출한다. 따라서 자수정이 내뿜는 생기는 체내의 유해독소는 제거시키고 몸의 반란스를 잡아주어 잠재파워를 향상시킨다. 천연 자수정은 저온에서도 다량의 노폐물을 땀으로 배출하여 체내의 신진대사를 활성화 시킨다고 기록되어있다.

금번 반입된 자수정은 1등급으로 색상과 크기를 일정하게 가공한 단주와 목걸이 세트로 목에 걸고 다니면 세련되고 품위 있는 보석으로 혈액순환, 기억력 증진,어깨통증,신경통에도 효과가 있다. 가격은 58.000원으로 불자님들의 소중한 선물로도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특급등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 / 전화 (02)734-7300 농협 360-12-046446 (최능우)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대웅전 완공 기념 파격할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5만원(45% 할인)
바로보인 선문염송 1~10권 : 105,000원(30%할인)

·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0권 출간)
· 영원한 현실
· 선을 묻는 그대에게 (전10권 중 2권 출간)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대한민국의 최초" 이동식 전통한옥!!
언제 어디서든 원하시는 장소에 이동해 드립니다


※본 제품은 의장등록 및 실용신안 출원제품임
(2007년 한국불교박람회 출품작)

조립식 건축 | H-빔 제작 설치 | 이동식 주택및 팬션 | 전통한옥 철골조 공사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다라니 하우징만의 기술적인 만남!!!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시공해 드립니다.

※ 사찰의 부속건물로서, 종무소, 요사채, 삼성각, 기타 등등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 본사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83-4
TEL 031)594-7488 / FAX 031)594-2054 / 017-313-1474
E-mail : kyungki3333@naver.com
홈페이지 : www.drnhousing.co.kr

이동식 전통한옥(다실채,사랑채)건축 전문업체
다라니하우징


양촌 법계사 신중탱화(동)
양촌 법계사 삼세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보응당 문성→회응당 상균→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011-743-5167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문의 : TEL 02)2004-8214~6, 02) 732-1522 , FAX 02)737-0696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역학 수강생 모집
명리 · 작명 · 자미두수 · 택일 · 풍수
(3개월 · 6개월 완성)
기초반 · 중급반 · 연구반
※직장인을 위해 저녁반도 운영합니다
032)508-0381
019-9007-9746
불광사 박혜암 합장

역학 속성지도
매화역수 주역 명리학 성명학
실제감정위주로 가르쳐 드리고
문서 기증함
(출장개인지도가능)
도성암 점법스님
010-7443-3060

산삼과 비교되는 신비의 명약 봉삼
혈액순환 · 항암효과 · 기타 등등 특효
구입문의 041)734-2680
010-2243-9776
9년의 대장정
매월 약사재일 108순례 방생
산사체험, 다이어트 교실-수시접수

청정다도해 나로도
자연산(100%)수산물판매
꽃게 새우 대하 농어 민어
생선회 장어 오징어 멸치 양태
서대 문어 제수용 등
등대지기
(www.enarodo.com)
061)835-7735

육임 백법 강의 수강생모집
지금까지 누구도 강의 하지 않았던 백법 강의를
1월부터 공념 학당에서 5개월 과정으로 강의 하고자 합니다
육임에는 아주 귀한 백법이라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숙지하면 누구도 사주 없이도 무슨 이유로
온 것인 줄을 알 수 있는 비법중에 비법입니다
문의: 02)793-7333 http://www.saju79.com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연꽃그림주문
사월초파일 각종보시용
한지나 다포에 원하는그림,
글씨 크기로
연꽃그림 전문 서화가
018-588-5698

역학개인지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지방인 숙식제공)
051)818-2358
010-5345-2358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 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연꽃 분양
논이나 큰 다라에도 가능하며 심어도 드립니다
분양보시금 전액은
불사 시주금으로 사용됩니다
010-2511-1188

육효 기문 사주

사주(일진법)	5월29일(화) 낮2~5시 첫강의
사주(용신)	5월30일(수) 낮2~5시 첫강의
육 효	5월31일(목) 낮2~5시 첫강의
기문둔갑	6월 1일(금) 낮2~5시 첫강의

* 첫 강의에 한해서 무료공개 강의합니다
* 각 과목 3개월에 확실히 책임완성 지도합니다
www.beumchun.com
02)389-6597(연신내)

사주 명리 구성학 성명 택일 궁합 관상 풍수
빙의 전생 영가 치유비법
역학개인지도,숙식제공
보현사 학산철학원
054)383-4569
016-717-1592

빙의 퇴치, 구병시식 영가천도, 영혼결혼
www.jijang999.com
www.jijangsw.com
비법전수 부처골 지장선원
054)383-8553
011-9585-4908

빙의 현상, 신끼, 무병, 정신질환, 두통, 알콜중독, 만성질환등
재물을 차린지 않고 초능력의 힘 기(氣)로써 빙의된 조상이나 태아, 타인영가, 잡귀신등 몸이 고달프고 가정불화, 우환 등 특별한 기(氣) 천도재로 병고 치료함
특별한 능력을 갖춘 청정 비구승입니다.
수행도량을 불사하거나 보시하실 인연을 찾습니다.
055)261-1230
011-586-6091

금강경, 원각경, 참선지도 승속관계없이 견성의 실체
매주 토요일 2시 법문
지도법사 : 적파명등 합장
행자 및 동자 모집
문의 : 055)972-3843
011-9393-4965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지리산 삼화선원

회심곡.천도재.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秘 法 전 수
뭇 광고에 접해보면 생각과 다르지요
이 곳에 오시면 속지 않을 겁니다
1. 삼혼칠백의 작용법 (천도)
2. 달마 사연 장중 도법 (윤회)
3. 도인 침술법 (귀신병)
4. 빙의 제령법 (정신병, 체면학)
5. 기공법 (레이키, 약손)
*조종파, 스님 누구나 배워 보세요(보시료 약간)
055)573-7832
010-3189-3525
경남 의령 해용사 -법 경-

조용한 도량입니다. 공부나 요양,기도 하실분 모십니다
(월 35만원) 청강사
016-9506-5706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 (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지장간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 못 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 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전화해도 받지 않을 경우는 상담 중입니다)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모십니다
· 공양주보살
· 찻집보살
· 종무원(남 · 여불문)
<강화 전등사>
032)937-0125

부전스님(비구) 모십니다
(경기도 양주)
▷자격 : 승가대학졸업
02)352-6406

조용한 산사에서 천일 기도하실
스님 · 행자 · 처사님 ·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011-561-6644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주
054)744-7008
011-744-1650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지역
011-527-5908

· 행자스님 모십니다 ·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경남)
055)854-1488
017-856-3617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011-9491-9227

조용한 암자에서 성실하고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55)863-4143
011-392-688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강원 강릉시 현덕사
033)661-5878
016-350-1193

가족같이 지낼 비구니 스님 · 행자님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원주)
033)731-3284
017-311-7786

명산에서 일년 기도하실 스님 모십니다
011-696-8500

부전(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011-567-2626
051)336-9922

1600년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가는
조계산 선암사에서는 일정기간 습의,
교육 후 강원, 율원, 선원, 염불원 등에서
교육과 수행을 통하여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예비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061)754-5247(종무소)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태고총림 선 암 사

선 · 기공 전수 받으실 분
사찰운영에서 방편이 없으신 분 100% 활용할 수 있음
◆기간 : 주 3회 3개월
(스님, 법사, 선 ·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일반인도 가능)
※ 금번 생활불교 선 · 기공 연합종회에서는 종도 및 간부스님을 모십니다. (간부스님은 특별 혜택이 있음)
사)생활불교 선 · 기공 연합종회 총무원
053)754-0082 / 011-549-8130

행자(예비스님)모집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수행 ·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행자문의 : 010-2488-8228
▶ 신입생 주 · 야간반 모집 ◀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제한 없음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직강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49재 · 천도재 · 불상점안 집전
(바라 · 작법무 · 회심곡 · 합창단 · 전통무용)
아! 알았도다. 내가 곧 탐 · 진 · 치
이 몸이 삼독인 것을...
영산회상 의식 포교단(홈페이지:www.천도재.kr)
051)557-1130 / 011-482-2091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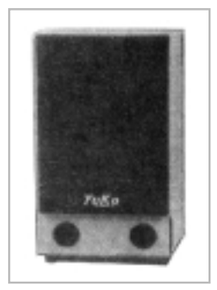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엄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법당전용스피커 YM-520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동서양식 레이키(靈氣)가 왜 화제인가?
동서양식 「레이키(靈氣 · Reiki)」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고 생활의 각 방면에 氣에너지를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이키는 이미 전세계 50~60개 나라에 널리 보급돼 있지만 우리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에서 전수해 드리는 동서양식 레이키는 여러가지의 레이키 기법을 융합한 것이어서 아주 쓸모가 많습니다.

1.동서양식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기간 2~3일, 교육비 70만원
▶단체교육 : 교육기간 2일(매월 1회 · 토,일요일) 교육비 55만원

2.카루나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시간 4~5시간 정도, 교육비 3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야 배울 수 있습니다.

3.지도자 소개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운영자인 저(박희준)는 번역가 · 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7년 이후 외국에서 여러가지 레이키를 배워온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 입니다.

인터넷 : www.Reiki.co.kr(현대생활레이키)
자매홈페이지 :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4~6,9 / 02)732-1522 (直) ·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수요일 · e-mail : onlymaum@buddhapia.com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22평 외 33평
● 요사 : 130평
● 부지 : 1000평 (600평 국유지)
● 가액 : 15억

● 위치 : 경남 마산지역
● 법당 : 30평
● 명부전 및 요사 : 300평
● 부지 : 1200평 외 1500평
● 가액 : 18억(급양도가) 사정상 최저급매가격으로 꼭 필요한분 직접상담요

● 위치 : 경남
● 법당 : 25평
● 요사 : 40평
● 부지 : 350평
● 가액 : 7억3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토굴터안내

● 위치: 경남산청 지리산자락
● 암자,요양원,주택 등 기타용도 가능한 작은계곡 접한 아담한 토지 1000평
● 가액:4천만원

011-570-1317

포교당안내

● 위치: 속초 중심가 최요지 4층건물 중 3층 건평 60평
● 완전 황토방 시설 완벽 (법당20평,방3칸)
● 환자치료 및 역학하시는 스님 좋은 환경임 (좌욕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 4천만원(보증금1천만원포함)
※ 꼭 하실분만 연락요망

010-4631-76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진접면
● 대지600평, 법당25평(단청), 요사채30평, 20평
● 상담 후 가격절충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 바람

010-4583-2035

포교당안내

● 위치: 원주 문막읍 시내버스 정류장 앞
● 법당 : 25평(2층) 방2, 주방, 샤워장. 시설비 500만원
● 보증금300만원,월25만원
● 특징:사람 내왕이 많은 중심지 역학하시는분에게 최적지

033)731-9277
011-9483-9221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3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60평
● 가액 : 8억3천

● 위치 : 경기도
● 부지 : 3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6평
● 가액 : 3억5천

전국 사찰 · 포교당 · 부전스님 ·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33-0108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지하철 4호선 상계역부근
● 건물 : 2층 법당, 접견실 34평 3층 방3, 주방, 세면장
● 보증금 11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1-888-0130

사찰(급)안내

● 위치:경춘국도 (서울에서 약 50분거리)
● 부지:2,000평
● 건물 5동(조립식 포함)
● 가액: 16억
● 특징: 야외법당, 진신사리탑(전망좋음)

033)261-5285
010-2871-528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통영
● 법당 : 조립식 15평, 요사1동, 사무실1
● 보증금 없이 연240만원 가액없음, 설비일체 3천만원
● 특징 : 역학 보유자 최적지

010-7156-4855

포교원(임법당)안내

● 위치: 충남 아산시 (온양터미널 5분거리)
● 대지:60평 건평25평(방3,욕실)
● 삼존불 봉안, 시설일체완비
● 가액 : 9천 5백만원

041)533-0853
010-3011-0853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부산근처 양산
● 대지 : 700평
● 법당 : 35평, 지하법당 40평 납골당 1500기 요사, 방사 10호실
● 산자락속의 마을 도량 정리 완벽
● 가액 : 7억

※ 부산시내 사찰 및 토굴 소액 5천만원 ~ 20억 다량확보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6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
● 대지 600평, 밭 350평 1층 요사채 30평 2층 법당 30평(단청 완벽)
● 삼성각 25평, 요사채 27.5평 조립식 20평, 시설완벽
● 석탑, 석불(미륵존불 2분)
● 가액 6억원

016-204-1668

사 찰 안 내

● 위치:경남 하동
● 부지 790평, 법당 25평
● 요사채2동,창고,주차시설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 별장용 명당 각종채소밭 있음, 관상용 양어장
● 가액:2억

010-3138-4897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 (표충비각 인근) 국도변 위치
● 대지 : 약 200평
● 요사채 60평(적벽 슬라브)1동 초고급시설, 법당 20평 1동
● 태양열, 단독 지하수 완비 사찰비품 및 전자제품 일절
● 가액 : 2억1천만원 (은행융자 7000만원 포함)

055)356-6777
010-5883-5005

사찰(급)안내

● 위치:부산
● 대지:60평, 법당 30평, 요사 30평
● 사정상 급매함
● 가액:1억 7천만원 (절충가능,은행융자 3천5백만원포함)

011-9543-0226

사 찰 안 내

● 위치:경북구미시
● 대지:800평
● 법당 24평, 요사채 45평 법당, 요사채 집기 일체
● 요사채 에어컨 설치, 심야전기보일러
● 하천부지사용, 주차장 완비
● 가액:2억 5천만원

016-818-3088

포 교 원 안 내

신축 불사관계로 급 안내함

● 위치: 경기도 안성시 2층 건물
● 법당 10평, 방 2개, 주방 및 화장실
● 옥상 20평 사용가능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650만원
● 특징: 시외 및 고속버스터미널 앞 철학하시는 스님, 법사님, 보살님 최고 위치

017-297-4097
043)211-0579

포교당 양도안내

● 총평수 : 38평(실평수 45평) 25평(최고의 시설로 장엄하였음)
● 삼존불 및 지장보살, 후불탱화, 신중탱화
● 방사 : 방2, 거실, 욕실, 화장실2, 창고 등
● 특징 : 청정수월도량, 교통편리, 인근에 밀리오레백화점, 버스터미널, 농수산물 시장 등
● 인구밀집 지역으로 포교최적지임
● 가액 : 1억원(전세 5천만원) 월세 : 보증금 1천만원, 월 45만원

사찰전문용역 011-789-2255
금 강 기 획 011-279-3538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하동
● 법당 : 20평(목조건물) 등기 200평,대지 320평 주차장100평 요사채1동, 사건물1동
● 가액 : 7천만원 (전세가능)

010-7701-254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립공원 내)
● 대지 : 208평(조경완결)
● 법당 목조건물 20평, 삼신각 4평(신건물)
● 황토방 한옥건물 15평 1동, 요사채 30평(신건물)
● 각방 욕조완결, 지하수, 마당에 연못있음
● 절앞에 큰 저수지가 있어 풀좋고 경치좋음
● 급 양도 및 전세

011-575-0396

포교당 안내

● 위치:부산 금정구 금사동 금용암
● 평수:40평 방2, 화장실,부엌 삼존불 탱화
● 가액:보증금 약간 월 30만원

051)529-3302
051)863-7198
010-8322-5858

암자안내

● 위치:구미시 근접 경북 칠곡군 약목면
● 임법당, 연꽃연못, 넓은정원
● 임대보증금 300만원, 1년300만원

017-813-9126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세 천하절경 강원 화천
● 부지 : 3500여평 대웅전(칠포단청) 30평
● 삼성각1동, 노천 청동지장대불, 돌탑, 납골당 3동, 2층기 아치가공 납골식장 50여평, 요사채 2동(현대식)
● 심야전기, 2층 주지실(20평 별도)
● 가액 : 9억

010-6777-4449

포교당안내

대구 경북 도청옆 포교의 중심지

● 대도로옆, 신축건물 90평 A/V有
● 아미타 삼존불, 신중, 삼성 탱화 사천왕, 500인등 있음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 최신식시설, 냉난방완비, 무선앰프
● 보증금 2000만원, 월 125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모든 시설 완비 (전세로 전용가능)

연락처 011-820-4617

산속 사찰 임대 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산사
● 내 절처럼 관리하고, 부처님 전법을 수행하며 사실 스님을 찾습니다
● 대웅전1동, 산신각1동 용왕전1동, 요사채 2동, 방 7칸
● 전세 : 1억 돈이 부족하신분께 월세 가능

033)661-9992
011-422-0086

전원주택 농장 별장

● 위치 : 경북 성주읍
● 황토 전원주택, 심야전기 전2000평, 대추나무 심어져있음
● 창고 40평(1동)
그림같은 풍경, 전부 2300평
● 가액 : 5억3천만원

011-9853-384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 유성시장 앞
● 47평 2층건물 (옥상사용)
● 보증금 500만원 월 37만원
● 시설비 1,200만원 모든 시설 완비

스님 이민으로 급매(몸만 오세요)

042)825-3020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 부지 1290평
● 건물(3동) 53평, 25평, 17평
● 가액 : 3억 8천만원

031)533-2420
010-6317-2741

포교당 안내

● 위치: 창원시(창원역부근)
● 법당, 삼존불, 공양간 완벽조성 2층 50평
● 전세 1천만원, 월세 55만원

055)299-3536

포 교 당 안 내

● 위치: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건물 중 2층 45평
● 삼존불, 각단탱화, 산신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월40만원 시설비:2000만원 가격절충가능

031)405-4181
010-6321-1639

포교원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중심
● 대지 80평 한옥 임법당 20평
● 요사채 스라브 15평
● 양도가 : 1억1천만원 (전세도 가능함)
● 주인보살 직접
● 절충가능

010-9311-6788

어렵게 시작하는 법사님, 보살님께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상가주택 밀집지역 1층 20평 법당 1개 방2개 살림가능
● 산신탱화 문화재인작품 5×10자 고급 쌍호신 산신님 5자 단청고급,법단 원목9자
● 총 인수가: 8백5십만원 보증금:500만원 월세 26만원 시설비 350만원 역학,철학,보시는분 현재운영중

010-6411-2882
(일요일 답사)

천하절경명당터청정계곡접

● 서울에서 1시간 30분 2시간 소요 ● 위치:강원도
● 1만여평부지내 건물 10여동
● 모든것 완전구비 30억 이상 투자, 사찰역사 300여년, 개인소유
● 가액: 17억
※중개인 전화 사절

017-373-599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송
● 대지 370평,건평 30평
● 신축1동, 구옥 1동
● 국도 인접, 개울물 흐름
● 가액 : 1억3천만원

010-2880-9856
054)873-8644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공주시 오곡동
● 대지 : 660평 건평 : 법당 26평, 산신당17평, 요사채10평
● 양옥신축6년 이름 난 약수와 정원이 좋음
● 싯가 3억 6천

010-424-325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상가3층
● 평수 : 70평
● 법당, 삼존불, 산신각, 화장실, 주방별도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011-252-6116

사 찰 안 내

● 위치:영천 · 건천 IC에서 20분
● 종교부지 350평, 임야(뒷산) 대웅전 10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용왕당, 집기비품 등
● 가액 : 1억5천만원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6-831-3022

사찰(급)안내

● 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 대지: 237평
● 법당, 요사채, 공양간 등 3동 (돌 미륵부처님, 사리탑 모셔져있음)
● 가액 : 2천만원, 시설비 3천9백만원 (합 5천9백만원)
● 절충가능 (사정상 시세이하 계산합니다)

064)799-5617
010-6215-8784

사찰전세 및 월세안내

● 위치: 정동진
● 보증금 1000만원, 월15만원
● 넓은 텃밭, 모든시설완비

● 위치 : 주문진 바닷가 옆
● 방5개, 창고1개
● 보증금 500만원,월25만원

011-9918-5251

사찰 터 안내

● 위치:부산 포교당 최적지 수영구 광안동 수영지하철역 도보로 5~6분
● 대지 : 98평 (실사용평수 100여평) 벽돌 슬라브 건물 35평(구옥)
● 가액 : 2억9천만원

010-5084-0108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시 구포 1동 구포시장
● 평수 : 약 50평 (2층건물중 2층)
● 버스정류장, 대로옆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4천만원(절충가능)

010-2563-5550

기도 토굴 안내

● 위치:서울 불광동(북한산)
● 공부하는 스님이나 법사, 보살에게도 좋은곳
● 평수 3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35만원 시설비 약간
● 현재 스님토굴로 사용중

02)352-981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대명동 (구남여상, 굿모닝병원 중간대로변)
● 4층 건물중 2층 42평
● 삼존불 탱화시설 완벽
● 보증금 5백만원, 월45만원 시설비 1천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0-9720-9901
011-839-3881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생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알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천면
● 종평수 : 343평
● 가액 : 5천만원
● 땅 230평
● 가액 : 5천만원
● 비구니스님 적합, 계곡있음

010-9267-332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종로구 종로5가
● 평수 33평, 법당15평, 요사, 방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2)747-9122

속리산이 맞닿은 청화산의 방화동 의상대사가 불통참선하시던곳 계곡이 수려함(쌍용계곡이 접함)

● 대지 : 밭 2541평
● 가액 : 6억 5천만원
● 주변 국유지 불사하실 분도 원함

011-9588-30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백운산자락
● 대지 : 362평, 건물 : 20평 (목조한옥 임법당 포함)
● 가액 : 상담 후 결정
● 자연경관 수려하고 앞에 계곡이 있음. 교통편리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7100-0357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밀양 IC에서 10분 거리)
● 대지 235평,목조 기와지붕 단층 법당(35.10평방미터) 블록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요사채(67.145평방미터)
● 산신각 용왕당 사찰내부에 있음 도로 시멘트 포장,
● 사찰 내부 주차 10여대 가능
● 가액 : 2억3천만원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요망)

010-6782-2916
054)373-2916

사 찰 안 내

● 위치 : 남원시 주천면 지리산 밑 남원시내에서 5분거리
● 평수 : 2,000평
● 대웅전 20평, 별채 20평, 산신각, 독성각, 요사채(조립식) 50평, 심야전기보일러
● 특징 : 송림이 울창하고 사철 마르지 않는 샘이 있음
● 가액 : 2억5천만원(전,월세가능)

063)625-9992
011-411-050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 (마산, 대구, 창원 인접)
● 평수 : 1400평
● 법당, 칠성각, 용왕당(연못), 요사채 총 100평 이상
● 가액 : 3억5천만원 ※꼭 필요한분만 연락바랍니다

010-2592-1523

토 굴 안 내

● 위치 : 전남 화순읍 10분거리
● 대지 : 90평
● 법당 : 8평(신축)
● 가옥 : 21평 (신축, 남향, 적벽돌 구조)
● 불상 · 탱화 · 인등 · 불구 드림
● 구봉산 정기가 모인 혈처, 교통편리
● 일상생활하면서 기도, 참선수행하기 좋은 마을 끝 집
● 가액 : 6100만원

061)373-4987
010-4670-6987

불교용품으로 '마음' 전하세요

부처님 오신 날 · 가정의 달 선물 고르기

기념일을 기억하고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네 삶에 쉼표가 되어주는 일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맞아 마음의 선물을 준비해볼 때다. 불자들에겐 일 년 중 가장 뜻 깊은 날인 부처님 오신 날, 도반들과 정성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기억에 남는 일일 것이다. 불교적인 색채가 듬뿍 묻어나고 신행에도 도움이 되는 선물들을 모아봤다.



■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나길-자녀에게

어린이날, 그냥 지나치자니 섭섭하고 무언가를 사주자니 마땅한 것을 찾기 힘든 것이 바로 중 · 고등학생 자녀들 선물이다. '어린이' 티를 벗고 어엿하게 커가는 자녀에게 건강을 기원하고 공부에 도움이 되는 선물을 건네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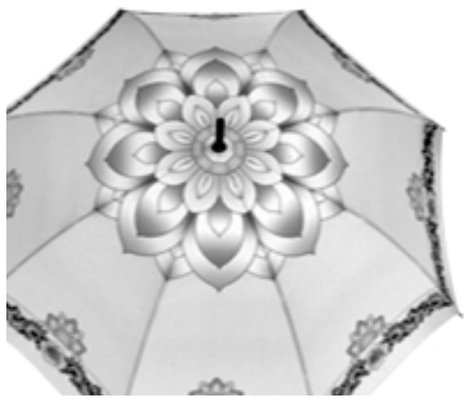
아침 잠 많은 자녀에게는 알람시계를 건네 보자. 스스로 일어나는 버릇을 들일 수도 있고 동자승이나 연꽃문양이 그려져 불교에 대한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단청문양알람시계가 1만2000원. 준비물이나 해야 할 일을 자주 잊어먹는 자녀의 책상엔 메모꽂이를 두는 것도 방법이다. 다음 날 해야 할 일이나 중요한 일 등을 메모해서 꽂아두면 잊어먹는 일이 없다. 메모꽂이 6000원. 연꽃문양 보드는 1만2000원.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는 수험생 자녀에겐 은은한 향이 학업 능률을 높여주기도 한다. 보리수나무로 만든 목각케이스에 120여 개의 향이 들어 있는 음관향(音觀香)이 3만원.

■ 감사의 마음 담아-부모님 선생님께

부모님과 선생님께 드릴 선물을 고르는 일은 늘 고민스럽다. 비싼 돈 주고 마련한 선물이 받는 사람에게 오히려 부담스럽거나 필요 없는 물건이 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차(茶)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보이차나 연차가 적합하다. 자사호로 유명한 중국 이싱(宜興) 지역의 작가가 제작한 수공예 자사통에 담긴 보이차는 8~12만원 정도다. 궁정보이차는 120g에 8만원, 동흥보이산차는 200g에 12만원 선이다. 연씨의 꽃눈(배아)을 덖어 만든 지족연차는 성질이 따뜻해 누구나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다. 40g에 3만5000원.

최근 수행은 물론 건강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절 수행을 권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굳이 불자가 아니라도 건강을 지키는 방편으로 절을 해 볼 수 있도록 절 수행 방석과 108염주를 선물해 보자. 화산석의 일종인 희담석(稀潭石)으로 만든 108염주는 3만8500원. 면과 목화솜으로 만들어진 방석은 12만원.



향꽂이 역시 종교와 크게 상관없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이다. 뿔향을 피울 수 있는 화산석 모양의 향꽂이는 자연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 인테리어 효과도 준다. 화산석 뿔향 향꽂이 10만원.

전자파를 흡수하는 기능이 있는 침향으로 만든 핸드폰걸이는 3만5000원이고, 6월부터 시작되는 장마를 대비해 하나쯤 마련해 두면 좋을 연꽃무늬 우산은 2만2000원이다.

■ 성불(成佛)하세요-도반에게

절에서 자주 만나는 도반에게도 작은 선물을 전해 부처님 오신 날을 함께 기뻐하고 마음을 나눠보자. 도반에게는 비싼 선물보다는 염주주머니나 초, 교통카드 등 저렴하면서도 신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물을 고르는 것이 좋다.

절에 자주 다니는 도반에게는 가방 안에서 어지럽게 얽히는 염주를 정리하고 비닐 봉투에 담아가던 공양미를 정갈하게 담을 수 있는 염주주머니와 공양미주머니가 실용적이다. <반야심경>이 새겨진 염주주머니와 공양미 주머니는 각각 6000원. 천연 약쑥이 함유된 양초는 오랜 시간 켜둘 수 있고 공기도 정화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지름 4.6cm, 길이 25cm의 약쑥향초 50개가 5만원이다. 연꽃과 달마 등이 그려진 교통카드도 인기다. 충전용 교통카드는 핸드폰에 걸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6000원. 여수령 기자

은은 향 수험생 자녀 학업 능률 높여
보이차 · 침향으로 부모님께 건강을
도반에겐 교통카드 등 실용적인걸로



서울노인복지센터 '孝' 행사 다채
무료건강검진 · 장애 어르신 등반 등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일문)는 가정의달 5월을 맞아 무료급식사업 후원과 건강검진, 청각장애어르신 등반대회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나눔의 등 축제-효(孝)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5월 25일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서울 종묘 일원에서 진행된다.

5월 12일에는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남성 어르신 8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립선 질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무료검진과 건강강좌를 여는 '효도 건강검진'을 진행한다. 19일에는 KB국민은행 봉사팀과 함께 '탑골 탁구대회' '어르신 구두 닦아드리기' '청각장애어르신 등반대회' 등이 개최된다.

22일 오전 10시 종로구 종묘 일원에서 열리는 제1회 전국노인자원봉사축제에서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이 문화재 모니터링 시연활동을 펼친다. 23일 밤 9시에는 서울노인복지센터 강당에서 문화공연이 있는 센터 후원의 밤도 열린다. 여수령 기자

인류 문화속의 茶

36. 근대의 차

차가 일본인의 생활 속에 정착하게 되기까지 시대마다 많은 변화를 겪는다. 특히 막부에서 1차 세계대전까지 국내 · 외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국내적으로는 다법(茶法)이 출현되어 신분 정책에 영향을 받으면서 다풍(茶風)이 전개된다. 다도는 메이지 유신 후에 여성들에게도 개방된다. 종전의 남성과 쇼군 중심에서 여성 · 문인 · 묵객 중심으로 유행하게 된다.

외적으로는 19세기 무렵 아직 유력한 공업제품이 없었던 일본이 생사와 차를 생산 수출하여 획득한 외화를 기초로 근대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다. 일본 다업 발전의 원동력은 무역을 위한 것으로서 해외시장 시점에서 대략 90년 정도 밖에 경과되지 않은 일이다. 일본의 차는 무역에 의해 문화적 측면은 버려지고 자본주의 경제상품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 무엇보다도 식생활의 서양화 간편화가 진전되었고 다양한 경쟁음료가 출현하면서 수요가 심각하게 낮아졌다. 이런 경제사회의 환경 속에서 전통을 의미하는 일본차의 존재는 어떻게 될까? 일본은 계승되어 온 일본의 차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의의를 부여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때의 키워드는 문화와 건강이 되었다. 국민 생활과 활력 있는 사회 실현에 꼭 필요한 것이 되어 상호간의 연대감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정부는 일본을 대표하는 차 문화 의미를 다시 평가하여 새로운 차 정책을

정보 수집과 박람회 통한 선전으로 다업 발전
새로운 제다 기술 개발로 '전차' 탄생 큰 호응

정보의 추진과 박람회를 통한 선전활동 덕분이다. 질이 떨어지는 제품은 정부에서 직접 단속하여 품질 개선시켰다. 뿐만 아니라 다원 개발을 위해 차 기술자들을 육성하기 시작한다.



수출용 차 상자.

한편 1차 세계대전은 일본차 무역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1914~1918년까지 4년간의 평균 총 수출량은 1914년 이전의 15년간의 차 수출량보다 많다. 이러한 차를 수출하기 위한 큰 배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수송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다. 비용이 높아지자 1차 세계대전 말에는 질이 떨어지는 차가 나타나 서서히 차 수출이 쇠퇴하기 시작한다. 직접적인 원인은 최대 시장인 미국에 인도, 실론 차가 동시에 경쟁 상품이 되어 일본 차 수출에 큰 타격을 준다. 미국 시장에서 광고 경쟁의 실패로 인하여 결정적으로 일본차는 수출상품으로서 역할이 끝났게 된 셈이다.

일본의 차가 대중 음료로 보급된 것은 세계 1차 대전 후의 일이다. 현 펼친다. 차 생산업자들은 많은 돈을 투자하여 생산량을 늘린다.

하지만 해마다 인건비와 모든 물가가 상승으로 차 값이 오르자 정부는 차의 가격을 동결한다. 많은 돈을 투자한 차 생산업자들은 결국 수지가 맞지 않게 된다. 또한 특정한 차사(茶師)에게만 허락되었던 차 재배 방법이 근처 농민에게도 차를 재배하는 특권이 부여된다. 차사들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다. 차사(茶師)들은 새로운 제다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어린 차 잎만을 따서 뜨거운 물에 쪄서 만들어서 건조를 시킨다. 즉 마시는 방법만이 아닌 차를 만드는 방법에서도 격식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차는 종전의 갈색 차에서 아름다운 연녹색으로 변하게 되었다. 단맛이 있고 향이 진해진 오늘날의 전차(煎茶)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지식인 사회에서 이러한 전차는 붐을 이루고 환영을 받게 된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성수철학원 을 입력하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일시불은 135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 (예금주 : 이하림) 카드결제 가능함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사해불자 여러분에게 고하나이다

삼보에 귀의하옵시고

제방의 고승대덕 큰 스님들과 사해불자 여러분!

경남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672-1번지 소재의 반룡산 모은사의 신도들이 우리 불법문중(佛法門中)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세속인도 할 수 없는 일을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정 장모스님과 총무원장 이모스님 등이 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분노하여 여러분에게 고합니다.

모은사 절은 96년 9월 14일 대한불교 법화종에서 탈종하여 96년 9월 23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에 입종하였으나,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과 종지 종풍이 맞지않아 99년 3월 13일 탈종하여 현재 대한불교 일붕선교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대도 일붕선교종 지도부는 07. 2.19경부터 우리 모은사 절을 소유하려고 획책하고 있기에 부득이 이 일을 전체 불법문중에 알려 다른 사찰들도 피해를 보지않고, 또 이러한 일들이 우리 불법문중에서 영원히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이렇게 필을 들어 삼가 제방의 고승대덕 큰 스님들과 사해불자 여러분들에게 고하게 되었습니다.

모은사 절은 60년도에 고 강수부씨가 개인 사재를 출연하여 창건하였고 , 고 강수부씨가 입적(入寂)하시자 현 모은사 창건주이자 고 강수부씨의 둘째아들인 강득진 거사가 병든 노모를 봉양하면서도 부모가 창건한 모은사 절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자 선대(先代)의 업적을 빛내는 훌륭한 효자(孝子)라 하여 모은사 창건주 강득진 거사에게 70.5.26. 사천군에서 효자표창장을 수여하였으며, 또 고 강수부 씨가 입적한 후인 79. 4월에는 창건주 강득진 거사가 돈을 내어 장형(長兄)인 강득문 명의로 사찰부지인 경남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672-1번지를 매입하여 80년 10월에 모은사 사찰재산으로 등기하는 등 강득진 거사가 고 강수부씨의 대를 이어 창건주로서 모은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해 왔다는 것은 우리 모은사 신도뿐 아니라 사천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주지(周知)의 사실입니다. 또 모은사 창건주 강득진 거사는 승려가 아니면서도 모은사를 중심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노인 무료급식 등을 펼쳐왔고, 제3대 사천시의회 의원(98. 7. 1~03.6.30)에 당선되어 사천시 불교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사천시 지역발전에 다대한 공헌을 하였었기에 04.10.28 에는 정부로부터 석탑산업훈장을 수여 받았으며, 지금은 사천시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06. 2부터 사남농업협동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모범시민이며 모범농민으로서 우리 모범 불자들의 귀감이라 아니할 수 없기에 우리 모은사는 그 동안 무사태평하게 사천시내에서 모범적인 사찰로 손 꼽아 왔습니다.

그런데 07년 2월 모은사의 주지로 봉직해오던 고 이수원 (현공)스님이 급환(急患)으로 입적(入寂)을 하자 고(故) 이 수원(현공)스님 입적 후 모은사 신도임원회의에서는 입적한 고 이수원(현공)스님의 뒤를 이을 시봉상좌가 없으므로, 고 이수원(현공)스님의 은사스님이며 전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의 원로의원인 정동섭(법명 동명) 큰 스님을 주지로 추대하자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정 스님과 총무원장스님 등은 우리 모은사 절을 소송(訴訟) 등 송무사무(訟務事務)에 능한 조계종 소속승려인 김모스님을 끌어들여, 모은사가 이미 99년 3월에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에서 탈종을 하였으며, 또 07년 2월에 입적한 모은사 전임주지인 고 이수원(현공스님)은 03년도에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에서 실시한 승려분한신고시 분한신고도 필하지도 않았기에 대한불교일붕선교종과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대도 불구하고,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소속사찰은 모두 공유사찰로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종단공찰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03년 7월에 입적한 모은사 전 주지 고 이수원(현공스님)이 모은사의 창건주가 강득진이 아니고 강수부로 바꾸어 놓았다는 주장을 하며(※사해불자 여러분! 우리나라 불교계는 사찰 창건주가 주지를 선택할 권한은 있어도 주지가 창건주를 바꿀 권한이 없는 것이 불교계의 일반관례가 아닙니까) 모은사 창건주 강득진 거사는 모은사의 창건주가 아니고 모은사 신도회에서 새로 모신 신임 주지 정동명 큰스님도 모은사의 주지가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 규정부장직에 있다는 손모 스님을 모은사 주지서리로 또 홍모 스님을 부주지로 임명하여 2007년 2월 12일 저의 모은사 주지였던 고 이수원(법명 현공)스님 입적 후 약 1주일이 지난 07년 2월 19일 오전 8시경에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스님의 인솔하에 생면부지의 많은 스님들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저희 모은사에 나타나 모은사 신임 주지 취임식을 거행한다고 하며 종무소와 주지실 등을 준비해 온 그네들의 자물쇠로 자기네들 임의로 채우고 출입금지 패를 붙여 놓고는 모은사 법당도 신도들이 마음대로 참배를 할 수 없게 통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사천경찰서에 업무방해와 모욕죄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를 제기해오므로 모은사 불교재단 이사회에서는 부득이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스님과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스님과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에서 모은사주지서리로 파견한 손모 스님과 부주지로 파견한 홍모 스님을 사천경찰서에 주거침입 및 종교행사 방해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 하고, 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에서 모은사주지서리로 파견한 손모 스님과 부주지로 파견한 홍모 스님을 상대로 부동산 출입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가 진행 중에 있기에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정스님과 총무원장스님을 이렇게 만천하에 고하게 되었습니다.

모은사 신도들은 감히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첫째, 일붕선교종과 과거에 인연을 맺었다가 탈종을 한 사암(寺庵)이나 현재 일붕선교종 소속 종도들은 현재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정스님과 총무원장 스님 일파가 파행적인 비상종단 형태로 부당하게 종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좌시하지 말고 궐기하십시오. 그리하여 탈종사암은 모은사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시고, 일붕선교종 종도들은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정스님과 총무원장스님등이 03년에 자기네들 임의로 일붕종도들의 대의기구(代議機構)인 중앙종회를 불법적으로 해산한 후에 종헌 종법의 중요기능을 정지(停止)하여 비상종단체제를 출범시키고는 현재까지 일선사암의 권익을 무시하고 일붕종도들의 주권을 짓밟고 있음은 물론 이 비상종단체제하에서 자기네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 하여 중앙종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되었던 총무원장 법철스님을 축출한 후에 자기들 임의대로 초종헌적이며 초종법적인 방법으로 일붕종도의 의사를 무시하고 현 총무원장 체제를 출범시키고는 일붕존자(一鵬尊者) 서 경보 큰 스님께서 창종하신 창종이념을 먹칠하고 있는 이들을 하루 속히 정화불사(淨化佛事)를 과감히 단행하시어 땅에 떨어진 종단의 위상을 하루 빨리 되찾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둘째,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타 종단에 기생하여 불법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조계종 소속종단의 스님에 대하여 자체조사를 공정하게 하시어 다시는 불법문중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셋째, 제방의 고승대덕 큰 스님 그리고 사부대중 불자님들께서는 모은사의 이번 사태를 계속 주시하여 주시고 모은사 신도들이 저들 불법행위자들(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정스님과 총무원장스님 등)을 규탄하는데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은사의 신도들은 향후 모은사 사태와 같은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우리 불교계에 발생하지 않도록 모은사 신도들은 두손 모아 삼보님전에 원력 비옵니다.

불기 2551(2007)년 5월 2일

경남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672-1번지

반룡산 모은사 신도일동

이 내용은 광고주의 요청에 의한 광고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상관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온 곳이 없기에 갈 곳도 없어 영원한 부처님오신날!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그런데 스님 앞에서 이렇게 법문을 들을 때는 금방 제가 부처가 될 것만 같고 하늘을 날 것 같고….

▲스님: 이것 봐! 부처가 되려고 하지도 마라. (대중 웃음) 이 세상에 부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답답한 마음이 또 생길 테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못났든 잘났든 그대로 그냥 수순히 걸어가. 그냥 딱 세우곤 입 딱 다물고 그냥 걸어가다가 딱 닥칠 때 '네가 하는 거지. 너!' 하고선 말 안 해도 '너!' 할 때 그건 그냥 그대로 깜짝할 사이야. 그러니 재생이 돼서 체가 나올 때는 거쳐서 나오는 그 시간이 있겠지만 자동적으로 불이 확 붙어서 끓는 쇠가 돼 가지고 직접 바로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약한 마음으로 이 도리를 어떻게 공부하겠나?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거야. 그러니 앞으로 살기 위한 욕심으로, 가난 때문에, 병고 때문에, 잘 살아야지, 위대하게 돼야지, 이런 것 때문에 이 공부 하지 마라, 진짜! 진짜! '안 돼! 이거는 어떠한 억겁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하란 말이야. '안 돼!' 하면 그냥 안 되는 거지. 이게 이렇기 때문에 왁 소리를 지르고 그랬어. 그러곤 그냥, 손을 번쩍 쳐들어서 그냥 쳤단 말이야! 이게 진짜 깊은 물이 되기 때문에 큰 배가 뜰 수 있고, 큰 배가 뜰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중생들을 다 태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첫째 일요일은 항상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 쓰리고 아픈 상처를 아물리고, 내 몸에 들어 있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해서 천백억화신으로 들락거리면서 나와 남을 위해서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전 세계를 융화시킬 수 있어야겠지. 전 세계를 융화시키고 건지려면 또 우리가 집을 잘 지켜야 하지. 지구집을 잘 지켜야 하는 것도 우리의 소임이다 이거야. 우리의 집이니까. 내 몸도 그래. 여러분이 부모에게 뼈를 받고 살을 받았는데 인간이 돼 가지고 진짜 사람이 못 된다면 어떻게 효가 될 수가 있겠느냐? 부모에게 잘해 드리고 잘 입혀 드리고 그래서가 아니다 이거야. 내 몸을 잘 간직해서 건강하고 진짜 인간이 됨으로써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거다 이거야.

부모는 자식한테 효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아니, 오늘 그런 말도 나오게 생겼지. 봐요, 오늘 뭐, 어린이날이라면서? 난 그것도 모르고 오늘 "애들 오면 뭘 좀 줘야지." 그랬더니 "오늘 어린이날이 돼서 다 싸 놨는데요." 그래서 "아휴, 너희들이 나보다 천 배 만 배 낫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얘기만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부모든지 자식이 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어디가 병들었다 그런다면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거는 자식들 입장에선 생각조차도 못할 겁니다. 나가서 다녀도 좋은 게 없고 아무리 우스운 일이 있어도 웃음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모가 돼 버리고 맙니다. 이게 효도입니까, 어디? 그러니까 막 굴리지 말라 이거죠, 젊은이들도. 자기 몸 막 굴리면, 자기 생각대로 막 굴리면 그건 효도도 못할 뿐만 아니라 충성도 못하죠. 또,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이라고 그랬잖아! 자기 몸에 들어 있는 자기 중생을 제도 못할 땐 자기 집이 있으나 마나지, 그거. 제도 못하면 자기 집도 망가지지, 자기 집 속에서 사는 자기의 의식들도 다, 인연들도 다 그냥 끊어지는 거야.

미래의 정신세계가…, 미래라고 그러니까 미래지 여러분이 정신세계를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있고, 과거 자리도 이 자리에 가지고 있어요. 현재의 자리가 미래, 과거 자리가 현재로 돼 가지곤 돌아가니까, 불바퀴처럼 돌아가니까, 바로 법바퀴가 여러분이 공(空)해서 자꾸 돌아가니까, 끊임없이 돌아가니까,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에 끄달리지 않고 그런다면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요, 오늘이 바로 영원한 그날이죠.

이번에 "사월초파일 메시지를 쓰세요." 그래서 "그걸 왜 벌써 쓰냐? 4월 8일은 아직도 멀었는데." 그러니까 "먼저 모두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에." 그러니까 먼저 써야 된대요. 그 소리를 듣고 "그럼 받아 써!"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또 자기가 해 놓은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장님더러 읽어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그거 누가 했는지 3단계로 곧잘 했구나."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4월 8일은 여러분이 있는 이 장소에서 그대로 4월 8일입니다. 왜냐? 4월은 바로 동서남북 전체를 말하고 8일은 유(有)·무(無), 즉 말하자면 사무사유(四無四有)가 한데 합쳐져서 돌아간다는 거를 뜻해서 4월 8일입니다. 그 '오신 날'이 얼마나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뜻을 깊게 깊게 새겨야 합니다. 바로 영원한 오늘이죠. '온 곳이 없기에 갈 곳도 없어서 영원한 부처님 오신 날일세.' 했단 말입니다. 이 못난이가 잘했죠? 어때요? 허허허…. (대중 웃음) 그러니 여러분도 못난이죠? 나도 못났고요. 부처님도 전부 못났어요, 아주.

못났으면서도 가섭(迦葉)에게 다자탑(多子塔)의 반을 탁 내주면서 앉았단 말입니다. 야, 참! 그것은 이 세상에 조금도 버림이 없는 한자리였습니다, 한자리.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반자리를 내주신 그 뜻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항상 읽고 돌아가기만 하지 그 뜻을 한 번도 새겨 본 예가 없어요. 알기야 뭐 불자라면 아마 열 살만 넘었다 하면 다 알 겁니다, 그 소릴 들어서. 그런데 행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그 깊은 속을 모른다 이겁니다.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오늘은 시간 제한하지 말고 우리 그냥 푹 빠져 보죠, 그냥. 하하하….

▲질문자2(남): 스님! 스님도 못났고 저희들도 못났다고 그래서, 못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중 웃음) 스님께서는 저희들을 공부시키면서 몰락 놓으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때로는 무조건 맡기라고도 하시고, 그런데 그 몰락 놓으라, 무조건 맡기라는데 생각이 미치는 그놈하고, 맡기는 놈은 누구이며 맡는 놈은 또 누구냐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결국은 맡기는 자와 맡는 자가 모두 나 자신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놓고 맡기는 거기에 아무런 경계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놓는 것도 맡기는 것도 없는 셈이 되는데, 스님께서는 '놓아라! 놓아라!' 하시니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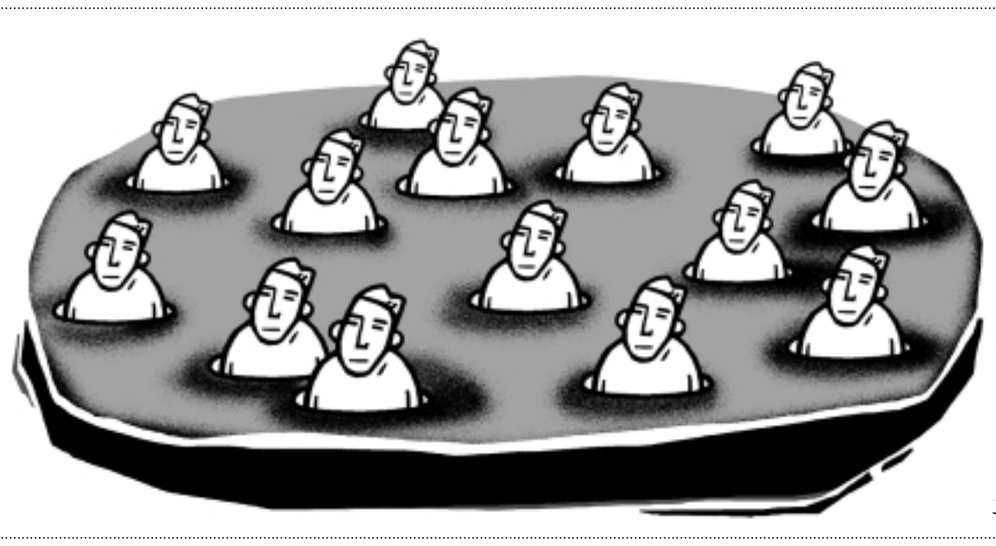
▲스님: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죠. 큰 솥에다 팥죽을 쑤는데 말입니다, 팥죽 방울이 너무 많거든. 수도 없이 그냥 막 끓어오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뱃속에서도 수없는 생명의 의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놓는 데도 한군데, 나오는 데도 한군데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 방울 조 방울, 요 방울 조 방울이 연방 나오는데 한군데서 나와서 한 가지로 고정되게만 한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마는 천차만별로 다른 방울이 그냥 솟아 나와요, 그 죽솥에서 죽방울이 말입니다. 방울은 작고 크고 달라도 죽솥에서 나오는 거니까 죽솥에다가 놔라, 이런 건데, 즉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요놈도 문수! 요놈도 문수!' 하고 죽방울이 나오는 대로 주걱으로 쳤다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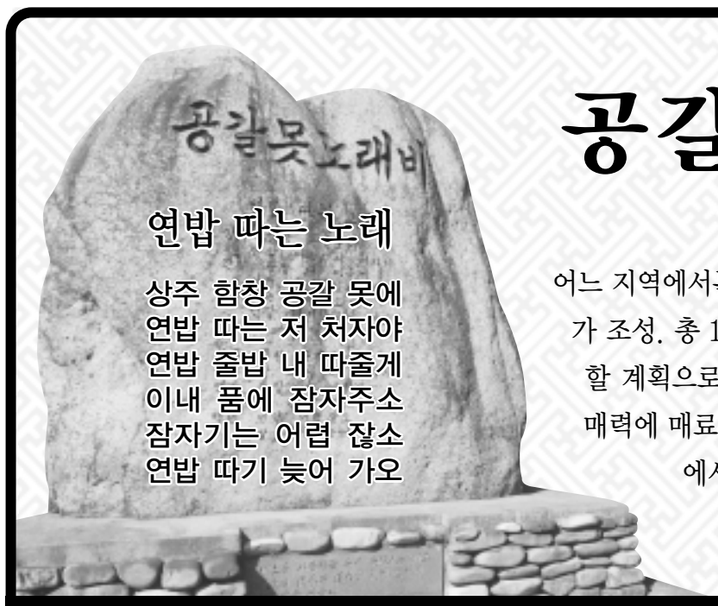
그렇듯이 그것이 다 용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살림하면서 별게 다 나오는데, 병고로 인해서 걱정, 가난해서 걱정, 회사에 가서 상사들한테 꾸중을 들어서 걱정, 또 애들이 속을 썩여서 걱정, 또 부부지간에 싸워서 걱정, 돈이 없어서 걱정 뭐, 걱정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죽방울은 죽방울인데 그렇게 다른 죽방울이니 그것들이 다 한 죽솥에서 나온다 하는 것만 믿고 알아라. 그러면 거기에 다 놓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솥의 죽방울이니 걱정을 하지 말고, 당장 애가 나가서 죽는다 이러더라도 걱정을 안 하고 '거기에서 나온다' 하는 거를 안다면 그 애는 나가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것이 벌써 전체 통신이 되기 때문이죠. 가설이라고 그러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내 형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가설이고, 아들이라는 거 마누라라는 거 알지, 어머니라는 거 알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그러니까 급하면 급한 대로 절친하면 절친한 대로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가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한생각을 그렇게 하는 동시에 바로 식구들까지도 다 통화가 돼요. 거짓말 아니에요. 통신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벌써 '난 집으로 들어가고 싶구나.' 이러곤 저절로 들어오죠. 자동적이에요, 그거. 이렇게 자동적으로 사람을 다뤄야 그게 이심전심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애들이 잘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난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다면 어른이 생각할 때 천부당만부당할지라도 "그래, 네가 하고 싶으니까 해 봐라." 그러고선 아주 좋게 그냥 받아 주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만 경험하고 딱 돌아서게끔 마음에다 관해 놓으면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나가서 다 해 보고는 "아이, 아버지, 나 그거 고만두겠어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고만두니?" 외려 그러거든.

☞22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공갈 못 백련지 조성

어느 지역에서든 2~3시간이면 삼백의 고장 상주에 도착할 수 있는 이곳에 백련지가 조성. 총 10ha(3만평)규모로 조성이 되며, 연차적으로 10만평 이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 백련이 피어나면 연에 대한 모든 연음식 연잎차 등 백련의 매력에 매료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호암사 아동시설 호암룸비니에서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한 백련(연잎차)와 백련분말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향차의 체험에 빠져 보시길 바랍니다.




오시는 방법

- 서울에서 중부고속도이용 여주분기점에서 여주 구미간 고속도로 이용하여 함창 점촌 IC에서 내리면 5분거리
- 경남 쪽에선 구미~여주간 고속도로 이용 북상주에서 내리면 공갈못 공검지에 도착 호암백련지를 만나 보실수 있습니다.

연락처 : 054)541-7862~3

부생육기(浮生六記)의 연향 차

아름다운 인생을 꽃피워 보여주는 "연꽃 이야기"가 있다.
지혜로운 아내의 연꽃처럼 고운 마음을 담은, 청나라 건륭(乾隆)때 심복(沈復)이란 사람의 자서전 부생육기(浮生六記)라는 책이 있다. 심복이 부생육기를 쓴 것은 그의 아내 운(芸)에 대한 사랑의 추억 때문이다.
심복은 아침마다 아내가 내주는 차의 향이, 독특하고 은은했다. 같은 차로 수십 번 자신이 우려보아도 그 향을 따를 수 없었다. 가만히 아내의 차 끓이는 방법을 눈여겨보았다. 연못에 피는 수련은 저녁에 꽃 심을 오므렸다가 아침이면 활짝 핀다. 아내는 저녁나절 꽃송이가 오므릴 때비단 주머니 속에 차를 넣고 꽃 심에 놓았다. 차를 품은 수련은 밤새 별빛과 달빛 이슬을 맞으며 차의 향을 촉촉한 수련 향으로 만들어 버린다. 아침 일찍 꽃봉오리가 입을 벌릴 때 비단 주머니를 꺼내 이 차로 차를 달였다. 말단 관리였던 남편 수입으로 향기로운 고급차를끓일 수 없어 생각해낸 운(芸)의 지혜다. 이 같은 멋을 운 이가 떠난 후에 알게 된 심복은 회한의 눈물로 아내와의 추억을 그리고 있다. 임어당 은 운은 중국문학에 있어 가장 사랑스런 여인이었으며 뛰어난 재인으로 손꼽는다고 했다.
부생육기에 나오는 수련은 연꽃을 말함입니다. 수련은 물에 떠서 꽃을 피우기에 꽃 봉우리가 닫히면 반쯤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수련 꽃 속에 차를 넣었다가는 더러운 물에 젖을 수 있습니다. 연꽃차라 하여 연꽃 속에 녹차를 넣고 연꽃을 잘라 그 위에 덥힌 물을 부어 음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음다 행위라 할 것입니다.
위 글에도 있다시피 연 향이 너무 진 하면 그것이 연차 인지 녹차 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차의 근본은 녹차 입니다. 녹차에 약간의 연향을 가미하여 향긋함을 맛보기 위함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차를 들며 다도를 운운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지요.
부생육기에 나오는 글은 연향차입니다. 연꽃 차는 연꽃만을 갖고 끓인 차를 말함입니다.
연꽃 한 송이 따서 덥힌 물을 부어 차를 마신들 그게 무슨 잘못 이겠습니까 만은 모름지기 차란 서양의 커피 마시는 듯해서 는 안 됩니다. 차엔 풍류가 있고 철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줄여 도라 붙이기도 합니다. 도란 예의범절을 말함입니다. 연꽃 한 송이면 족히 10여명이 차를 마시고도 남습니다. 왁자지껄 소란스럽게 마시는 차는 도가 아닙니다. 차엔 제다 인이 있고 음 다 인이 있습니다.
만드는 이도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음용하는 이도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차는 정신을 맑게 하고자 하여 음용 하는 것입니다.
정성과 철학이 없으면, 결코 다도인 이라 할 수 없습니다.

못났든 잘났든 그냥 수순히 걸어가세요!

☞21면에서 계속

그러면 "아, 이만저만해서 그러니까 저 다른 걸로 하겠어요." 한단 말입니다. 요렇게 해서 사랑과 자비, 의리, 이심전심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관심, 이것이 진짜 사랑이죠.

그런데 그냥, 나가서 조금만 잘못됐다 하면 그 쪽 이유는 듣지도 않고 "야이, 이놈의 새끼야, 너 어디 갔다가 이제 들어왔어? 공부하라니까! 이 애비는 땀 흘리고 벌어다가 너희들 공부시키는데…." 이럽니다. 누가 아니래나요? 하하하…. (대중 웃음) "그렇게 공부시키는데 요놈 새끼, 뭐 어디 가서 자고 들어와?" 그쪽 사정은 알아보지도 않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먼저 내 얘기를 하기 이전에 상대방 얘기부터 듣고, 잘못됐으면 "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하고 주인공에 맡기는 거, 또 그렇지 않으면 "얘, 그렇게 해서 못 들어왔구나. 그건 참 잘했구나. 네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참 잘했다. 사나이가 그런 의리도 없이 어떻게 살아나가겠느냐." 아, 이렇게 좀 북돋아 주면 나가서 잘못하래도 안 해요.

이것이 부모가 삼분의 일 가르치는 일이고, 삼분의 일은 자기가 자작하며 이끌고 다니는, 바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잡아서 나가는 거, 삼분의 일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이렇게 3단계가 한데 합쳐지게 되면요, 이랬어 저랬어도 안 합니다. "아버지!" 그러곤 좋아서, 말할 땐 무릎 꿇고 앉아서 정중하게 말하고, 또 재밌게 얘기하고 그럴 때도 이랬어 저랬어, 마구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존경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스무 살, 스물하나 둘 요 정도가 예전 서른 살하고 맞먹는단 얘기죠. 지금 시대가 그만큼 됐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들은 좀 더 생각을 깊이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고도 또 나는 항상 그럽니다. 사소한 일 같더라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자녀들을 못 보고 그냥 나갈 때는 반드시 몇 자 써서 "얘, 아무개야!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 놨으니 그걸 데워서 먹어라. 그리고 언제 들어오는지는 몰라도 좀 일찍 들어와서 배고프지 않도록 해라. 너무 피곤하면 안 되지 않니?" 요렇게 아주 간단하게 써서 상에 놓아두고 나가면 자식들이 그걸 볼 때 차마 그 자비를 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자기 부모를 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이건.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오늘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은 지금 외국이나 한국이나 너무들 삭막하게 사는 것 같아서입니다. 외국 가면 자녀들이 그냥 그, 마약중독 뭐 이런 것이 돼 가지고요, 부모네들이 상당히 고생합니다, 지금.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여러분이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에 끄달리지 않는다면

▲질문자3(여): (대중을 향하여)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년 전에 서독에 간호원으로 가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스님: 이걸 (질문자 석에 있는 마이크를 가리키시며) 들고 얘기해.

▲질문자3(여): 여러분께서 분명히 저보다도 먼저 스님께 여쭙고 싶은 말이 있는 줄 알지만 제가 여기 안 살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없어요. 20년 전에 간호원으로 서독에 가서 10년 정도 간호원 하면서 살아서 서독 시민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기회가 없어요. 여기 올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그걸 이해해 주시고 떠나기 전에 제 소원이 꼭 하나 있어서 그것을 스님께 여쭙고 싶은데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공부 해 가지고 떠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 박수)

스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떠나기 전에 제 마음속 깊이 여쭙고 싶고 배우고 싶고 마음공부 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신데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랍니다. 딸자식 된 도리로서 어머니께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20년 전에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은 어머니지만 아마도 미운 정이 너무나 많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20살 되기까지의 그 수많은 괴로움, 피눈물 나는 고생, 남들처럼 제대로 과정을 밟지 못한 처지에 대한 한과 미움이 서려 서러운 마음이 있어서 엄마를 사랑하기 이전에 서독에 갔다는 그 자체가 꽤나 슬펐어요. 남들처럼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서 서독에 갔어요. 무슨 일이 잘못되면 '한국에 있었으면 시집도 갔을 텐데 서독에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고 어머니를 원망도 하고 미워했었는데 지금 딱 한마디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 것은, 어머니를 마주치니까 차라리 남들처럼 미워했으면 속이 풀리겠는데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남들은 괴로우면 울고 기쁘면 웃고 그러는데 저는 무감각한 상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군요. 저쪽에서 한국 사람은 저 혼자밖에 일을 안 해요. 그래서 20년간 한국 사람을 상대 안 하니까 대화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저의 마음을 어머니날인 5월 8일에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미워하는 감정도 없어져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그렇다고 20년 세월 탓이라고 욕할 순 없고, 또 내 형제를 보면 누구라고 말하기 이전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 용서받고 사랑을 받고 싶은데 제가 옆에서 날아가는 철새인지 미워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혼자 속으로 '이건 너무나 잔인한 내 마음 병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마음병을 좀 고칠 수 있을지 스님한테 좋은….

▲스님: 말씀을 들을까 이거죠?

▲질문자3(여): 예, 예.

▲스님: 예, 좋아요. 그렇다면 댁이 아무리 고생을 하다못해 천하없어도 나만은 못했을 거야. 그러나 난 부모에게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지금 미워하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도 또 이뻐하는 마음도 없다는데 댁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뭐가 있었어? 미움도 고움도 없었지? 그리고 서독에도 갈 수가 없었을 거야. 당신이 그래도 어머니를 빌려서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인생 공부를 할 수 있었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인생 공부를 배웠지 고생을 안 했더라면 인생 공부를 못 배워. 남이 쓰린지 고운지 또는 아픈지 그거를 느끼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그런 거를 느끼게 됐거든. 곱게 자란 사람보다 더한층 공부를 더 시켰으니 사자가 사자 새끼를 저 내리막에다가 내팽개친 거와 다름없잖아!

그러니 고맙게 생각하고 어머니날 꽃을 사서 드리면서 무조건, 밉고 이쁘고 떠나서 무조건 부모야, 부모란 말이야. 어머니가 살을 주고, 아버지는 안 계신다 해도 뼈를 줬어. 당신의 영혼은 거기에 부합이 돼서 삼합이 합쳐서 당신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래도 감사히 생각하고 이제는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해야지. 무조건 잘못한 거 잘한 거를 떠나, 이제! 모든 거를 맡겨 놔. 모든 거를 그 용광로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면 재산이 돼서 이 세상에 밝게 빛이 날 거야. 그 얼굴도 이제는 환하게 피거고 그럴 테니까.

"어머니! 이 꽃을 받으세요. 이 꽃이 내 마음의 꽃입니다. 어머니! 꼭 건강하시고 오래 사세요. 딸 노릇을 꼭 할 겁니다." 그래야지, 밉지도 곱지도 않다는 게 어딨어? 그러지 마라. 아무리 부모가 잘못했더라도 그때 당시는 아마 자식이 아팠던 것보다 몇십 곱절 아팠을 거야. 그거를 알아야지. 부모는 자식을 배신하는 법도 없고 또 죽이는 법도 없어.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면 그 환경을 누가 가져왔어?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현실에 닥쳐온 거야. 바로 과거에 자기 산 대로 닥쳐온 거지 누구의 탓도 없어. 알았어?

▲질문자3(여):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대중 박수)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요 오늘이 바로 영원한 그날이죠!

▲스님: (삼 배 하는 질문자에게) 급할 때는 일배만 해.

▲질문자4(여): 저도 사실 마음 밝히는 공부를 참 하고 싶은데 스님처럼 꼭 출가수행을 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스님: 음, 그거는 대답하기가 곤란하잖아, 그건 자유로 하는 건데. 하하하…. 내가 느낀 거 두 가지를 얘기하겠는데 머리 깎고 입산을 한다면 모르는 사람들이 "저이는 스님이야. 그러니까 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러지만, 출가하지 않고 공부하는 이는 그냥 스님하고 똑같이 다 실천할 수 있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넓게 할 수가 없으니까 머리를 깎는 거지,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말이야. 안 보이는 데서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건 자유야. 스님이 되고 안 되는 건 자유고, 공부하는 거는 스님이 됐든 안 됐든 똑같애.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아니, 그도리도 모르고 스님이 된다면 스님은 돼서 뭘 해? 껍데기 스님이 돼야 소용없어, 아무리 천만 명이 된대도. 그러니까 결심하고 스님이 되는 거, 이거 보통사람들 아니야. 허허허…. 보통사람들이라면 우리 이렇게 스님 안 돼. 스님 되는 것도 보통이 아니야.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속단해 버리고 이 무명초, 천차만별로 어지러운 모든 걸 깎아 버리고, '나는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도리를 알겠다' 고 다짐하고 들어오는 거, 이거 보통 아니야.

그런데 공부를 한다니까 말인데, 어떤 분야든지, 만약에 의학을 해서 아픈 사람을 건진다 하더라도 이 도리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물질 또는 학술로 배워도 마음으로 50%의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걸 체험해서 터득하지 못한다면 자기가 그걸 커버하고 나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의당히 이거는 배우고 나가야 된다는 거야,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질문자4(여): 더 솔직하게 스님한테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말하는 재산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뭐 욕심이 있다거나 그런 생각이 없는데 단 하나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제가 시집을 안 가고 그냥 스님이 되어서 살 수 있을까, 그것만은 끝까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해 보는 중이거든요, 스님.

▲스님: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는 중이라면 진짜 생각을 해서 단호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음이 들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런데 나는 시간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 우리가 시집을 간다 장가를 든다고 하는데, 그런 일에 정신을 빼앗기는 사람이라면 공부도 못할 거 괜히 스님이 돼서 뭘 하느냐. 가정이라도 잘 지켜야지. 이 공부는 모든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앉아서도 이 세상을 다 주름잡을 수 있는 거야. 승려가 안 돼도 말이지.

그러나 이 스님네들은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한마음이 돼 줘. 한마음이 돼 준단 말이야. 단호히 결정을 내렸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전체를 그냥 다 끌어들여서 한마음이 돼. 한 기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되려면 스님이 돼서 이 세계를 누비면서 이 마음법을 전파해도 좋지. 우리 생명의 근본과, 말하고 체험하고 이러는 게 불교니까. 그러니까 풀 한 포기라도 제도하려면 스님이 되고. 그런데 살림하는 사람들은 풀 한 포기까진 생각을 안 해. 또 죽은 사람들까지도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아, 살기 바쁘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뿐이야.

▲사회자: 오늘 스님의 높은 법문을 받들다 보니까 어느덧 오늘도 또 예정 시간보다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많은 질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요 다음 법회날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저희들을 놓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 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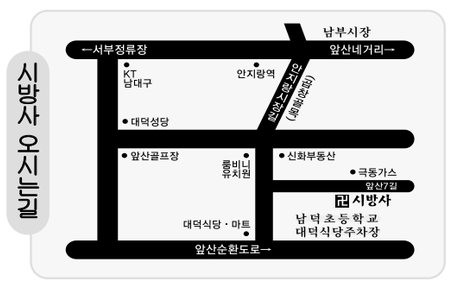
▲스님: 아니 회장님, 내가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 하하하…. (대중 웃음) 아니, 여러분이 나를 붙들고 있나?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과 내가 다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한데 합쳐져서 우리가 서로 웃고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한 말씀도 안 했다는 뜻과 같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아유, 질문하는 게 밀렸다니 언제까지 밀릴까요? (대중 웃음)

※위 법문은 1991년 5월 5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테이프로 공부하는
太極四柱 特講
古典 命理學을 완전 압도하는 太極四柱가 나왔다. 太極四柱는 이론이 간단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속성으로 완성하며, 자신있게 四柱를 감정할 수 있다. 命理學은 10年, 20年을 공부해도 끝이 없고, 用神잡기가 어려우며, 오판과 실수가 많다. 著者역시 30餘年間 明理學을 연구하였으나 해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太極四柱는 命理學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배우기가 매우 쉽고 논리가 정연하므로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를 들어가며 흥미진진하게 설명하므로서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난다.
初步에서 最高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로서 일사천리로 완성할 수 있다. 녹음 - 테이프로 하루 한시간씩 독학으로 2개월이면 통달하고 인간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더욱이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실제 감정하므로서 공부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것이다. 命理學과는 하늘과 땅 차이임을 인정할것이다.
增補 太極四柱는 著者가 前日에 出刊한 太極四柱를 획기적으로 보완(補完)한 것이다. (안내서 무료배부)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면 우편속달로 보내 드립니다.
♦강 사 : 孫中山 會長 直講(74세) 太極四柱 著者
♦테이프 16개와 教材代 포함 : 20만원(단, 스님 및 포교사는 15만원)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예금주 : 손선영)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53)324-2468 / 053)326-4585
(080-322-4684)

SBS 일요스페셜 0.2평의 기적에서 방영된 확실한 수행건강법
부산 3000배 용맹정진
자금빛 찬란한 부처님 가피!
밤새워 정진해도 배고프지 않고, 졸립지 않으며, 힘이 솟아나는 특별한 3000배!과학적, 의학적, 인체공학적으로 탁월한 효과가 완벽하게 증명된 세계유일의 3000배!
6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몰록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을 즉시 이뤄냅시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날 짜 : 2007년 5월 12일(토) 저녁 9시~
2007년 4월 13일(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결레, 면티 2매, 물병, 수련복(100% 면 소재 하의)2매,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장 소 : 법왕정사 부산 금정법당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청견스님 011-9088-9449
♦부산 금정법당 (051) 583-7886
☞ 지하철 1호선 두실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좌회전 50M 경우빌딩 4층
♦대구 신천법당 (053) 743-0063
☞ 신천 전철역 3분거리, 동대구역 5분거리, 고속버스터미널 1분거리

불교성지순례 안내
1. 불교 4대명산 오대산/대동/북경6일
♦일정 : 인천-북경-오대산(1)-대동(1)-북경(2)-인천
♦출발 : 매주 목요일
♦경비 : 899,000원
2. 하늘로 떠나는 티벳 열차순례 9일(칭짱열차)
♦일정 : 부산-성도(1)-라싸(2)-장체-시가체(1)-라사(2)-성도(2)-부산
♦출발 : 매주 월,목요일
♦경비 : 1,890,000원
3. 영혼의 도시 티벳 일주 9일
♦일정 : 인천-성도(1)-라싸(2)-장체-시가체(1)-라사(2)-성도(1)-인천
♦출발 : 매주 수요일
♦경비 : 1,650,000 ~ 1,890,000원
4. 불교 4대명산 상해/구화산/보타산/황산/항주 8일
♦일정 : 인천-상해-수주-항주(1)-구화산(1)-황산(2)-항주(1)-보타산(1)-상해(1)-인천
♦출발 : 매주 목요일
♦경비 : 1,190,000원
5. "산과 바다의 어울림" 상해/보타산/낙가산 4일
♦일정 : 인천-상해(1)-보타산(1)-상해(1)-인천
♦출발 : 매주 월, 수, 토요일
♦경비 : 649,000원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하나투어 HANATOUR 불교성지순례전문여행사
전문판매대리점
(주)VIP여행사 진주시 신안동 8-10번지
신안동 : ☎055)743-5001, 팩스 743-5003
E-마트 : ☎055)741-9999, 팩스 742-4444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빛으로 오신 부처님 늘 나와 함께!
설법도량 앞산 是方寺 시방사
비로자나 삼존불 점안 창건법회
불기 2551년 5월 13일(일) 오전 10시
마음의 눈을 뜨는
석호 스님의 백일법문
5월 15일부터 100일간 매일 저녁 8시
●참가자 :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개방


열린설법도량 앞산 시방사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9동 앞산 7길 103번지
053)654-0408



불자 세상보기

성 태 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자식사랑과 '하면된다' 정신

맹자는"옛사람은 자식을 바꾸어 가르쳤다"고 했다. 그 이유인즉 아비는 자식에게 사랑과 기대가 크기에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마련이고, 자식은 "아버지도 못하면서 나에게만 요구한다"고 반발을 하게 되어 결국 부모자식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강함을 말하는 것이며, 그 잘되라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요, 선한 사람이 되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기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은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 속에는 사람은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근본적으로 선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 대한 바람에서 드러난다는 것이겠다.

그런데 요즈음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김승연 회장의 납치폭행 사건을 보면, 위에서 한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 당혹스럽다. 김승연 회장은 과연 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했던 것일까? 아들에게 나쁜 짓을 가르치려 했던 것일까? 만일 자신이 하는 짓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고도 태연히 아들에게 그러한 본보기를 보이려 했다 하면, 위의 이야기는 전적으로 부정되고 말 것이다.

그렇지는 않으리라. 악한 모범을 보여 아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려는 아버지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생각 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떠도는 이야기를 들어봐도 김승연 회장 일가의 지나치리만큼 강한 가족애와 내리사랑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일으켰을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결국 빗나간 사랑, 잘못된 자식사랑이 일으킨 하나의 해프닝으로 취급되어 넘어가야 할 일일까?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잘못된 자식사랑이라는 한 마디 말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도 근본적인 문제들이 그 속에 숨어 있다.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기업의 회장 일가가 가져야할 기본적인 도덕성의 결여, 가족이기주의에 파묻혀 사회적 책임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질서에 대한 존중의식마저 그리도 쉽게 팽개쳐 버리는 재벌의 행태는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심각한 병리현상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심각성은 김승연 회장이 그러한 폭행을 하면서 자식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그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해결이 무언가 '남자다운', 나아가 어떤 '멋들어진' 해결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김승연 회장의 머리 속에 자리잡고 있었고, 그 남자답고 멋있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려 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준법의식의 결여라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많은 조폭영화들이 흥행에 성공을 거두는 것도 역시 그러한 병리현상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리라. 화려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면, 그 결과만 얻어 누릴 수 있다면, 그에 도달하는 과정은 어찌해도 좋다는 식의 사고방식!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은채, "하면 된다!"는 구호 아래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의 최근세사가 낳은 너무도 무서운 질병을 온 국민이 앓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면 된다!"는 구호를 충실하게 따라 멋진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김승연 회장이라면, 당연히 자식에게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멋지게 보여주려 하지 않았을까?

단지 김승연 회장의 폭력행위라는 결과만을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하면된다!" 식의 대표적 성공사례 가운데 하나인 김승연 회장의 행태 속에 숨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라도 깊이 인식하고, 해서는 될 것과 안될 것을 가리는, 아니 옳은 것이라면 안될 것이라도 해야 하는 민주사회의 시민의식을 기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10.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학교장 · 교육부 등 종교인권 의지 중요…공동 책임의식 절실

우리 사회는 선진교육을 책임질 만한 인격적 자질과 인권 감수성을 갖춘 교사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수 함량미달의 교사들 때문에 전체 교사들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되고, 특히 교사 개인의 종교편향성과 인권의식 결여로 인해 학생들이 겪게 되는 고통은 이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학교 내에서 종교 갈등과 인권침해를 없애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학교장의 인권의식과 해결의지일 것이다. 사실 학교장의 의지만 확고하면 교육현장에서의 웬만한 종교인권 침해는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학내 종교 갈등은 문제의식이 부족한 학교장 스스로가 덮고 감추려는 경향 때문에 더 꼬이기도 한다.

더구나 학교장의 종교성향이 강하면, 공교육의 일선 책임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아예 앞장서서 종교 강요와 차별을 부추기는 경우마저 없지 않다. 도봉구에 있는 서울외국어고등학교의 예를 들어 보자. 이 학교 김희진 교장은 2006년 9월 16일 전일제 계발 활동(CA) 대신 자신이 집사로 있는 교회 목사를 강사로 초청, 1, 2학년 학생 전체를 강당에 소집해 종교집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강사는 개신교식 '예배'를 진행하고 "원죄의 결과는 죽음 뿐"이라는 섬뜩한 내레이션과 함께 '사탄 · 미신 · 무교 · 불신 · 죄악' 등 불교를 암시하는 듯한 문구가 적힌 송판을 격파하는 퍼포먼스까지 연출하였고, 교장은 한술 더 떠 "이 강연은 서울외고가 미션스쿨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재학생들과 동문들은 명백한 종교행사로 규정, "큰 교회에서나 있을 법한 부흥회였다. 입시에 시달리는 수험생들에게 편협한 종교집회 참여를 강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 2005년 11월 서울외고를 인수한 청숙학원(이사장 이주헌)이 서울외고를 미션스쿨로 변신시키려 한다"며 반발했다고 한다. 이 학교는 또 2006년 1월 기간제 신임 교사를 채용하면서 자격 요건을 '기독교 신자'로 제한해 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특정종교의 강요는 학생들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사진은 내용과 관계없음)

누구나 나름대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현실에서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났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당연히 본인이 져야 한다. 종교 관련 시민의 권리를 위해 창립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공문에서 김 교장은 "기독교 가치관에 따라 학생들이 성장하길 바라는 교장 개인으로서의 소망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것으로 책임이 모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순진하다 못해 무지하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이미 학생들의 학습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짓밟은 권력을 휘두르고도 교장 스스로 무엇이 잘못 된 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상급 감독기관인 교육청과 교육부 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적 태도일 것이다. 종교 관련한 사립학교의 정체성 문제나 특정종교 신자 교사 채용 문제 등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렇지만 비교육적 · 반인권적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파악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사전예방 차원이나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엄격한 행정지도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 학교를 감독하기보다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기보다 소나기를 피해 가려는 객처럼 잠잠해지기를 기다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에 대해 관심도 없고, 특히 종교인권 문제라면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혹시 자신의 종교와 연관 지어 의도적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물론 교육부 관계자도 사건이 표면화 될 때마다 "국가 의무교육기관인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민 ·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원론적인 지적은 한다. 그러나 소송 가능성의 원칙만 가지고 구제할 길이 열려 있다고 변명하는 것은, 입시전쟁이란 상황과 함께 우리 국민의 정서상 학부모가 자녀의 스승이나 모교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짐짓 모른 체하는 구차한 책임회피에 다름 아니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종교문제는 골치 아프다며 외면하거나 교사 개인이나 학교장에게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종교자유 같은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인권침해 문제가 사법부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국민이 기댈 곳은 관리감독기관인 교육청과 교육부 아니겠는가. 어쩌면 감독기관의 안이한 태도가 일부 종교사학의 종교만행을 더 심화시키지 않았나 생각된다. 모든 교육주체가 학교에서의 종교 강요와 차별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인식과 공동의 책임의식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후진국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불자의 눈

비구니 스님들의 새로운 '위상'

중앙승가대 한국비구니연구소가 <한국비구니 명감>과 3권의 <한국비구니 수행담록>을 비롯해 모두 7권의 자료집을 발간했다는 소식이다. 먼저 그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전통적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에 대한 깊은 연구가 빈약했던 한국불교 현실에서 이러한 책자와 자료집이 발간 됐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한국비구니 명감>은 570명의 근 현대 비구니 스님들의 활약상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했고 3권으로 묶어진 <한국비구니 수행담록>은 327명의 비구니 스님 일대기를 7년에 걸쳐 정리했다니 그 내용의 풍부함과 사료적 가치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자료집들도 현대사회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도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제 비구니 스님들의 활약상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평가될 시절인연이 충분히 도래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조계종을 이루는 인적 근간은 4부대중 즉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다. 그 가운데 승단을 이루는 한 축이 비구니다. 그간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면모가 드러나는 것을 꺼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세간은 물론 승단에서도 높다.

이번 책자의 발간이 한국불교의 한 축인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과 전법에 큰 힘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동대 불교대학의 '백년대계'

동국대 불교대학이 '혼돈'에 휩싸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불교대학의 체제를 변화시켜 새로운 발전의 코드를 확보하려는 학교측의 트랙제도 도입을 두고 학생과 교수진이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몇년 동안 불교대학과 불교학의 발전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 가운데 올해 새로 취임한 오영교 총장이 학교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개혁 차원에서 먼저 불교대학의 쇄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차가 적지 않게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학에서 불교대학이 차지하는 위상은 다른 학과와 다를 수밖에 없다. 동국대학은 조계종 종립대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대학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의 발전을 이끌어 가야한다는 '태생적 책임감'마저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국대학의 불교학과는 한국불교학의 '대표주자' 자리를 확고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을 적잖게 받아왔다.

때문에 불교대학의 개혁은 '학교의 정체성'과 '학과의 경쟁력'이라는 현실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틀 속에서 가능하다. 거기에 교수진의 연구 업적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과 종단과의 유기적인 지원 체제 수립 등 산적한 과제들도 함께 풀려야 할 것이다.

기왕 불교대학의 비전을 고민하는 마당이라면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안 되도록 허심탄회하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놓고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

영인본 불교원서 보관본 보급안내

귀의 삼보하옵니다.
책방 여시아문을 항상 이용해 주시는 스님, 불자님들께 지면을 통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방 여시아문은 항상 불자님들의 곁에서 불서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원서목록 영인본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스님 및 불자님들의 문의가 있기에 아래와 같이 보관하고 있는 책자를 보급합니다.
보급수량이 한정되어 있사오니 양해 바라옵니다. (선착순 접수)

▮문의전화 : 02)2004-8219 (담당 : 박원범)

도 서 명	저 자 명	보관수량	가 격
~~望月佛教大辭典(全10권)~~	~~望月信亨~~	~~절판~~	~~350,000~~
~~佛光大辭典 (全8권)~~	~~臺灣佛光寺~~	~~절판~~	~~200,000~~
~~佛書解說大辭典 (全14권)~~	~~小野玄妙~~	~~절판~~	~~350,000~~
新修大藏經 索引 (全31권)		1	900,000
祖堂集索引(全3권)	柳田聖山	1	100,000
慧遠硏究 (全2권)	木村英一	1	50,000
高麗華嚴變相圖(고급한지인쇄본)		2	580,000
韓國近世佛教百年史(全2권)		28	55,000
漢語大辭典		1	500,000
선문염송(불교문화연구원)	木村英一	1	200,000

제4회 하와이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캠프



현대불교신문사는 한국인들이 100년전 이민의 첫발을 내디딘 미국 하와이에서 제4회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캠프를 개최합니다.
하와이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캠프는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하와이에서 전문적인 어학교육과 문화체험을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폴리네시안 및 미국 현지인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넓은 세계를 배움으로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높은 안목을 갖춘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 참가대상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기 간 : 7월 26일(목) ~ 8월 14일(화) (19박 20일)
■ 참 가 비 : 280만원(여권. 비자수수료 별도)
■ 정 원 : 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 1차 - 3월 15일 ~ 4월 20일까지
2차 - 5월 1일 ~ 5월 30일까지
(참가비 5% 인상)
■ 장 소 : 하와이 무량사 한인문화원
■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 하와이 무량사
■ 후 원 : (재)보덕학회
■ 참가문의 : 박병용 팀장 02)720-1868
010-6318-1976
■ 참 가 비 : 280만원(분납가능)

주요프로그램
1. 어학연수:하와이주립대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데이비드와 대니 선생님의 총 60시간 영어강의 및 현장체험
2. 문화체험:폴리네시아민속촌 관람, 비숍박물관, 훌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탐방
3. 역사체험:한인이민의 사탕수수농장, 세계대전 격전지 진주만, 한국전쟁의 희생묘지 펀치볼
4. 자연체험:와이키키해변 수영, 다이아몬드헤드 등반, 팔리바람산, 와이메하공원



• 하와이캠프 홈페이지
http://hompy.buddhapia.com/homepy/hawaii

경치에 감동하고 고찰에서 불심 충전

조물주가 빚어댄 장중한 스케일이다. 수백 미터 높이의 송곳 같은 석봉들이 병풍처럼 즐비하다. 그 사이로 구름이 살짝 흐른다. 말로만 듣던 선계(仙界)다. 살아있는 자연 그대로의 산수화다. 중국 호남성 서북부에 위치한 장가계(張家界)를 본 소감이다. 과연 중국사람들이 그 신비로운 산세로 인해 '사람이 태어나 장자지에에 가보지 않았다면 100세가 되어도 어찌 늙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人生不到張家界 白歲豈能稱老翁)라는 말이 나올만 하다.

천하의 비경 장가계와 원가계

장가계는 워낙 넓고 방대해 장가계 국가삼림공원, 천자산자연보호구, 삭계욕자연보호구 등 3개 지역으로 나뉜다. 장가계 국가삼림공원에서는 수직으로 치솟은 326m높이의 백룡엘리베이터를 타고 산 정상에 오르면 중심풍경구인 원가계의 절경과 만나는데 보는 순간 숨을 멎게 만든다. 협곡에서 솟은 바위봉우리가 사람의 혼을 뺄 정도로 아름답다는 미혼대(迷魂臺) 아래의 원가계 절경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준다. 후화원으로도 불리는 원가계의 천하제일교는 높이 300m의 커다란 바위 두 개에 약 길이 50m의 다리를 연결한 세계 최고높이의 다리다.

천자산자연보호구의 천자산(天子山) 또한 또 하나의 산수화다. 해발 2084m의 천자산은 현재 2㎞ 길이의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다. 케이블카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협곡과 숲, 그리고 수천 개의 석봉들은 상상을 초월한다. 천자산 정상에서 버스로 5분쯤 이동하면 하룡공원이 있다. 이곳에서 만나는 어필봉은 바위 봉우리에서 자란 소나무와 어우러져 마치 붓을 거꾸로 꽂아놓은 형상이다. 전쟁에서 진황제가 천자를 향해 쓰던 붓을 던졌다고 해서 어필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정상부위에 구멍이 뻥 뚫린 천문산

장가계의 또 다른 비경인 천문산(天門山)도 경외감이 든다. 정상(1518m)에는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구멍 사이로 건너편 푸른 하늘이 보인다. 그 구멍은 천문동이라고 한다. 장가계 공항에 내리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장대한 장가계의 비경이며 구멍은 높이 131.5m, 폭 57m에 이른다. 천문산에 오르기 위해 타는 케이블카는 인간이 만든 위대한 인공구조물이다. 길이가 7454m에 이르러 약 40여 분 타야 하며 57개의 지지대는 절벽 위로 세워져 아찔하다. 케이블카 일부 경사는 37도에 이르러 주변에서 펼쳐지는 신비로운 자연비경과 함께 관광객들의 감탄사를 자아낸다. 케이블카가 들어서기 전에 세워진 정상에 오르는 길은 180도 급커브가 적지 않고 99개 굽이를 돌아 산정상으로 뱀처럼 오른다.

장가계는 3억8000만 년 전 해저가 융기하면서 생겨났다. 처음엔 사암으로 된 평평한 땅이었으나 오랜 세월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규암으로 굳어져 오늘날의 모습으로 변했다.

'장씨의 마을'이라는 뜻의 장가계는 BC 200년경에 장씨들이 거주한 연유로 이름이 붙여졌다. 오랫동안 외부와 교류가 거의 없었고 지금으로부터 불과 20여 년 전 이 지역 출신 화가가 장가계의 산수를 담은 그림을 발표하면서 장가계는 중국 정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지난 1982년에 중국 최초의 국가삼림공원(국립공원)으로 지정됐고 1992년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됐다.

중국 장가계를 가는 길은 다양하다. 중국 베이징, 또는 상하이에서도 갈수 있지만 중국 동남연해의 하문(厦門)시에서 출발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하문에서 장가계 공항까지 비행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가장 가깝다.


보타낙가산 보제사의 남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천년고찰 '남보타사'.

해변풍경도시 하문

중국 복건성의 해변풍경도시인 하문시는 대만과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고 깔끔한 도시분위기가 인상적이다. 한해 평균기온은 20.9도로 기후가 좋고 풍광이 수려하며 사계절 꽃이 핀다. 공기 또한 신선해 하문시 해안도로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라톤대회가 열리기도 한다.

하문에는 고랑서 등 유명 관광지를 두고 있다. 고랑서(사진)는 길이 1900m의 작은섬으로 일광암, 숙장화원, 해저세계 등이 대표적인 볼거리다. 일광암은 해발 92.7m로서 고랑서와 하문의 경치를 보기 제일 좋은 곳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백조원으로 가서 새들이 갖가지 재주를 부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숙장화원에는 중국에서 유일하고 세계적인 수준을 갖춘 피아노 박물관이 있다. 피아노 발전역사를 대변하는 귀중한 피아노 70여대가 전시되어 있다. 해저세계는 담수어관, 돌고래 바다사자공연관, 세계에서 제일 큰 고래표본관, 해양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 하문에서는 당나라때 건설된 사찰로 한국 불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남보타사를 비롯 화교박물관, 만석산식물원, 대만민속촌 등이 자리해 있다.

하문의 대표적 사찰 남보타사

당나라때 창건된 하문에서 가장 오래된 고찰이다. 약 3만m2의 부지면적을 자랑하는데, 복건성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우여곡절이 많은 하문의 역사를 상징하듯 3번의 소실과 4번의 증축 끝에 오늘날까지 건재한 모습을 과시하고 있다. 하늘로 날아오를 듯 한 중국 남부지방 특유의 처마가 인상적이다. 사원 내부의 주요 건축물로는 대웅전, 대비전, 장경각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중 가장 핵심은 대웅전, 현세불인 석가모니불 외에 과거불인 구나함모니불과 미래불인 미륵불까지 3불이 한데 모셔져 있다.대 비전에 모셔진 4개의 화려한 관음상도 불교미술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니 빼놓지 말고 감상하도록 하자. 사원을 둘러본 후, 사원의 배후를 감싸고 있는 뒤쪽 나지막한 봉우리로의 짧은 트레킹도 권할 만하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항공편 중국 하문항공이 인천공항에서 하문공항까지 매주 수 · 금 · 일요일 운항하며 비행시간은 3시간. 격린여행사(www.greentravel.co.kr)가 하문-장가계 성지순례(남보타사, 개원사, 범천사) 5박 6일 상품을 판매하며 상품가는 84만9천원. (02)778-9338.



◀무릉도원이라 부를 정도로 기암괴석들과 우뚝 솟은 봉우리들이 모여 형성된 장가계 풍경.

▶장가계의 또하나의 자랑인 천문산 사이에 뚫려있는 천문동은 보는이로 하여금 경외감을 느끼게 한다.



